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30일(음력 12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664 호

“10·27법난 진상 규명을”

조계종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윤원호 · 안명옥 의원 입법안 설명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원학 스님)는 1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열고 국방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논의 했다.

입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 배경과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양당 특별법을 비교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안 의원은 11월 15일 각각 10·27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과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 목적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두 의원은 모두 10.27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정의와 국가의 의무, 보상금,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우선 법난 피해자의 정의를 윤 의원은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신체·정신상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한정한 반면, 안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와 함께 ‘상이를 입은 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상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안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10·27 법난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안 의원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날 두 의원의 법안 설명을 들은 김봉석 변호사는 “10·27 법난의 정의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에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개인 보상에 집중돼 있지만, 10·27 법난 특별법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계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에 따른 회복 조치와 보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에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교계의 전통과 맞지 않으므로 보상은 민법에 의한 개인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이 소속된 종단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파면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법타 스님은 “국방부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참고인과 유관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명백했던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특별법 제정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 부의장)도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1월 28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데 현재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통해 정부와 불교계의 화해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2월중에 처리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우선 소관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공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소위와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참석자 대다수는 조계종단 측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특별 발원법회 등을 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정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불교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측 관계자들.

‘불교 공약’ 실천 방안 논의

조계종-인수위 실무 간담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불교 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 간담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월 2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공약 실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적,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문화재사찰위원회 위원장 현응(해인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김영국 조계종총무원장 특보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측에서는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총괄간사, 주호영 당선자대변인을 비롯해 사회문화교육분과위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유인촌 자문위원, 김재원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식 위원(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교문화를 꽃 피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오늘 의견을 토대로 종교문화 진흥정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맹형규 간사는 “불교의 원융사상으로 인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가 종교적 평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니, 불교계 현안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당선자의 불교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불교 공약을 중심으로 실행 의견을 정리해 제안하는 자료집을 전달한 후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이 당선자의 불교 공약을 중심으로 불교규제 법령개정과 국립공원 및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전통문화 계승발전, 불교문화 세계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통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당선자 공약 사항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이 제안돼, 1월 마지막 주 중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묵서지편’ 판독순서 바뀌었다”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서 최연식 교수 주장

2007년 10월 발표된 ‘묵서지편’ 판독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1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목간학회(회장 주보돈) 정기발표회에서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묵서지편 중 1038년 <서석탑중수형지기> 순서가 잘못 정리돼 문서의 전후관계가 뒤바뀌어 중수기록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복원과정에서 잘못 정리된 문서 편들 순서로 인해 생겼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최 교수는 “결국 본래 하나인 문서가 두개의 문서로 나뉘어 이해됐고 중수 작업 순서도 잘못 이해됐다”고 말했다.

1966년 출토돼 2007년 10월 판독·해서 발표된 ‘묵서지편’은 1024년 <현종15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와 <현종15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 1038년 <정종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정종4년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 추기>, <정종4년 불국사석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의 4개 문서로 알려져 있었다.

최 교수는 “1038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와 <추기>가 별도가 아닌 하나의 문서다. 이들 문서에 기록된 작업은 같은 시기에 한차례 행해진 중수작업”이라고 말했다.

‘묵서지편’에 기록된 ‘무구정광탑은 다보탑, 서석탑은 석가탑’이라는 남동신 교수(덕성여대) 학설이 봉안물 관련 기록을 통해 재확인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다보탑 중수기록이 왜 석가탑에 들어 있었을까?

최 교수는 “석가탑 중수를 위해 14년전 있었던 다보탑 중수기록을 참고하기 위해서 였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무구정광탑중수기가 석가탑으로 옮겨졌다는 해석에 따라, <무구정경>도 그랬을 것이라는 유추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발표 후 가진 토론에서 최초 판독자인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무구정광탑을 다보탑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구정경>이 석가탑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석탑을 무구정광탑이라고 인식됐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런 증거를 두고 무구정광탑이 다보탑이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반론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학계에 오픈 소스 개념이 이어져 한국목간학회와 같은 불교학 · 서지학 등 학제간 연구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기사 넘쳐 이번호 ‘허허당의 세상만사’는 쉽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헌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100% 순수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사찰메주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황토집에서 띄워 장맛이 좋습니다.
마음 닦으며 수행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수공메주
메주 1말 75,000원
※ 토종 항아리에서 숙성된 장류 및 청국장 안내
된장/막장, 국간장/조림간장, 고추장(보리/찹쌀), 참기름, 들기름, 3회죽염, 9회죽염, 청국장(분말, 환, 말린, 찌개용, 무염)



제조원 : 포항 금강정사 福 금강정사 복식품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부산 051)514-3566 대전 042)862-5539 울산 052)211-216 강릉 033)644-9009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만월등(주름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보광사 사태 1심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현중·황운 스님 소유권 인정… 선학원측 상고 준비

폭력사태로 번졌던 (재)선학원 소속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태에 대한 2심 판결이 1심을 뒤집고 현중 스님과 황운 스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1월 9일 판결문을 통해 "현중 스님이 서울 보광사 및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지위를, 황운 스님이 부상 보광사에 대한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사찰을 사고사찰로 규정하고 재산관리인을 파견할 것을 결정한 2004년 12월 17일자 선학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창건주의 권한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창건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단의 분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중 스님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의 정인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 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구성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이 조직규정 기타 종교단체 규범의 합리적 해석에 근거를 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학원측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 보광사 사태는 2004년 9월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입적한 후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충북불교문화회관의 창건주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 보광사 주지였던 현중 스님측과 현중 스님의 창건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남산문도회측은 2004년 12월 31일과 2005년 1월,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동방불교大 신입생 모집

범패·승가학과는 예비승려 이상만 입학 가능

태고종 동방불교대가 2월 12일까지 200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를 비롯해 승가학과, 범패학과 등 2년제와 불교미술학과(3년제)로 나뉘어 전형을 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필기 및 실기, 면접고사를 통해 결정한다.

지원자격은 불교학과와 불교미술학과는 출·재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범패 및 승가학과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자에 한해서만 입학 가능하다.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교육 제도에 의거해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반드시 동방불교대를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구족계 수지 자격은 물론 승려증이 발급된다.(02)745-2030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곡사 사태 진각 스님 제적

마곡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진각 스님이 제적, 장곡 스님이 공권정지 3년의 판결을 받았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1월 23일 제42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진각 스님은 말사 주지 품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한편, 아동보호시설인 '둥지청소년의집' 공금횡령 및 아동 학대 혐의로 회부된 지공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보류했다.

진각 스님과 장곡 스님은 초심호계원에서 각각 멸빈과 공권정지 6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첫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하고, 교구사무실을 개소한다.

조계종은 1월 31일 오후 3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후 4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식을 봉행한다.

종회에서는 ▲교구종회 부의장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직할교구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대중결계와 포살 실시 안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직할교구 사무실은 직할교구 운영의 효율과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민원상담실로 운영되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공간에 설치된다.

여수령 기자

"대중결계·포살법회 역점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올 사업계획 발표

취임 3년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올 한해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밝혔다.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연 지관 스님은 "올 한해 대중 결계와 포살법회를 정례화하고 승가의 수행종풍을 진작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종단 슬로건으로 내건 지관 스님은 올해 새로운 사업 계획 보다는 지난 2006년 11월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던 4대 역점과제의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부서별 22개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불교 대응 방안 추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센터 운영, 스리랑카복지타운 준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지관 스님은 "이명박 당선자의 종교가 다르다고 우려하지는 않으며, 대운하 건립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진각종과 오랜 논란을 빚어 온 군승 파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석에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조계종의 4대 역점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대중 결계와 포살 법회=대중 결계와 정기 포살법회 실시는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직후부터 제시했던 종단 중점 사업이다. 지관 스님은 "결계와 포살은 내면적 자기 성찰, 반성, 경책, 탁마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종단은 올해 하안거부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결계와 포살법회를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헌, 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결계는 종단 소속 스님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종단은 이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발간할 방침이다. 포살법회는 한 달에 두 번, 음력 그믐과 보름에 대중이 모여 자기가 받은 계법을 외우고 보름 동안 계를 어긴 점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한편, 조계종은 종지종풍 선양을 위해 종조(宗祖) 도의국사 수법기념비를 중국 강서성 홍주 우민사에 세운데 이어 광동성 남화선사에 순례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수법기념비 제막식은 오는 4월 경 열릴 예정이다.

▲한국불교 중흥 기반 마련=현재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조계사 시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4대 역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통불교문화센터 등 불사 추진
감사기능 확대 종단 청정성 향상
어린이 눈높이 불교콘텐츠 개발

선원 개원, 6월 국제템플스테이센터(서울 양평구 신정동) 건립 착공, 8월에는 전법회관(서울 종로구 견지동) 완공, 11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 완공, 11월 전통불교문화센터(충남 공주 마곡사 인근) 개원 등의 불사가 추진한다.

총 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종단의 교육과 수련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전법회관은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와 기관이 입주하는 전법의 거점으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국제선센터 등은 국내·외인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선문화를 알려나가는 장(長)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통사상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비롯한 한국 고승 어록과 법어집을 영역해 세계에 알리는 한편, <삼국유사> 일부를 영역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중원융 살림 전통 계승 발전=조계종은 원융살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종무행정 권한을 교구본사에 위임해 종단 운영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종단 중앙종무기관의 세입 세출 예결산을 종단 홈페이지와 종보(宗報)를 통해 공개하고, 교구본사 주지 선거 시 공명선거 서약 의무화와 호법·감사 기능을 확대해 종단의 청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지난 한 해 공주 마곡사와 제주 관음사 사태를 통해 불거진 주지 선거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추진했던 승가 노후복지 제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지관 스님은 "당장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올해 승가복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현 단계의 승가복지 구상은 총무원이 기획총괄하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체계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종무의 종도 중심 평가시스템 마련,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의 직무와 생활에 맞는 청규 제정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법 봉사 역할 확대='종단의 전법 봉사 역할 활대' 분야는 지관 스님이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사업의 지속적인 실천과 공익기부재단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팀을 설립하고 어린이전문사이트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는 불교 콘텐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종단 내 공익기부재단을 설립한다. 향후 3년 내에 70억원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과 공익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실문전담자를 배치해 설립과 운영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이어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센터를 설립해 불자 노인보호사를 체계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광 불교대학·대학원(2년제)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대학·대학원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신행과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불광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입니다.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교과과정
■ 1학년 1학기 : 근본교리, 불교문화, 불교 경전의 이해, 바라밀수행법
■ 1학년 2학기 : 대승불교, 계율론,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 2학년 1학기 : 경전 강독, 비교종교, 포교와 전법, 불교사
■ 2학년 2학기 : 선불교, 불교사회복지, 보현행원품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 12시
■ 저녁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지원자격
1.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2. 불교기본교육 수료자(미수료자는 1학기내에 수료하여야 합니다.)

특 전
1.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모/집/일/정

◆ 모집기간
1월 1일 ~ 2월 29일
◆ 입학식
3월 2일 (일요일)
◆ 등록금 (학기당)
대학 20만원,
대학원 25만원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4학기)

교과과정
반야·중관사상, 유식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대승기신론, 선어록 강독, 초기불교,

모집분야
■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 12시
■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원자격
1. 대한불교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특 전
1. 불광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2. 학업성적 우수자 불광 교수단 등용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3번지 불광교육원 02)417-2551 www.bulkwangsa.org

국가대표 선수들 '佛心 지핀다'

태릉선수촌에 법당 개원…전·현직 선수들 대거 참석

"선수 여러분, 법당에서 마음 다지고 좋은 결과 내세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6개월여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1월 23일 태릉선수촌 필승 주체육관 1층 특설행사장에서 태릉국가대표 선수촌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태릉선수촌에 개원한 법당은 필승 주체육관 2층에 있으며 전체 평수는 약 70평이다. 사실 태릉선수촌 법당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시설이 낙후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이런 사정을 안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한마음선원에서 기탁한 포교기금 3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법당을 새로 꾸미고 탱화와 불상을 모시는 등의 노력 끝에 재개원 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법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로, 중랑구사암연합회장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태릉선수촌 법당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불심을 다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동범 스님, 포교연구실장 도신 스님,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 체육인불자협회 이기흥 회장과 황영조 · 전기영 · 이은경 · 정성숙 등 전 · 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10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체육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이므로 부처님께 발원하며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 포교원에서도 각 시도별 여러 종목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마음선원 상임이사 혜근 스님은 "혼자 고난의 시간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선수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량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종 스님은 "육체적 기량, 정신적 안정, 집중력 기를 수 있는 근본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는 불상점안,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공로패 수여, 임명장 전달, 연비의식, 한마음선원 합창단 ·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축하 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이중 연비의식에는 여러 선수들이 직접 팔을 걷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선수들은 다소 어색한 듯 보였지만 불자로서 약속하고 서원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포교원은 이날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전국조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시도지부별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앗, 뜨겁진 않나요?" 국가대표 불자 선수드이 팔을 걷고 연비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사진 위). 태릉선수촌 법당 개원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 수행이 한결 쉬워졌다.

"시주하겠다" 접근 사기피해 요주의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차(茶)를 판매하는 양모(54)씨.

며칠 전 가게로 70대 초반 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농사를 오래 지었고, 최근에 농장을 팔아서 10억 정도 되는 돈이 있다며 "이 돈을 꼭 비구니스님이 하시는 불사에 시주하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 자신이 모시던 비구니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재산을 비구니스님의 불사에 시주하라"고 유언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경계를 하던 양씨도 용의자의 말주변이 워낙 좋고 "여기(차 파는 곳)에 비구니스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 찾아오게 됐다"는 등 알리바이도 재차 제시하자 어느 정도 긴장을 늦추게 됐다. 그러자 용의자는 "은행에서 10억을 수표로 찾아 주겠다. 이 돈으로 직접 불사를 해 보라"고 권유하며 "지금 당장 은행에 다녀와야 하니 돈 5만원만 달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심이 든 양씨는 "지금 2만원 밖에 없다"며 돈을 주어 내보냈다.

이후 양씨는 주위의 아는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말해주었고, 스님들로부터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양씨는 1월 24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선심공세로 시주를 하겠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알려달라고"고 말했다. 또한 양씨는 "용의자는 70대 초반 쯤으로 보이며 상당한 달변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꾸어 접근하는 것 같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여수령 기자

성직자들 '대운하 반대' 도보순례 나서

수경·도법·연관 스님 100일 대장정에 동참키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강 살리기'를 주제로 100일 동안의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환경연대는 1월 23일 "불교스님, 기독교 목사님, 원불교 교무님, 천주교 신부님, 성공회 신부님 등 종교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결합하여 이명박 운하 반대 활동 일환으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 대장정'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보순례는 2월 11일부터 진행된다. 코스는 한강하구에서 출발해 남한강을 거슬러 경부운하의 종착지점인 낙동강 하구 까지 종단한다. 이어 영산강과 금강을 거쳐 남한강 합류지점까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전역을 도보로 직접 순례한다. 순례 중 곳곳에서 지역민과의 대화마당도 열어 전국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순례단 규모는 각 종교 성직자, 환경 단체 실무자 등 40여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며, 불교계에서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을 비롯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실상사 연관 스님 등이 동참한다.

수경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가 환경과 문화재 훼손에 대한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으로 판단해 대운하 건설 예정지를 돌아보며 운하 건설로 파괴될 지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참회를 위해 순례길에 오르기로 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통해 도보순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과 프로그램, 동참 성직자 범위, 순례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국토순례대장정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2월10일까지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자료기록, 행사보조, 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은 1월 25일 경부운하 건설에 다른 문제점을 정리한 <경부운하는 불교문화재 파괴 운하>라는 책자를 발간해 정부기관과 언론사, 시민환경단체 및 사찰 등에 배포했다. (02)720-1654

김주일 기자



달마 오픈 스노보드 제6회 챔피언십 개최

달마오픈 조직위원회(공동대표 정념 · 인묵)가 '제6회 달마 오픈 스노보드 챔피언십'을 1월 30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익스트림 파크)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이 2003년부터 매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진두지휘하는 불교계 유일의 스노보드 대회다. 호산 스님은 대회 시작 전 직접 하프파이프(보드를 이용한 공중기술)를 이용한 보드 시범을 보여 스포츠를 통한 불교 포교의 일환으로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로 승격, 10여명의 외국인 선수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월 30일 오전 8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주니어와 아마추어, 프로로 나눠 펼쳐진다. (031)773-3797

김강진 기자

"'1사찰 1논문' 사업 교계 최초 시행"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교계 최초로 한 사찰이 불교학자 한명을 지원하는 '1사찰 1논문' 사업이 펼쳐진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21일 열린 신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1사찰 1논문 지원 등 불교학자 연구비 지원 확대 ▲선리 아카데미 개원 ▲학술진흥재단 등재 추진 등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불교학계는 이번 1사찰 1논문 사업이 성공할 경우 불교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효과를 거둬, 불교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연구원이 발간하는 2007년 12월 발간된 <선문화연구> 3집에는 '한국불교 포교의 실태와 방안'에 대한 기획논문 6편이 수록돼 눈길을 끈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와 고명석 연구원(포교원) 등은 논문을 통해 현 포교실태 진단과 대응방안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상담포교인력 양성기반 구축할 것"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1월 18일 올해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올 불교상담개발원의 목표는 크게 ▲불교상담대학 안정적 운영을 통한 상담포교인력 양성기반 구축 ▲불교상담심리사 배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대외위상 정립 ▲불교상담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사업 전개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스님 24명을 지속적으로 전국 중앙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파견해 경찰상담도 의욕적으로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진 기자

부처님 8대 성지 성역화 추진

'정토회'가 인도에 있는 부처님 8대 성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토회는 관계자들이 1월 18일 인도 상카시아에서 석가족(샤카족 · Shakya) 400여 명과 함께 8대 성지 성역화 사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1월 21일 밝혔다.

정토회는 지난해 말 이곳의 부지 1만2545㎡를 매입해 효(孝)를 주제로 삼은 양로복지시설 '마하마야 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주일 기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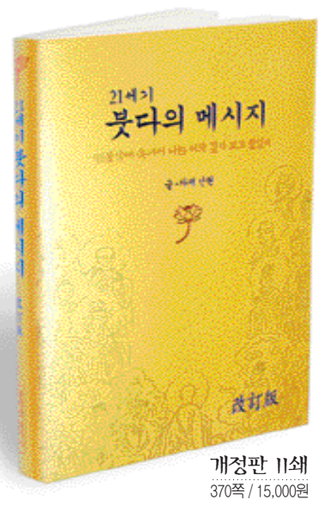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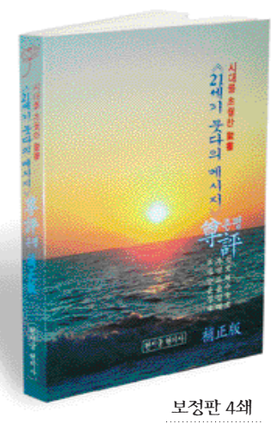
12쇄 개정판 11쇄 이어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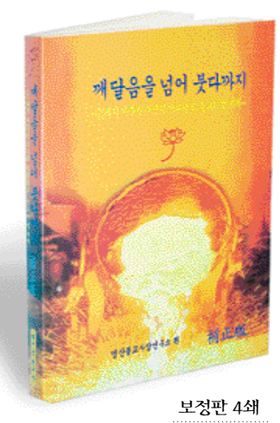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광주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바라밀실버하우스' 건립…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빛고을 광주에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고)은 오는 2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바라밀실버하우스(관장 정미숙)'를 개원한다. 이 곳은 치매와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요양원과 복지관을 함께 설립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치료 ·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전문요양시설은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입소할 수 있다.

정미숙 관장은 "노인성질환과 각종 장애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실비만 부담하고 입소해, 의료와 복지를 겸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바라밀실버하우스는 5435㎡(약 1647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식당을, 지상 1층에는 7개의 요양실과 상담실 물리치료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마련한다. 지하 2층에는 12개의 요양실과 간호사실, 휴게실, 의무실, 욕실 등이 들어선다.

바라밀실버하우스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서비스, 노인성 질환과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 유지관리와 심신 단련을 돕는 의료재활 서비스, 자기개발을 통한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여가증진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지역사회조직 서비스 등이다.


오는 2월 운영을 시작하는 바라밀실버하우스 조감도.

바라밀실버하우스가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나 홈페이지(www.gjw.or.kr/baramil)를 통해 자세한 입소 절차 및 생활여건 등을 상담할 수 있다.(062) 953-44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계룡산으로 氣충전하러 오세요"

이종철 화백, 정월대보름 맞이 달마도 전시·퍼포먼스 행사 개최

'氣가 넘치는 달마도'로 새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기를 넣어주겠다는 화백이 있다. 석주 이종철 화백이다. 지난 20여 년간 달마도를 그려 온 이 화백은 대구 U-대회나 2002년 월드컵 등 지역과 국가의 큰 행사 때 마다 무료로 달마도를 그려 행사의 의미를 더해왔다.

지난해 11월, 화실을 겸한 전시공간이 있는 선화예술원을 개원한 이 화백이 내달 2월 2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1~23일 '2008 계룡산 기(氣) 축제'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선화예술원에서 열리는 계룡산 기축제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민들과 불자들에게 '기(氣)'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는 평소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등 생활 속에서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기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기축제에 오셔서 기가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마도 화가 이종철 화백이 오는 2월 '계룡산 기축제'를 개최한다.

선화예술원 1층에는 필력 있고 기가 넘치는 달마도 작품들을 걸고 세로 6m, 가로 3m의 종이 위에 1.5kg의 대형 붓으로 '氣'자를 쓰는 퍼포먼스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화백이 직접 쓴 '氣'자를 나눠준다.

이 화백은 최근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달마도에 대해 경계하며 "불교계의 큰 어른이자 선종의 초조인 달마선사를 그린 달마도가 홈쇼핑 등에서 상품으로 취급받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그린 달마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받고 신심(信心)을 낼 수 있다면 그걸이 진정 달마도를 그리는 이유"라고 말한다.

또한 이 화백은 지금껏 그려온 달마도 65점을 묶어 다음 날 책으로 펴내는 한편 3월 중에는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1월 22일 열린 화엄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모습.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 '첫 삽'

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1월 22일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원로의원 명선 스님과 주지 종삼 스님, 각 말사 주지스님, 서기동 구례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명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1500여년의 역사와 많은 성보문화를 가지고 있는 화엄사에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보존할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여러 대중들이 화엄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종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 성보박물관은 우리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에 기공한 성보박물관은 국비지원으로 건축면적 771㎡(약 230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1층에는 수장고와 기계실이 지상 1층에는 전시실과 로비, 관리실 등이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문화유산 알리기' 나선다

금강경독송회 책자 배포

미주나 유럽 등 해외에서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반세기 전의 한국전쟁과 분단국가, 급속한 경제성장 등 명암이 대비되는 이미지들이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가 한국을 떠 올리는 대표이미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당연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한국의 50대 문화유산>을 영문과 독어 불어판으로 9만부를 펴냈다. 팔만대장경 한글 온돌 고대 천문학 석굴암 고려불화 등 문화유산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지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무료 배포된다. 금강경독송회는 또 금동반가사유상, 팔만대장경, 방짜유기, 무용 태평서곡 등을 담은 영상물도 각국의 언어로 제작해 무료 보급한다.

금강경독송회의 한국문화 알리기 불사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간 <성웅 이순신> <한국의 영원한 빛 세종대왕> <충 효 예>등의 서적을 각국 언어로 제작 20여 만부를 배포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책 배포와 함께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독후감 공모를 해 실질적인 '책읽기' 분위기를 조성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금강경독송회가 한국문화 알리기 불사를 추진하며 영어 독어 등 각국 언어로 제작한 서적과 영상물.

금강경독송회는 웹사이트(www.kscpp.net, www.koreanhero.net)를 통해서도 책의 내용들을 공개해 한국문화 알리기의 세계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군산 불자들 지역발전 기원 '한마음'

군산불교사암聯 조찬법회

군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재곤)와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안근)는 1월 24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군산발전 조찬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스님들과 강봉균 국회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각급 기관장 및 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재곤 스님은 "불교는 예로부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우리 지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난국을 극복하자"고 법문했다.

동국사 재훈 스님은 운문선사의 법어 중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을 인용하며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해 자리를 함께한 기관장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를 주관한 신도회 안근회장은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계기로 군산발전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법석을 마련했다며 지역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운문·동학사승가大 졸업식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은 1월 21일 제44회 졸업식을 열고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1일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운문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불타정각'과 '중생제도'를 위해 모든 일에 신심과 성의를 다하고, 만사에 근면하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법문했다.

한편, 동학사승가대학(학장 해주)는 1월 23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제45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29명 학인스님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과 동학사 前 학장 일초 스님, 대전비구니 청림회 회장 영진 스님 등 250여 명이 졸업식에 참석했다. 학장 해주 스님은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첫 걸음"이라며 "굳건한 심신으로 부지런히 연구하는 스님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혜철 충청지사장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혜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禪·敎 함께 닦는 '열린 도량' 우뚝

함양 벽송사 청허 · 안국당 상량식 봉행



함양 벽송사는 1월 20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을 거행했다.

함양 벽송사(주지 월암)가 1월 20일 선교겸수 수행공간 청허당과 안국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국선불교 최고의 종가로 알려진 벽송사는 1520년 벽송지엄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서산 · 사명 대사가 수행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선교를 겸수한 대 종장을 108명이나 배출해 '백팔조사 행화도량(百八祖師行化道場)' 의 별명도 갖고 있다. 벽송사를 창건한 벽송지엄 선사에 이어 부용영관 선사가 제2대 조사를, 서산 대사 청허휴정 스님이 제3대 조사를 이으며 벽송사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선교겸수의 중심도량이자 간화도량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조선시대 불교말살 정책과 함께 어려움을 겪던 벽송사는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이용되다가 국군에 의해 소실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60년대 원응구한 스님에 의해 중건된 벽송사는 이번 상량식으로 선불교 종가의 위상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벽송사 불사는 안국선원에서 불사금을 지원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300여명이 참석한 상량식에서 수불 스님(안국선원 주지)은 "한국의 큰 선지식을 배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 한국불교의 큰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현재 벽송사는 125.4㎡(38평)의 쌍둥이 목조건물 청허당과 안국당, 330㎡(100평)의 공양간 백장요, 부용암 및 종각, 담장 등을 신축 중이다. 청허당과 안국당은 사시사철 수행 및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청허당은 서산 대사 청허 스님의 법명에서, 안국당은 서방세계 극락정토를 향해 스님들이 지향해야 할 안국세계란 뜻과 안국선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붙여졌다.

공양간 백장요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의 뜻을 담았으며 부용암은 벽송사 제2대 선사 부용영관 스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부용암은 특강 및 논강에 참석하는 스님들을 위한 임시 처소로 이용된다.

함양 벽송사=하성미 기자

interviwe 월암 스님 — 전문가 초청 특강도



"벽송사의 전통을 이어 선교(禪敎)겸수,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선원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상량식에서 벽송사 주지 월암 스님(사진)은 향후 계획을 이와 같이 밝혔다.

선과 교를 겸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님은 "선교겸수는 너무나 당연하다. 선은 부처님 마음,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마음과 가르침을 하나로 일치하여 율을 행해야한다. 계정혜 삼학이 일치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스님은 방부를 들이고 <육조단경> 및 대승경전 논강과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특강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 금정포교원 '봉불식 및 점안법회' 봉행

화명동 신시가지 포교 의지 밝혀

부산 금정포교원(주지 진명)은 1월 22일 '봉불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재가불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점안법회에서 금정포교원은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을 증명법사로 초청해 법문을 들었다.

무비 스님은 "불상을 모셨지만 내 자신 속에 있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처님이 중요하다"며 "근기에 맞는 여러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불상도 모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찾는 수행의 씨앗으로 삼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신행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년 전 20여 신도와 함께 개원한 금정포교원은 부산 화명동 신시가지에서 불법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지 진명 스님은 "화명동 아파트 단지에 작게 마련된 포교원이지만 앞으로 초보 신자들을 위한 포교의 근거지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 공부할 수 있는 곳, 초보를 위한 눈높이 교육을 강조한 진명 스님은 "'한글로 진행하는 의식'과 '한글로 보는 경전을 지향'해 불교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편견을 깨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포교방법 논의를 위해 진명 스님은 화명동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들과 연계하여 포교 전략을 위한 정보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금정포교원은 최첨단 시설을 이용한 영상강의 및 기초불교대학을 운영 중이다. 기초불교대학은 4개월 과정으로 봄 · 가을에 신입생을 접수한다. 앞으로 진명 스님은 기초불교대학을 이수한 졸업자에 한해 간화선 프로그램을 열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낯선 산사에서의 '하룻밤'

한국청소년야외교육협회가 남해군 용문사에서 제5회 청소년 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했다.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전혀 낯선 곳인 사찰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사찰체험을 했다.



남해 용문사에서 제5회 청소년 산사 체험이 열렸다.

산사체험에서는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의 '효(孝)' 법문도 듣고, 사찰 기본 예절, 108배 체험, 호국산 일출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산사체험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산사체험에 대한 모든 경비는 전액무료이다. 장용희씨,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사람들의 모임이 매년 겨울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남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부산경남포교사단 '신년하례 및 단장 취임식' 봉행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김재갑)은 1월 22일 썬 뷔페에서 신년하례 및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설동근 교육감,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여성개발원 이영숙 회장, 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및 포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혜총 스님은 "포교가 희망이다"며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5대 단장으로 취임한 김재갑 단장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이다"며 "부처님 말씀을 알리는데 진력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국토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포교사단은 이어 시상식을 열고 그동안 포교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유규식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부산경남포교사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열린불교, 참수행 속으로

홍법사 심산 스님

부산 범어사에서 울산 방향으로 10여분 차를 달리면 도심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금정구 두구동에 홍법사(주지 심산 · 사진)가 있다. 홍법사 가는 날 겨울비가 내렸다.

누구나 홍법사에 가면 부산 도심 포교의 수장으로 불리는 심산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심산 스님의 도심 포교 성공 사례는 포교를 꿈꾸는 스님들의 표상이 되고 있다.



심산 스님은 '포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포교는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절이란 기도 · 수행 공간에 머물지 말고 복지, 문화, 국제화 등 시대와 함께 하는 종합복지문화의 장이어야 한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위한 프로그램 인기
산사순례 · 외국인포교 · 해외교류 등 '활발'

고 정의 내린다.

홍법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중 영어 템플스테이는 영어와 사찰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3월부터 매월 넷째 토요일마다 1박2일 동안 운영되고 있다. 30명 정원으로 원어민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줄을 이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로는 동자승 단기출가와 출가하지 않고 스님 상좌가 되는 유발상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발상좌는 마을 학생을 중심으로 스님 상좌가 되어 불교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영원한 불자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놀토체험교실은 부산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으로 걷기명상, 축구, 미술, 원예, 구연동화, 종이접기, 음악 줄넘기, 독서토론,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걸망 메고 떠나는 108산사 순례'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도 매번 1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각자의 걸망에는 작은 돗자리와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미를 준비해야 한다.

심산 스님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한나래문화재단'을 설립,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12년째 주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포교의 새로운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단체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등, 김장, 연꽃밭, 송편, 녹차 만들기 등 40여 가지의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으로, 참여 외국인만 4000여명에 달한다.

또한 스님은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홍콩, 인도, 일본 등과 교류해 봉사활동 및 병원, 사찰 운영 등 세계화에 걸맞는 포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심산 스님이 도심포교에서 만들어나갈 역사가 기대된다. 도심포교가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스님이 가슴에 품고 묵묵히 세운 포교의 돌기둥은 포교의 꿈을 꾸는 스님들에게 초석이 될 것이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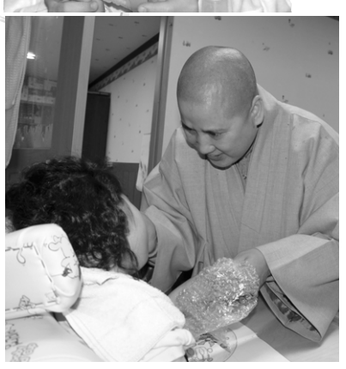
‘마음 속 세상’ 맘껏 표현해 보세요

승가원장애인아동시설 계절학교 5일간 개최

그림 그리기·색종이 붙이기 등 놀이치료 진행







그저 놀이라고? 장애아동들에게는 마음속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옥 스님(오른쪽 사진)도 아이들과 함께 감각놀이를 하고 있다.

“선영아, 언니 하는 것 좀 봐.”

어떤 일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소녀가 뒤척임을 보인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빙그레 미소 짓는 것은 볼 수 있다. 선영이(15 · 가명)는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아동이다. 1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게 보통의 또래보다 훨씬 가녀리다. 언어로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봉사자 언니가 손을 흔들자 눈을 움직인다. 선영이의 반응에 봉사자 언니의 입가에도 어느새 웃음이 걸린다.

서울 안암동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을 찾은 1월 22일, 시설이 온통 들썩들썩한다. ‘겨울학교’ 때문이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이야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 언제나 분주하지만 겨울학교에서는 유난하다.

이번 겨울학교는 ‘우리들 세상’을 주제로 1월 21~25일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들 세상’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시설 장애아동들 마음 속 세상을 가리키는 것일 터다. 아이들 72명 각각의 마음속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지 조금은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게 된다.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면 좋으련만, 아이들 중 태반이 중증장애아동이라 언어활동, 의사표현 등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감각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활동은 옷에 그림그리기, 색종이 찢어 붙이기, 포장재를 활용한 구르기 놀이, 패트병 속에 콩을 넣어 흔들어주기 등으로 진행됐다.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옷에 물감을 찍어 그림을 그리거나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기놀이를 하고 색종이로 모자이크 놀이를 하며 작품 활동을 한다. 이른바 시설 내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그림도 곧잘 그리고 그럴싸한 작품도 만들어낸다.

이보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은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포장재를 온몸을 이용해 터뜨림으로써 터지는 감각과 소리를 경험한다. 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병 속에 콩을 넣어 흔들어 소리를 내주거나 고무찰흙을 손에 쥐어주고 함께 주무르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활동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는 놀이이자 치료다. 이 아이들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을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며 한 번씩 스쳐가는 것도 이들에게는 고역일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여느 아이들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을.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각놀이다.

이렇게 진행된 아이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예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실습생들이다. 실습생 황수영(한양여대2)씨는 “세부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2주간이나 고민하며 준비단계를 거쳤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획부터 생활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들이 함께 했다.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20여명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미래 의사선생님들이 자원봉사자로 장애아동들의 상황을 지켜본 것이다. 이들은 의사란 직업은 인간에 대한 마음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에 시설봉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봉사다. 의대생 봉사자 정현숙(24)씨는 “장애아동들이라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고 안아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만큼 장애아동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히기 좋은 존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도, 함께 봉사한 사람들도 아이들이 장애 · 비장애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중증장애아동 봉사라 하면 그저 씻기고, 밥 먹이고 이런 활동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치료 쪽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아동들을 독려한 시설 원장 동옥 스님은 “아이들에게서 감각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며 “장애아동들의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 시선에 맞춰 보는 노력을 사회 전체에서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은 겨울학교 ‘우리들세상’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들의 작품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는 시설에서 2월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02)921-6410

글·사진=김강진 기자

제주불교전통문화원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 종연 스님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노인요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 회주 종연 스님은 1월 25일 제주불교전통문화원 설립부지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인 ‘염화마을’ 기공식을 가졌다.

염화마을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연면적 300평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번 시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시설이 자체시설이자 무료노인요양시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연 스님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여명 정도 되는데 이중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껴 자체시설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서류상으로는 자녀 등의 보호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무의탁 치매·중풍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자체시설을 짓는 이유는 불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한편 수미정사 인천불교대학에서는 3월 2일 서울 양평동에 포교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연건평 200평에 3층 건물로 1층에는 삼존불을 모시고, 2층은 관음전, 3층은 문화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원에서는 불자들의 간화선 및 불교문화교육 등에 힘쓰게 된다. (032)427-8400 김강진 기자



⑪ 서울 광림사 연화원 봉사자 방정희씨

청각장애인복지로 유명한 서울 광림사(주지 해성)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다. 봉사자 방정희(47·사진)씨다. 늘 웃는 얼굴, 활달한 성격인 그는 해성 스님과 함께 서울 광림사에서 운영하는 연화복지원을 이끌고 있다. 스님이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씨. 광림사를 찾는 누구에게나 그는 든든한 지원군임에 틀림없다.

“봉사는 그저 즐겁게 하면 돼요”



“스님 하시는 일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뭐. 스님께서 큰 그림 그리시고 저는 가지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15년 전, 처음부터 스님과 함께 해 온 세월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씨. 그러나 그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스님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사회복지대학원 수료까지 했을 정도라면, 스님 못지않게 수화를 하면서 연화복지원에서 수화강의까지 맡고 있다면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참 야무지게 봉사하는구나 싶다.

인터뷰 도중 청각장애인 순미(42 · 가명)씨가 방씨를 찾아왔다. 이유는 순미씨가 요즘 고등학생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다.

“가끔 스님에게 털어놓기 힘든 사는 이야기 같은 거, 청각장애인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제가 편하잖아요.”

방씨가 그렇다고 광림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4년 전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세곡동 군법당 호국연화사에 나가고 있다. 허름한 법당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그는 연합포교사인 남편 임희광씨와 남편의 포교사 동기들까지 함께 법당을 지키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떡볶이, 잡채 등 군인들이 좋아할만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20명이던 군인이 60명으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청각장애인 자립 위한 꽃배달 사업

연화복지원에서 수화강의 진행도

“애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 음식 잘하는 보살님 오늘 또 안 오신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분 좋죠.”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법당을 찾았을 뿐이었던 군인들이 제대할 때쯤에는 “저 이제 <반야심경> 욀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때, 방씨는 그야말로 뭉클하단다.

여기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보니 광명보육원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그래도 광림사다. 오랜 세월동안 청각장애인들을 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했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요즘 방씨는 연화원 장애인들과 함께 꽃배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나 주문이 들어오면 예쁘게 꽃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 · 지원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후원에만 의존하자니 한계가 있어 만든 사업이다.

“이 일은 사실 청각장애인들의 자립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수익을 창출해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쉬는 날은 많아야 한 달에 사나흘이다. 그래도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없다. 그저 즐겁단다.

“청각장애인들이 긍정적이고 밝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언제까지든 계속 봉사를 하려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분들도 봉사를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안내(보우승가대학)

본교는 태고보우국사의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운영과 신도포교에 꼭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기초의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2년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그에 준하는 자격 또는 종단승려의 추천에 의하여 누구나 입학가능하며 기초에서 부터 전문으로 완성해드리는 보우승가대학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입학안내

◆모집학과 및 정원
· 범패학과 30명 / · 불교문화예술학과 30명 / · 전통강원반 40명/ · 교임교육과 30명
◆응모자격 : 신입생 : 승려 및 재가자
· 편입생 : 지원학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자(2학년으로 편입가능)
· 전통강원반 : 일반불교교양대학 이수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 이수자
· 교임교육과 : 희망자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
· 장소 : 본교 교학처 · 기간 : 2월 1일 ~ 2월 15일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 에서 다운 받거나 팩스 747-9290로 제출.
2)주민등록초본 1부
3)반명함판 사진 3매
4)전 형 료 5만원

2. 입학전형일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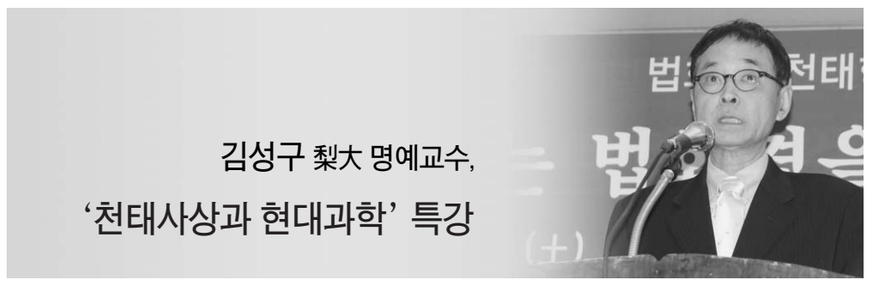
3. 합격자발표 : 2008년 2월 23일(토)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http://bowoosamgha.com)게재

4. 교 과 목

학 과	목 표	교 과 목
범패학과	의식의 기초인 목탁 잡는 법 에서부터 49재의식까지 봉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례를 체계적으로 학습	기초불교교리. 상주권공. 호적
불교문화 예술학과	불교교리 및 법당관리.사찰운영에 꼭 필요한 모든장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함	기초불교교리.재설비 (도량장엄.고임새.지화.서예등).생활역학
전통강원반	선암사 강주를 역임하신 운범스님께서 경전을 전통 강원식으로 집중 교육하는 전문자과정임	사미.사집과 : 치문.도서.선요.서장.절요 사 교 과 : 능엄경.기신론.금강경.원각경
교임교육과	6개월 과정으로 교임 또는 승려의 권속이나 신도회간부. 사찰운영의 초보자들에게 승려를 보좌하고 준 성직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위상을 정립토록 교육함	기초불교교리.불교의식.생활역학. 사찰경영학.재설비(도량장엄.지화.고임새. 금은전).습의학.다도.꽃꽂이.참선실수

연락처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보이는 것 모두 헛 것’ 과학적 이해 필요



김성구 梨大 명예교수, ‘천태사상과 현대과학’ 특강

불교, 과학과 갈등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종교

공한 이치를 알면 괴로움을 여의게 돼…

“불교는 과학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종교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종교가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 실재를 통해 불교교리를 설명한 특강이 있어 눈길을 끈다. 1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법화학천태학연구회 학술발표회에서 김성구 명예교수(이화여대)는 ‘천태사상과 현대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천태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뜻의 “이 마음이 곧 공이며 가이며 중이다”(此心 卽空卽假卽中)라는 말과 신경과학과 물리학을 연계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대물리학이 불교의 유식이나 천태의 원융삼제(圓融三諦)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 유사함의 예로 불확정성 원리를 들어 공을 설명했다. 불확정성 원리란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은 없음도 아니고 허무도 아닌데 ‘없음’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인식한 순간 ‘없음에서 벗어나려는 작용’이 생긴다.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있을 수 없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진공에서는 입자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일어난다.

원융삼제는 공 · 가 · 중이 각각 공가중을 포함해 서로 원융한다는 천태사상이다. 원융삼제에서 보면 만물은 전부 삼제원융의 이치를 구족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법이 모두 종가입종관, 종공출가관, 중도관, 일심삼관의 삼제원융 진리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실재에 관한 천태적 명제는 보통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공제(空)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물질을 실재로 보고 마음과 정신활동을 두뇌의 산물이라 보는 신경과학은 가제(假)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했다. 신경과학적 실재가 완전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종가입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나’(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집착을 놓으면 사람은 한없이 자유롭게 된다”는 김 교수는 “공한 이치를 알면 괴로움을 여의게 된다. 불교교리의 과학적 이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한)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화학천태학연구회는 2003년 이영자 명예교수(동국대)를 주축으로 시작된 법화학림이 모태다. 이 교수의 제자인 지창규 교수(동국대)에 의해 2007년 법학학림연구소로 확대 · 개편되면서 올해 출범했다. 지 교수는 “법화와 천태를 주제로 1년 4차례 학술연찬회를 열겠다. 곧 정식학회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Tip 신경과학계에서는

▲**자아** : 신경과학에서 자아는 신경과 신경의 연결인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으로 설명된다. 즉 심리상태는 두뇌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때문에 신경과학자들이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기계도 사람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 : 가상세계로 대변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을 대신한다. 가상의 자연계에 디지털 생명체를 만들어 둘 수도 있다. 이런 인공생명들은 기존의 생명현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사후세계** : 사후에 의식체가 존재하느냐는 종교의 주된 관심사다. 컴퓨터 상에 생명체로 존재하는 인공생명은 물질로 된 몸이 흩어져도 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사후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불교의 무아설과 흡사하다.)

‘노는 입에 염불하라’ 나옹 왕사 가르침 계승해야

보광 스님, 나옹의 정토사상 정리한 논문 발표

생활수행이 불교 신행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요즘, 고려 말 왕사였던 나옹 스님이 ‘노는 입에 염불하라’며 생활염불, 노동염불을 강조했음을 밝힌 논문이 발표됐다. 그동안 나옹 스님 행적과 사상을 논하면서 정토사상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있었지만 정토사상만을 정리한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25일,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영덕군이 대각사상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나옹왕사 학술세미나’에서 보광 스님(대각사상연구원장)은 ‘나옹 왕사의 정토사상이 한국불교 신앙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나옹 왕사의 수행과 교화 중 정토사상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칭명염불, 관념염불과 염불선 등 여러 정토수행법을 이두로 소개해 대중교화에 앞장선 공은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나옹 스님의 <서왕가> 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보광 스님은 <서왕가>를 ①인간의 무상함, ②출가구도의 길, ③치열한 수행생활, ④염불수행 권유, ⑤유심정토를 설함, ⑥인과응보를 논함, ⑦마음의 도리와 무량함 설명, ⑧극락세계의 수승함 등으로 나눴다. “<서왕가>는 염불하지 않는 중생들을 경책하면서 염불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 정토 포교를 위한 노래”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한국불교 의례에서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이 빠지지 않고 모셔짐을 예를 든 보광 스님은 “단순히 삼화상의 신통과 가피를 기원해 증명법사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삼화상의 가르침이 현재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현재 아침예불마다 행해지는 행선축원은 나옹스님의 발원문이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지관스님(총무원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황인규 교수(동국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이재수 박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등이 나옹 스님의 행적과 사상을 조명했다. 조동섭 기자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얼마나?

조계종 총무원, <해외유출불교문화재> 일본편과 <성보> 9호 출간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바로미터다. 역사를 보증하고 민족정서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임진왜란 · 일제 시대 등 잦은 외침과 혼란 속에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됐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문화재청에서도 7만5천여 점에 이른다고 추정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해외유출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다.

2007년 12월 출간된 <해외유출불교문화재> 일본편에 따르면 일본소재 해외유출 불교문화재는 총 1584건, 1만477점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박물관과 사찰이 많은 긴키지역(교토 · 나라 · 오사카)이 580건/ 1천278점으로 가장 많다. 도쿄가 있는 간토우지역은 516건/ 8천680점, 큐슈지역은 253건/ 253점이 유출돼 있다. 유형별로는 조각이 420건/ 446점, 서지 · 전적이 405건/ 8천957점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조사실무자인 이분희 행정관(총무원 문화부)가 <성보> 9호에 기고한 ‘해외유출 불교문화재 현황과 환수방안’을 통해 학술적인 고민과 대안제시로 이어졌다. 이 행정관은 북관대첩비 반환, 오대산 사고 <조선왕조실록> 반환 등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증과 구입, 반환요구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당장 회수할 수 없더라도 단절된 우리 문화의 맥을 잇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해외유출 불교 문화재 조사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총무원은 <해외유출불교문화재>를 도난문화재 관련 기관에 배포해 문화재환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일본 외 지역 유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향후 한권의 책자로 묶어 펴낼 예정이다.

한편 <성보>는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수경)가 년 1회 발간하는 책자다. 2007년 12월 발간된 9호에는 김성도 박사(문화재청)의 ‘미타사 금보암 관음전 조사후기’, 김익주 소장(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의 ‘원주 상원사 중수비 보존처리’, 정광용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의 ‘플라스틱 블라스팅을 이용한 갑사 법종의 보존’ 등 불교문화재를 주제로 한 5종의 논문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4)보조사상연구원 www.bojosasang.net

보조사상 선양 위해 준비된 법석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은 1987년 2월 설립됐다. 당시 송광사에서 회광승찬 스님, 현호 스님, 법정 스님과 故 이종익 교수(동국대), 심재룡 교수(서울대), 김지견 교수(강원대) 등 당대의 선지식과 불교학자들이 뜻을 모았다.

초대 원장을 지낸 법정 스님(길상사 회주)이 <보조사상> 1집 간행사에서 밝히듯이 “오늘날 보조사상이 편협한 종교계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정신 문화의 보편사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그리고 깊게 수용되고 있음”을 화두로 삼고 학술활동에 매진한다.

2004년부터 연구원장을 맡고있다. 현재는 법산스님(동국대)이 보조사상연구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정기학술세미나와 월례발표회로 나뉜다. 정기학술세미나가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면, 월례발표회는 신진학자 발굴과 주제별 심화토론에 중점을 둔다. 학술활동은 매년 2월과 8월 학회지 <보조사상>에 모아진다. <보조사상>은 교계 몇 안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연구원의 권위와 명성을 잇고 있다.

회원은 년 4만원을 부담하는 일반회원과 년 6만원을 부담하는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회원은 <보조사상>과 <구산논집>이 발송받을 수 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문도 문장 착좌식

선찰대본산 범어사 동산문도 나옹당 능가 큰스님의 문장 착좌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일 시 : 불기 2552(2008)년 1월 31일(음 12. 24) 오후 1시
◆장 소 : 선찰대본산 범어사 대웅전 앞
◆주 관 : 동산문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일 주 문



원주불교대학원 입학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1월 19일 구룡사 심검당에서 제1기 원주불교대학원 52명의 입학법회를 봉행했다.



행복한 지역사회 세미나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동준 스님은 1월 30일 오전 10시 송파구민회관 2층 소강당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385-1300

대전불교 신년하례법회



대전불교 신년하례법회가 1월 12일 대전 둔산오페라웨딩홀에서 봉행됐다.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이 주최하고 신행단체협의회(회장 이진옥)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치러졌다. 불자 방송인 진정자 아나운서의 사회로 우수 신행단체 및 개인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 및 포교원장상, 백제불교회관 관장상등 공로패가 수여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법륜종 신년 하례식 및 종정 탄공대종사 고희 법회



법륜종(총무원장 대일)은 1월 19일 인천 뉴코아 컨벤싱홀에서 사부대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신년 하례식 및 종정 탄공대종사 고희 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대일 스님은 "올 한해 제2의 창종을 한다는 마음으로 종도들이 힘을 합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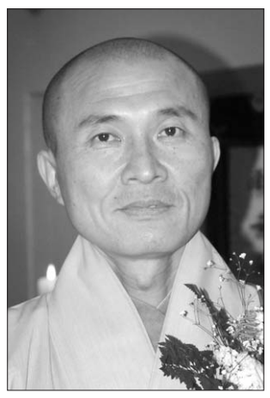
동화사 신도회 신년교례법회



대구 동화사 신도회(회장 김석순)가 1월 20일 대구 웨딩 알리앙스 5층에서 본말사 동화사 신도회, 대구경북 불교지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 불자들 모두가 수행정진해 나가는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깨달음 방향 바로 잡아 줄 수 있을 것"

'간화선' 개정판 발간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



2005년 발간돼 간화선 수행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책자 <간화선>의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이번 <간화선> 개정판은 초판의 중국 조사 선어록 인용문을 한국 선사들의 어록으로 교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 <간화선> 책자를 영역(英譯)하는 과정에서, 한국 간화선의 깊이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인용문을 한국 선사들의 글과 어록으로 교체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초판 <간화선>에 한국 선사의 어록이 거의 실리지 않았던데 비해 이번에는 40여 개가 실려, 전체 인용문의 30% 정도를 차지하게 됐다. 인용문은 진각혜심 스님의 <진각국사어 록>, 나옹혜근 스님의 <나옹어록>, 청허휴정 스님의 <선교 석>과 <선가귀감> <청허집>, 태고보우 스님의 <태고어록>, 편양언기 스님의 <선교원류심검설>, 백운경한 스님의 <백운어록>, 보조지눌 스님의 <절요사기> 등에서 발췌했다.

현종 스님은 "중국에 비해 한국 선사들의 선어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애초 계획보다 인용문 교체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며 "개정판 발행을 위해 전국 수좌스님들이 지난 1년간 수차례 편집회의를 열었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대체 인용문의 성격에 대한 토의를 거쳐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 발간에 이어 <간화선> 영역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자문위원단 구성을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현종 스님은 "<간화선>이 간화선 수행에 대한 '교과서'"라며 "<간화선>은 깨달음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해서 잘못된 깨달음 방향이나 방법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화선>은 2005년 발간된 후 10쇄(刷)에 걸쳐 총 3만8000부가 판매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여수령 기자**

서예가 김선기씨 서전 개최



옥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서예가 김선기(사진)씨가 1월 21일 옥천도서관 전시실에서 세 번째 서전(書展) '연주없는 붓가락'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기도 한 김씨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전시회에서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독학으로 서예를 공부한 김씨는 옥천군민대상을 수상하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시, 이집트 카이로 미술관 초대전, 고뇌하는 한국 서예가 100인의 모습전 등을 개최했으며 현재 국립한밭대 평생교육원 서예 지도교수로 재직중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선각종 국태민안 기원 영산대재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월 20일 '화순 도원사 창건 1주년 기념법회 및 국태민안 기원 및 국운융창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도원사 아외법단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선각종 종정 영담정업 대종사와 총무원장 정암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나눔 불교음악회



강릉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우)는 1월 22일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08 희망나눔 불교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과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내외를 비롯해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릉불교사암연합회는 이날 강릉시와 지역 복지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여수령 기자**

"효과적인 협력 통해 교류의 장 열고파"

방한한 인도 라다크 상가세나 스님



"암베드카르의 영향으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가르치며 이끌어 줄 스승과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월 18일 홍법사에서 만난 상가세나(Sangahasena) 스님은 카스트 제도로 비천한 삶을 살며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지 못했던 인도의 불가촉천민에게 빛의 등불처럼 다가온 부처님의 말씀은 인도 전역을 거쳐 퍼져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세나 스님은 인도 라다크에서 마하보디 명상센터(Mahabodhi International Meditation Centre)를 운영하며 병원, 학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통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봉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한국을 방문한 상가세나 스님은 "인도 라다크는 문화 및 생활이 티벳과 비슷해 뿌리 깊은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여서 많은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라다크의 불교를 소개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불교를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상가세나 스님은 "한국의 아름다운 숲과 그 속에 자리한 사찰들, 그리고 근면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83-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총화종 유지재단 출범 선포식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1월 19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유지재단 출범 선포식 및 남정 스님 법문집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김장실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김재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삼귀의례, 남정 스님 행장소개, 종정 동광 스님 법어, 격려사, 축사, 법문집 봉정식, 축하연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익법인을 설립해 종단이 재단법인화 됐음을 선포하게 됨도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불교계 지도자들과 종단 종도들의 격려와 지지 때문"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중생구제의 일선에 서서 전법과 홍포에 힘을 쏟는데 회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관음종 신년하례 법회 및 각 원장 임명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월 18일 묘각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중진스님을 비롯해 200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한 종정 남천 죽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종단의 각 원 원장이 새롭게 임명됨에 따라 사부대중은 물론 온 국민이 반목과 대립을 지양하고,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본받으며 화합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원융종 충남종무원장 취임법회



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1월 17일 홍성 용도사에서 충남종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성관 총무원장 스님은 "올 한해 원융종은 종도 화합과 교육 불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과 수행 체계를 정비해 사부대중들이 창종 정신을 되새기며 승풍을 진작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이전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간하는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과 문예지 <유심>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빌딩 639호로 이전했다.(02)739-578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최종석(금강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이평래(충남대 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100명) · 주간반(50명) ·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 1일 ~ 2월 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월 2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무진장스님, 이평래교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교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 2), 노자(1 · 2), 중국고전(1 · 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 · 2), 삼국유사(1)	임채우(연세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최청자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요가삼밀학과(2년) [지도자과정]	·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요가자기진단법, 요가운동처방법, 삼밀수인법, 삼밀무드라법, 삼밀만트라법, 만다라작법, 관정법, 밀교명상법 등	안지용 교수, 허일범 교수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산: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15일 ~ 3월 4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요가삼밀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개강일시 한문학과 : 3월 6일 (목), 다도학과 : 3월 4일 (화), 불교미술학과 : 3월 4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3월 4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 5일 (수), 요가삼밀학과 : 3월 16일 (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봉은사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도 수 20만 명에 매년 새 신자만 3000여 명이 방문하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처음 봉은사를 찾은 불자가 '신도'로 남을 것인가, 한 번 스쳐가는 인연에 머무를 것인가는 '서비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봉은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만도 400여 명이 넘다 보니, 이들이 새 신도를 어떻게 맞고 응대하느냐는 봉은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비단 봉은사뿐만 아니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 사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종무원이 불친절하다"거나 "사찰에서 불쾌한 경우를 당해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항의성 글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봉은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신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첫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종일 내린 눈이 봉은사를 포근히 덮은 1월 22일, 보우당에 사중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 종무원,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모였다. '함박웃음과 단정한 자세를 위한 봉은사 사부대중 친절교육'을 위해서다. 참가 인원이 많다 보니 교육은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친절서비스교육 전문업체 수이미지업의 김지숙 강사가 강의를 맡아 감성 친절 서비스의 필요성과 서비스 마인드 함양, 스마일 파워 익히기, 올바른 전화예절 및 친절한 전화응대 등을 설명했다.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은사의 여러 일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변합니다. 좋은 생각,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은 자신의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의 '기본'으로 손꼽히는 미소 짓는 법을 배워본다. 마음과 달리 무뚝뚝하거나 화난 듯 보이는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두 명씩 짝을 지어 눈썹과 눈동자, 볼 근육, 입 근육을 움직여 본다. 굳어 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평소 근엄하던 스님도, 남 앞에서 웃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도, '마음만 친절하면 되지 표정이 뭐 중요하냐'던 중년의 봉사자도 얼굴 가득 연꽃 같은 미소를 그린다. 마음과 표정을 바꾸었다면 이번엔 '말 하는 법'을 바꾸는 차례.

"화법의 기본은 1, 2, 3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1분 이내에 먼저 말을 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두 번 들어주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 번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의 마음도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모두가 '봉은사의 주인'이란 인식 갖고 신도에 감동 주는 종무 서비스 이뤄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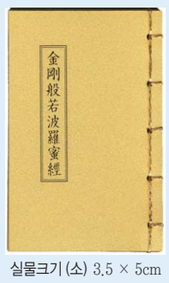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배워볼 친절 서비스는 전화응대.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전해야 하는 전화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벨이 수차례 울려도 받지 않거나 퉁명스러운 말투, 이 부서 저 부서로 돌려지는 전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끊어져버리는 전화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날 전화응대 교육에서는 처음 전화를 받을 때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전화를 끊을 때 예절까지 꼼꼼히 배웠다. 봉은사에는 하루 백여 통이 넘는 불사와 법회 문의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이를 응대하는 봉사자와 종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 장옥남(56, 법명 금강심) 재무차장은 "평소 전화응대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그동안 신도들로부터 불친절 사례를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불친절해서라기보다 신도들을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스님과 신도임원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신도 모두가 '봉은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봉은사 변화의 중심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봉은사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종무원과 신도회 임원 · 봉사자들이 이름표를 착용하도록 해 민원 제기가 쉽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 종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자 한 사람의 미소가 봉은사를, 더 나아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다. 봉은사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미소가 전국 산사로 이어질 날을 기대해본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품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인터넷·영상 발달 '전법의 길' 넓혀

불교콘텐츠 영상전법 활용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도 선 불교 등 콘텐츠 활용해야

오늘날 불교는 세계적 전법에 있어 큰 이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터넷통신과 영상매체의 일대 혁신으로 인해 전법의 길은 더 넓어졌다. 예를 들어 미국 명문대학 버클리 출신으로 현지에서 수계를 한 후 장장 여섯 해 동안 묵언수행을 마친 헝스이 스님처럼 포드캐스트 등으로 국제영상법문을 펴고 먼 나라의 온라인 신도들과 동시간대 일문일답까지 하여 '매킨토시스님'이란 별명을 지닌 분도 있다. '자비가 곧 나의 종교며 가슴이 곧 나의 절'이라 한 달라이 라마의 말씀처럼 굳이 절이나 포교원이 없고 여기저기 오갈 노자 한 푼 없어도 뜻만 바로 세운다면 언제 어디 누구에게든 불법을 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젠 거룩한 믿음을 전파한답시고 대대손손 별 탈 없이 지내는 남의 땅에 시궁쥐떼처럼 기어들어 현지 고유의 정신세계와 전통문화에 대한 무차별적 교란과 파괴를 일삼는 제국주의의 첨병을 닮은 농간질은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 또 눈물 없이 차마 볼 수 없는 비장한 유서를 써두고 순교의 톱뉴스를 향해 석유 등잔 앞의 불나방마냥 퍼덕대는 촌극이나, 힘든 나라의 이웃들에게 변변찮은 옷가지나 먹을 것 따위를 내흔들며 그들의 정신세계를 파먹으려드는 기생충과 같은 추태 역시 온 지구촌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따름이다.

참으로 바른 믿음이라면 현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기존의 믿음과 생존방식이 더욱 풍요로워지며, 염치를 알고 상호 배려하는 참된 인간애가 가일층 성숙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펼치고자 하는 믿음의 실체가 바르고 순수하건데, 그 전파방식도 바르고 떳떳한 대도무문이라야 할 터, 과거 식민지 개척의 낭인 패거리를 닮은 파렴치하고 간교한 비밀공작일 수 없다.

다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홈페이지, 동영상 등을 활용한 여러 종교단체들은 일부 시대착오적 야만성과 광신적 정신착란의 작태를 제외하고 대체로 올바르게 '믿음의 공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정 종교의 원시적 독과점형태가 공개시장경쟁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는바, 이는 곧 신앙소비자들이 사이버와 영상물에 뜬 종교백화점의 시식 코너에 들러 직접 맛을 본 다음에 최종선택을 하는 격이다. 시대적 추세가 이러한즉, 두 눈을 질끈 감겨두고 뇌수를 세척한 뒤 제멋대로 '처방된 믿음'을 주입하던 오만방자한 미션의 호시절은 다 지나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아쉬운 건 이처럼 양호한 전법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발상지자 성장발판인 동양이 서양에 비해 오히려 늘 몇 박자가 뒤쳐진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오한 선불교전통 등 방대한 불교 콘텐츠를 영상전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적 비교우위와 경제적 실익을 둘 다 어이없이 놓치고 있다. 그런대로 일본불교는 전세대용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여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지로 약진을 하고, 중국과 타이완은 탄탄한 화교사회를 기반으로 느긋하게 영상전법을 한다. 그리고 베트남불교는 프랑스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불교는 영국 등을 주요 사이버전법기지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 우리가 자칫 고루하고 폐쇄적으로 여기기 쉬운 티베트불교도 각종 인터넷매체에 불교법문, 임상심리학 세미나, 영화, 퓨전 록 콘서트 등을 띄우며 대단히 입체적인 전법 행보를 한다.

최근 예일대 학보는 티베트 승려이자 작가며 저명한 영화제작자인 종그살 켄체 린포체가 동 법대의 레빈슨 홀에서 1월 25일 저녁 7시 불교와 영화에 대해 특별법문을 펼칠 것이라 보도했다. 그는 1961년 부탄 출생으로 시킴왕립사원, 인도 라지푸르의 석가대학, 런던 동양 아프리카 연구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베르톨루치 감독이 '리틀 붓다'를 만들 때 자문역을 맡은 후 영화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월드컵 열풍에 휘말린 엄숙한 라마사원의 진풍경을 그려낸 '컵(1999)'과 '여로의 마술사(2003)'에서 그 자신이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을 겸했고, 다큐멘터리 '내 완벽한 스승님의 말씀(2003)'에는 주제 인물로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미국의 유명 불교출판사 샴발라에서 <불자가 되지못한 까닭>이란 저서를 펴내 오프라인 전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그는 버클리대학 불교회가 후원하는 국제전법단인 '붓다의 뜻'을 이끌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 불교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이번 '불교의 서구 전법과 영화'란 그의 특별법문의 주제가 충분히 시사를 하듯 이제 영상전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출처: 예일대 학보/ 편역:성휴 스님



불교문화재 올 5월 미국순회전시회

아프간의 탈레반은 우상말살을 명분으로 2001년 바미안의 거대 석조불상을 폭파한 이래, 수도 카불 소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세계 유산급 불교문화재 2500여 점을 파괴했다. 그 와중에 몇몇 큐레이터들이 필사적으로 일부를 반출, 암스테르담의 노이베케르크교회에서 1월 8일부터 유럽 순회전시회를 개시했다.

간다라 예술품이 주류인 이 문화재들은 네덜란드를 시발로 유럽 전역에 소개된 후, 5월부터 17개월 간 미국순회 전시한다. 출처 : 코미토

'쿵푸 성지 소림사' 보완개정 출판

<쿵푸의 성지 소림사>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총 31권이 발간된 쿵푸전문지의 미수록 자료와 1949년까지 발간된 50여 종의 전통국술 전문지를 대거 보완개정, 1월 3일 캐세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됐다.

소림사 총림은 1923년 만주군벌 서요우산의 약탈방화로 40일간 9할 이상이 소실, 1966년 문화혁명 때 재차 파괴됐으나 70년대 세계적인 쿵푸 붐에 힘입어 대 복원불사의 재정기반을 완전히 굳혔다. 출처 : 신화통신

美 시방사 불교단기집중코스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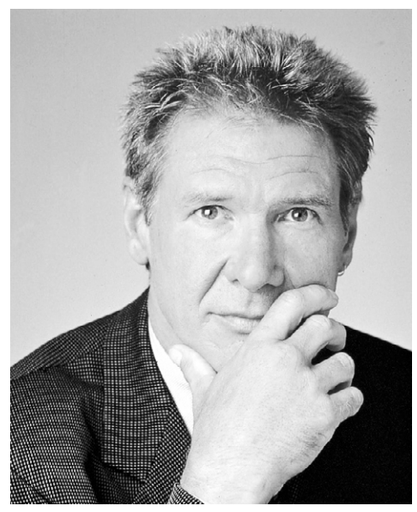
미국 샌디에이고 시방사에서는 2008년도 캘리포니아주 대전법활동의 일환으로 1월 13일부터 불교단기집중코스를 개설했다. 팔정도를 시작으로 연기론, 업보, 불교윤리학, 불교심리학과 참선 등을 총망라한 이 강좌는 3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실시되며 강의와 교재는 모두 무상 제공된다. 출처: ABN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따분한 왕따에서 세계최고 갑부 배우로

원드스★타 불심도스★타

해리슨 포드 ❶



살아가면서 스치는 여러 사람들, 부딪치는 온갖 일들 중에서도 특히 서로 더욱 끌어당기는 인연의 끈이 있다. 해리슨 포드와 지난 80,90년대 황금기를 누린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사이도 그래 보인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영화사이트는 금년 5월에 출시될 '인디아나 존스 4: 수정 해골왕국'을 2008년 개봉예정 영화 중 최고기대작으로 선정했다. 이 시리즈는 정말 우연 닮은 필연에 의해 맨 처음 스케치가 됐다.

할리우드의 천재이자 뭇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악동단짝인 조지 루커스와 스티븐 스필버그는 70년대 말 스타워즈의 최초 개봉에 즈음하여 하와이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그들은 60년대 후반부터 내리 천하무적으로 설쳐대는 '007' 시리즈에 이르자 그만 울화통이 터졌다. 그래서 그보다 '겁나게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어 제임스 본드를 한방에 날려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짜고짜 주인공의 작명부터 시작했다.

루커스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에스키모 썰매 개인 알래스칸 맬러뮤트의 이름인 '인디아나'에 '스미스'를 덧붙였으나 스필버그가 '존스'로 하자고 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생겨났다.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초고성능 컴퓨터 두뇌가 척척 알아서 해낸 건데, 다만 주역의 선정이 골치였다. 담담한 고고학자의 풍모에 더하여 침착하고 기지에 넘치는 탐험가의 캐릭터를 두루 갖춘 데다, 묵직하고 진한 남자 냄새도 좀 풍겨야 할 텐데 하며 내내 고민하던 조지 루커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그렇지! 할리우드의 대 법사 격인 그는 이내 불교도반인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한다.

이를 시작으로 7년 만에 다시금 그 후줄근한 펠트 모자를 둘러쓰고 나타난 해리슨 포드는 본디 꽤 무뚝뚝한 데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고교 때도 집에 틀어박혀 톱과 대패로 목공일을 즐기는 외톨이자 아무런 종교도 없었다. 그의 부모도 좀 별났던지 일가친척 대대로 믿어온 가톨릭엔 사뭇 냉담했으나 민주당엔 꽤나 열성이었다.

그래서 해리슨 포드는 간혹 누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물으면 민주당이라고 썰렁한 농담이나 내뱉곤 했다. 그래저래 그는 남학생들한테선 답답한 쪼다라고 집단 왕따를 당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선 따분한 얼간이로 놀림거리가 됐다. 급기야 짓궂은 학생들이 만든 '장래에 가장 성공하지 못할 녀석'이란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하는 수모마저 겪었던 그는 이제 전 세계의 현역배우 중 최고 갑부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해리슨 포드, 그는 글쎄 어떤 도반일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하고싶은 두마디가 무엇인가

A horrible monastery allowed the monks just two words every ten year. After first ten years of practice, a monk reported to his master who asked in return,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Bed‥hard‥" said the monk. "I see," replied the head monk. Ten years later, the monk returned to the head monk's office. "It has been ten more years," said the head monk. "What are the two words you would like to speak?" "Food‥messy‥" said the monk. "I see," replied the head monk. Yet another ten years passed and the monk once again met with the head monk who asked, "What are your two words now, after these ten years?" "I‥quit!" said the monk. "Well, I can see why," the head monk clicked his tongue, "All you ever do is complain." Curling under the wooden floor, an old cat mewed, "Boring! What have they been doing for the past sixty years together? – while I have caught more than sixty rats for them every year."



수도자에게 십년마다 딱 두 마디만 하게하는 무시무시한 도장이 있었다. 한 수도자가 처음십년과정을 마쳤다고 말하자 도사가 물었다. "하고픈 두 마디가 뭣인고?" "잠자리‥딱딱."

"아, 그래?" 다시 십년이 지나 도사가 그에게 물었다. "하고픈 두 마디가 뭣인고?" "먹을거리‥엉망." "음, 알겠네." 그리고 또 십년이 흘러 도사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하고픈 두마디가 뭣인고?" "나‥떠나겠소." 도사가 끌끌 혀를 찼다. "알만해. 자네가 내내 하는 일이란 불평뿐이로군." 그러자 마루 밑에 웅크린 늙은 고양이가 야옹했다. "아웅, 지겨워. 저 두 사람 합쳐서 지난 육십 년 동안 한 일이 뭐야? 난 해마다 쥐라도 육십 마리 넘게 잡아줬는데."

번안:성휴 스님/그림:이태수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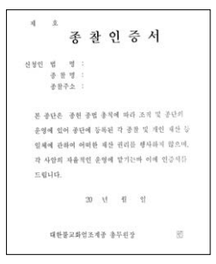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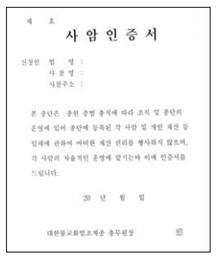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자·광·스·님·의·원·각·경·이·야·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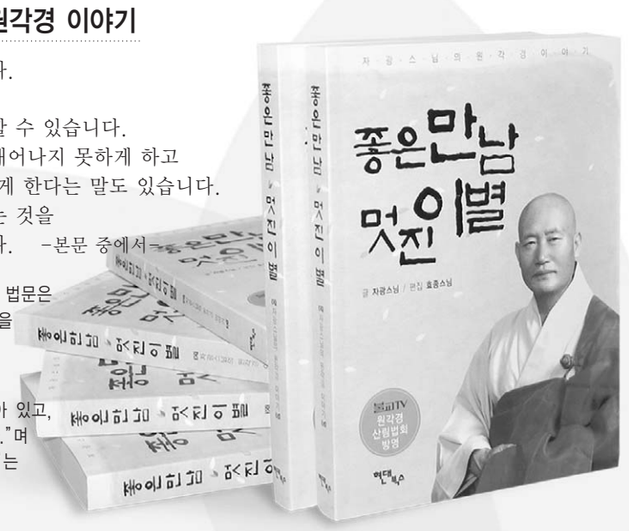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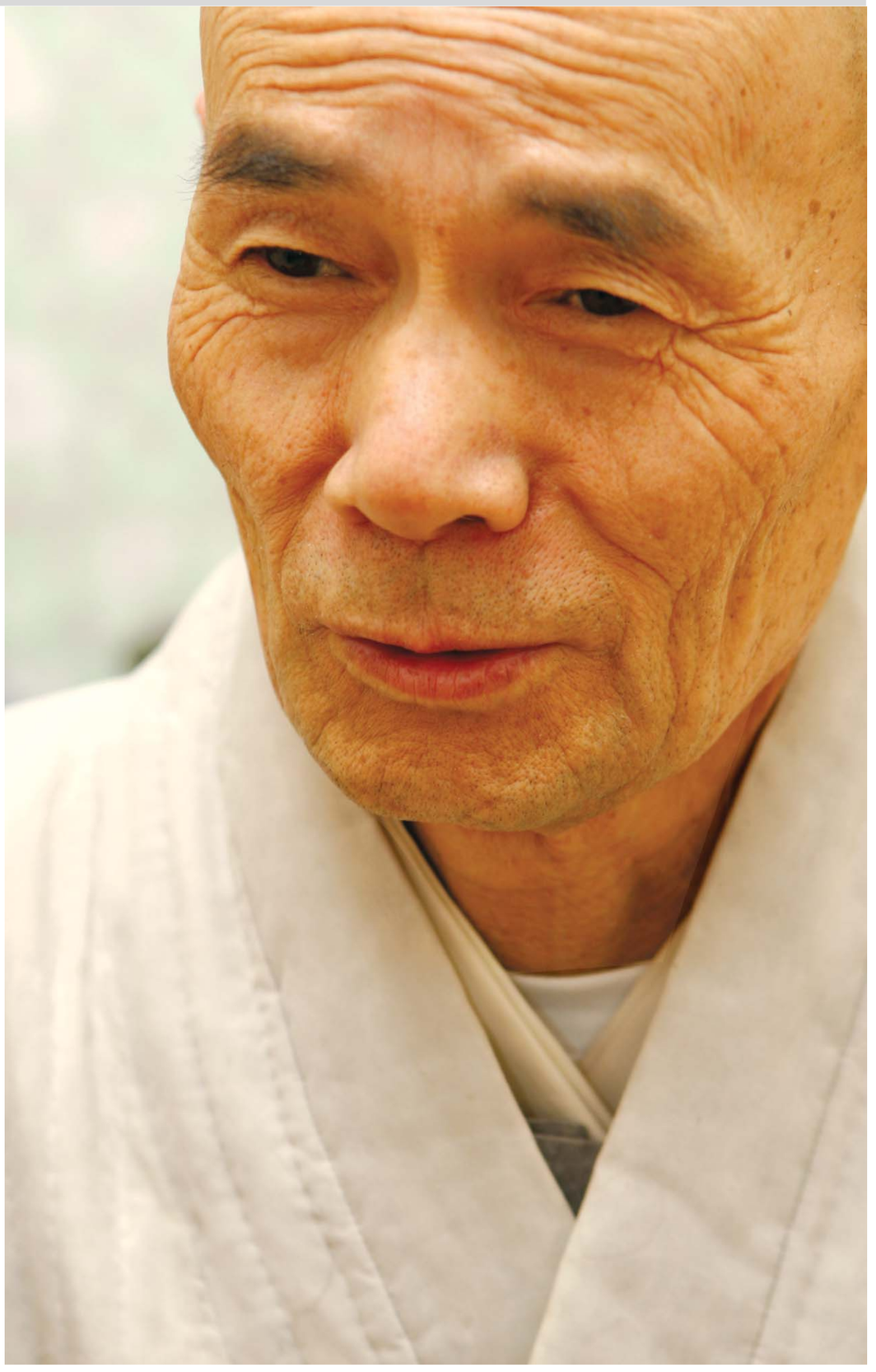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연대복수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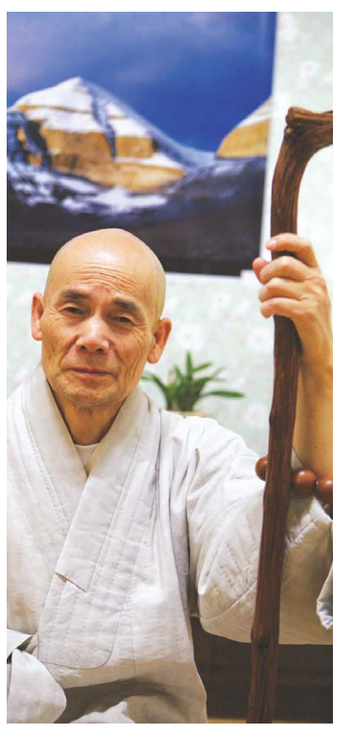
선지식을 찾아서

우송 스님 (덕승총림 유나)

“소소한 일상 속에 삼귀의가 들어 있지요”



우송 스님은 춘성 스님 법문을 듣고 수덕사 정혜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용주사 강원에서 관응 스님 모시고 서장을 비롯하여 대승기신론 등을 공부하였다. 동화사에서 향곡 스님, 청계사에서 금오 스님, 망월사에서 춘성 스님, 동화사에서 서옹 스님, 범어사에서 설봉 스님과 동산 스님,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수덕사 정혜사에서 10년 동안 선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덕숭총림 유나로 계신다.



“눈 뜰 때가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다. 땅도 하늘도 새로 열리는 때이다. 새날 새 아침에 새로 얻은 몸이요, 새로 얻은 땅이요 하늘이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다. 새로 태어난 내가 새로 얻은 몸과 새로 얻은 태양으로 모든 이를 안아주자. 뜨겁게 사랑해주자.”

우송 스님은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덕담 한마디를 들려주셨다. 벅찬 기쁨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우송 스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메시지이다. 평생을 선수행으로 일관해 오신 우송 스님의 동체대비심을 느낄 수 있다.

“사람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있어요. 내가 땅이요, 물이요, 불이요, 바람입니다. 저 툭 터진 하늘을 우리는 원 없이 누리고 있으며, 어머니 품같이 든든한 땅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지의 품처럼 안아주고 키워주는 삶을 산다면 내가 대지처럼 든든해집니다. 내가 물처럼 유연하고 만조의 바다처럼 마음이 넓다면 내 뜻도 원대해지고 부드러워져요. 지수화풍이 자비의 관음보살이요 지혜의 문수보살이요, 행원의 보현보살입니다. 태산준령을 누가 봅니까? 산을 깨달으면 저 산이 바로 문수보살이요 보현보살인데, 그 보살이 바로 나요 자신입니다. 내가 땅이요, 물이요, 바람이요 불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수화풍 사대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니 끝없이 보살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행이 복 짓는 행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송 스님은 통째로 우주를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것이 화두요, 바로 ‘이 뭣고’라고 한다. 사람들은 참선수행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우송 스님은 ‘공부가 안된다고 할 때가 사실은 되고 있는 것이며 다 그만한 인연이 있어 공부를 하는 것이니,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였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쉬지 않고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우송 스님은 11살 때인가 뒷산에 올라갔는데 무심코 햇살 아래 서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밟았다. 그림자를 밟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 후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참으로 아득하고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두렵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송 스님은 아마도 전생의 인연으로 출가한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만공 스님은 ‘몸은 티끌세상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높고 높아 묘하게 있는 것을 담기 위함이다. 마음은 망령된 생각을 대상으로 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윽하고 그윽하여 접촉하면 깨달음이 있다(신비진취 탁탁묘존 심비정연 명명촉각(身非塵聚 卓卓妙存 心非情緣 冥冥觸覺)’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하며, 몸을 읽어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몸을 읽는다는 생각 없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가령 살생을 하면 심장이 충격을 받아요. 이것은 심장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 심장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심장이 훈훈해집니다. 이것이 귀의달마요 귀의불입니다. 위장 역시나 과식을 하지 않고 고기 등을 함부로 먹지 않고서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먹어주면 그것이 위장의 법을 따라 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한다고 힘들어 합니다. 간이 좋아하도록 술을 절제한다면 그것도 귀의승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삼보의 생활’임을 우송 스님은 강조하였다. 우송 스님은 수덕사 대웅전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몸으로 자비를 체득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비심이 커짐을 느낄 수 있으며, 자비가 넘치면 상대가 없어집니다. 설령 미운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을 무엇으로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비는 수행자의 양식입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시대이건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었다. 우송 스님은 자작시 <크로버>를 읽어주시면서 연약한 크로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크고 작은 온갖 꽃들이 지나가고 없는 오뉴월에/천 송이 만 송이 기립하여 꽃을 피워 박수치며 웃어주니/발밑에 나직한 크로버야! 향기가 오히려 꽃보다 크구나./한 번 꽃을 피우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변함이 없다가/꽃을 지울 때도 꼿꼿이 서서 자세하나 헝클이지 않는구나./…큰 나무 휘어지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다 도로 서서 잘도 견디네./훌륭하다 크로버야, 작아도 크고 약해도 강하구나,/너답다 크로버야, 너는 너대로 사는 법을 아는구나.’

내가 곧 ‘지수화풍’ 임을 자각하며 살아야 헛되이 망상으로 보내는 시간도 삶의 일부 일상 속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삼보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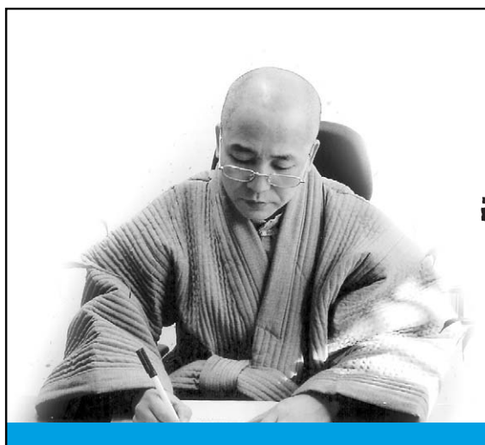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닌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우송 스님은 앞만 바라보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포하고 있는 자기의 가치를 터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기만 하는 크로버조차도 자신의 방식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데, 집에서 회사에서 날마다 어떤 기쁨을 주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 볼 일이다.

“만공스님은 ‘하나하나가 완성이고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고 한발 한발이 대작불사’라고 했습니다. 원 없이 저 바다를 누리고 저 푸른 하늘을 누리고 사는데 왜 허전해 합니까? 피가 뚝뚝 흐르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진짜배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보고 듣는 주인공을 찾는 참선을 해야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멀리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고 지는 그 모든 것에 천상천하의 절대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방청소 하고 설거지 하는 그 속에 삼귀의가 들어있다는 스님의 말씀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진리와 법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헛되이 보내는 시간도 내 삶의 일부요, 망상 피우면서 사는 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 행위와 생각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다.

스님의 법문은 들꽃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잔잔하게 흘러 사람의 마음에 향기를 주고 감동을 주었다. 잊고 있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우송 스님이 한없이 크고 위대한 스승으로 다가왔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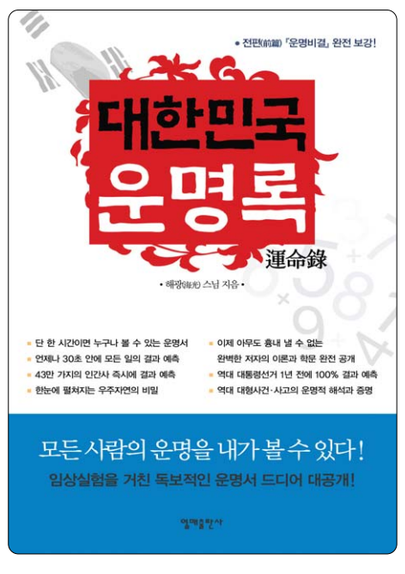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데스크 초대석

혜거 스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근대 한국선불교의 중흥조는 경허 스님이라는데 이론은 없다. 현대 교학의 중흥조로는 단연 탄허 스님(1913~1983)이 꼽힌다. 탄허 스님은 현재 강원(승가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물론 주요경전에 현토를 달아 한글화 하는데 초석을 다졌다. 탄허 스님의 역경작업은 조선조 초기 이후 끊어졌던 맥을 다시 이은 것이며 '한글세대'로 변화하는 현대화 속에서 경전 공부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탄허 스님은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다.
27세(1939)에 오대산에서 '화엄산림법회'를 열어 한암 스님의 증명 아래 중강을 맡으면서 역경불사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던 탄허 스님. 당시 <신화엄경합론>을 현토 한 이후 입적에 들 때까지 역경과 강의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탄허 스님은 15종의 경전을 번역하여 74책을 간행했는데 그 원고지의 분량이 10만장에 이른다. 속가에서 유학의 이치를 꿰뚫고 한암 스님과 몇 차례의 서신 교류 후 입산 출가한 것으로 잘 알려진 탄허 스님은 선교의 길을 원융 시키고 유학과 도학의 이치를 통섭했던 근대불교사의 우뚝한 봉우리다.
올해는 탄허 스님이 입적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평생 저술(역경)과 강의로 수행의 길을 걸으며 '교육불사'를 강조했던 탄허 스님의 유훈이 실현될 요람이 건립된다.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혜거)과 오대산 월정사, 서울 금강선원이 '탄허기념박물관'을 건립한다. 금강선원 불사추진위원회가 주축으로 건립하는 '탄허기념박물관' 기공식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건립부지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전조계종교육원장 무비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공성진 국회의원, 맹정주 강남구청장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탄허기념박물관' 건립불사를 이끌고 있는 혜거(慧炬, 금강선원장) 스님을 만났다.

"탄허 스님 '교육불사' 유훈 실현할 것"

박물관·교육관 갖춘 탄허기념박물관 건립 불사 앞장

"20년간 선·교 교육 매진…세상 위해 회향하는 삶 실천"



–우선, 탄허기념박물관의 설립동기와 그간의 경과가 궁금합니다.

큰스님(탄허 스님)께서는 늘 교육 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큰스님께서도 직접 후학들을 위해 경전을 번역하고 원근을 분문하고 강의를 다니셨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큰스님의 유훈을 실현해야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우리 금강선원 신도들에게도 전달됐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민법련화)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된 뒤부터 일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금강선원의 새 보금자리와 큰스님의 유훈을 실현할 기념박물관 부지(1만 710㎡, 5200평)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념박물관은 대지 2400㎡(800평)에 건평 1485㎡(450평) 규모로 지어져 내부는 박물관과 법당, 교육관, 강의실, 강사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명칭이 '탄허기념박물관'관인데 어떤 의미인지요.

이름 그대로 기념사업도 하고 박물관의 기능도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박물관의 기능으로는 큰스님께서 역경하신 15종 74책의 저서와 140점의 서예작품, 큰스님이 짓고 쓰신 비문의 탁본, 법문테이프 등 유품들이 전시됩니다. 또 큰스님께서 아끼시던 고서 4000여권도 소장됩니다. 기념사업은 큰스님의 유훈을 받드는 실질적인 불사가 될 것입니다. 불전연구자의 양성과 강좌를 개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현재 강원에서 강의 되는 과목들을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한어경전 연구자와 남방경전 연구자를 양성해 종내에는 그 두 길이 하나로 원융하여 시대를 앞서는 불교사상의 틀을 형성하는 전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유학에 해박하신 학자들의 강좌도 열어 불교의 경전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교양강좌도 다채롭게 마련할 것입니다.

–유학과 관련된 강좌를 계획하시는 게 이채롭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오는 교학의 바탕은 중국의 한자 중심이니까요. 언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상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유교나 도교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특히 선사들의 어록을 읽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글화 된 경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대세라 해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원전이 필수입니다. 원전의 이해 없이 연구가 있을 수 없고, 한자로 불교경전의 연구를 위해서 유학과 도학의 사상을 섭렵해야 합니다. 한어에 대한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상고사에를 비롯한 역사 문화의 대계를 파악할 때 불교경전과 불교문화 역사 등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금강선원이 문을 연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그간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요?

선과 교를 교육시키는데 매진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금강선원에서 강좌를 듣고 간 불자가 27만 여명이라면 믿겠습니까? 매년 1만 5000여명이 강좌를 듣습니다. 들은 사람이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들이 또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렇게 순환되어 온 20년 동안 <금강경> <원각경> <선요> 등 많은 경전을 강의 했습니다. 어린이에서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선을 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가동해오고 있고 '한문반'은 이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금강선원은 한 달 중에 강의나 법회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선원은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공양주 보살이 상주한 적이 없습니다. 선원의 모든 일을 신도들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스님의 기념박물관 불사 역시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내가 중국에 공부하러 간 사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정도입니다.

–스님께서 '육바라밀' 강좌를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보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육바라밀은 보살의 실천덕목입니다. 물론 단일 경전이 아니라 강좌 테마로는 독특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각종 경전에서 보살의 원력과 실천행 등을 뽑아서 정리해보니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중심정신이 보살이란 개념인데 우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의 체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보살운동은 다름이 아니라 보살의 서원과 원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도 보살의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인격자가 되기를 발원하고 최고의 인격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겁니다. 보살운동을 위해 조만간 책도 한 권 출간됩니다. 우선은 보살사상과 행(行)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살의 전거들, 즉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의 의미와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할 것이고 다음으로 불교 역사 속에는 어떤 보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보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의 형성도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육바라밀 강좌는 보살운동의 초석인 셈입니다.

–내년이면 스님께서 출가하신지 50년이 됩니다. 감회가어떠신지요?

사실 지난 20년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오면서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시절에 스스로 다진 것을 이 세상을 위해 회향하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50년이라는 시간도 결국은 한순간인데 돌아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금강선원에서 나의 강의를 듣고 간 27만 여명이라는 많은 불자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강의는 계속되고 또 새로운 인연이 더 많이 이어져 보다 밝은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바로 내 삶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1월 15일 봉행된 탄허기념박물관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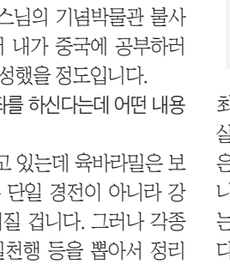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 외 촛 불 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36-0160 / H · P 011-269-3356
E-mail: byoon47@yahoo.co.kr 농협 108-12-248677(예금주 : 박병윤)

교리로 철저히 '무장' 돼야 한국불교 세계화 가능



나의 삶 나의 불교학

오형근 교수



오형근 교수는 1932년 출생해 유식학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 現 동국대 명예교수 겸 대승불교연구원 원장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설립 주역이기도 한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 등 한중불교 교류에 앞장서왔다.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유진 스님(동국대), 수산 스님, 묘주 스님, 김사업 박사, 김치온 박사 등 다수가 논문지도를 받고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18세 되던 해. 6.25 전쟁 때다. 산중 사찰로 피란을 갔다. 그 인연으로 나는 법성(法星)이라는 이름을 얻어 불가에 귀의했다. 절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 출가자라면 누구나 포교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교가 아닌 의식에 치중한 당시 스님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큰스님 한분을 두고 이리저리 모시는 행태는 옳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법사가 돼 불법을 널리 알리겠노라고. 하지만 교리를 모르고는 수행할 수 없어 나는 강원을 주로 다니며 공부했다.

출가자였던 나는 동국대 수학 시절 비구·대처 싸움을 피해 승복 아닌 양복을 입고 다녔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속퇴하게 됐지만 내 원은 변함이 없었다. 그 원은 대학원 전공으로 이어졌고 <아뢰야식 연구>를 주제로 국내 최초 유식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는 박사, 교수 시절을 지나 희수(喜壽: 77살)가 된 지금도 연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제자들에게 나는 곧잘 전공과 꿈을 묻는다. 전공이 뭐냐 물었을 때 우물쭈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대학원 와서도 우왕좌왕한다면 학자가 못된다. 학자라면 자기가 걸을 길을 알아야 한다. 또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각오를 세운 것은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개론>을 통해서다. 이 책을 읽으니 그 체계적인 구성과 내용들은 내 불교지식의 편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듯 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불교가 있나' 하는 환희에 가득 찼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 달달 외웠다. 그렇게 책을 통해 그리던 분을 나는 3학년이 돼서야 강의를 통해 만났다. 김동화 박사를 보고 나는 바로 이 분을 스승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

박사과정 때다. 은사인 故 김동화 박사 옆에서 원고 교정 등을 도우며 공부했다. 김 박사를 모신 내 정성을 두고 주위에서는 나를 김동화 박사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 "'불교학 개론' 달달 외우며 '환희'
> 바닥까지 훑는 완전한 공부 풍토 필요"

하지만 생계가 어려웠다. 당시 교법사 제도가 처음 생긴 터라 잠시 교법사를 해야겠다고 김동화 박사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했다. 그런 나를 김동화 박사는 극구 만류했다. 그동안 의식주 해결하고 돌아와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학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된다. 배고플 때는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고 하라." 그래서 나는 다른 아르바이트 없이 오로지 공부만 했다. 그런 내게 김 박사는 <유식학> 대강을 배려했고, 다음 학기 바로 정식 강사가 될 수 있었다.

故 황성기 박사 작고 후 <구사학> 강의도 맡게 됐다. 소승불교를 집성한 것이 <구사론>이다. 공부를 해보니 경전은 경전대로 진리를 머금고 있지만 논전은 시대에 맞춰 그 함의된 뜻을 재해석한 것이었다. 경전이 원리라면 그 원리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논전이다. 경전마다 설법의 핵심은 마음이었다. 마음을 닦으려면 이론을 알아야 제대로 닦을 수 있다. 마음을 닦기 위한 마음의 설계도가 바로 유식이다. 선을 마음 수행이라 한다면 유식은 선수행을 위한 안내서다.

은사의 대를 이어 유식학을 더 크게 발전시키자는 생각에 밤잠 안자며 논문도 쓸 만큼 썼다. 그렇게 모인 논문은 발간된 논문집으로만 세권이고, 출간 준비 중인 것이 한권 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구사와 유식을 공부하다 보니 이미 원효 대사가 통째로 정리해 뒀다는 사실이다. 원효 대사는 <유가사지론> 등을 인용해 선사상을 총정리 했다. 내가 중국 '현장학회'에서도 발표했지만 원효의 선은 육조 혜능의 선보다 20년이 앞선다. 교리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조계종이 보우·지눌을 둔 논쟁 속에 중국 선종의 맥을 이었다고 하나, 나는 한국의 선은 원효의 선이라고 주장한다. 선맥을 바로 세워야 민족자긍심이 찾아진다. 또 한국불교가 세계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교리로 무장돼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식이 어렵고, 원효가 어렵다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문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저인망식으로 바닥까지 훑어야 완전한 공부가 된다. 하지만 연구 풍토는 이것 저것 부분적으로 필요부분만 따다 보니 결국 공부가 어렵다는 말이 그치질 않는다. 젊은 시절 나는 원효의 번뇌론이 정리된 <이장>을 번역했다. 글자를 푸는 것에만 집착했던 나는 글로는 풀었을지언정 그 뜻을 전부 풀지는 못했다. 읽는 이마다 난해하다 했다. 번역한 내가 봐도 어려웠다. 진정한 번역은 철저히 공부해서 내가 이해하고 남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마경>에 "부처님은 언제나 같은 말로 설법하지만 중생들은 근기마다 달리 이해한다"(불이일언연설법佛以一言演說法 중생수류각득해衆生隨類各得解)했다. 제대로 된 공부는 이래야 한다. 예전에는 논문을 어렵게 썼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쉽게 써졌다. 자기 자신부터 바로 알아야 쉬운 글, 대중적인 글이 나온다.

반야는 마음의 진여(眞如)다. 피안에 이르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법보시다. 절 짓는 건축불사보다 보다 많은 이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최고공덕이며, 이것이 보살이다. 소승은 자리행을 통해 성문연각에 이르지만, 대승보살은 이타행을 한다. 이타행을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 이타행을 모르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연기는 다른 말로 공존과 공생이다.

유식은 업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불공업과 대중과 함께 짓는 공업으로 나눈다. 공업이 악이면 악한 세상이고, 선이면 좋은 세상이다. 공업을 선하게 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타행·보살행이다.

정년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반야심경>을 연구한다. 처음 <여성불교>에 1년반 연재하며 정리하다보니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나왔다. 그래서 <속장경>에 있는 반야경을 연구했다. 지금은 용수보살의 <대반야경>에서 채집된 <반야심경>을 정리하는 중이다. 한평생 학자로 살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학문의 현묘함이다. 책상에 앉아 있을수록 궁리할 것이 생기고, 글자를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온다. 이제 내게 남은 바램이 있다면 <반야심경> 정통 해설서를 남기고 싶다. 계속해서 원효의 저술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불교학개론>을 쓰고 싶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2008학년도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서울, 부산]

불교대학 최초 명상학과 개설 / 대학원 과정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개설 / 법사과정(3년제)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50% 장학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집과정
● 대학 과정(서울·부산)
◇입문과정(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불교학과 (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명상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대학원 과정(서울·부산)
◇불교학과(서울·부산) : 야간 00명 [주 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서울·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주 2회 출석]
● 법사 과정(서울·부산)
◇법사과정(서울·부산) : 주·야간 00명 [3년제, 주 2회 출석]

강의시간 ●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 불자 및 직장인 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 불교 교양 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학과 졸업자, 상담심리과정 이수자
● 법사과정 : 불교전법활동을 원하는자. 포교원,사찰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3월 3일
● 입문·대학·대학원 전형 : 서류 전형

입학식일시 ● 부산대원불교대학 : 2월 23일(토) 오후2시 대원불교대학2층 큰법당
● 서울대원불교대학 : 2월 24일(일) 오후2시 다보빌딩 3층 다보사 큰법당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카드 결제 및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학과목 소개
● 대학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개론. 인도불교사. 불교의식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부파불교의 이해. 불교경전 강독. 유식사상. 중국불교사상. 정토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한국불교사상.
◇명상학과 : 불교명상학의 이해. 종교명상학의 이해. 선의이론. 명상교수법 명상학연구. 간화선의 이해. 위빠사나수행의 이론과 이해. 인도불교명상의 이론과 이해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불교와 심리. 상담의 실제. 상담심리학의 기초. 집단상담의 실제. 성격심리학. 불교학개론. 초기불교의 이해. 반야사상. 불교와 마음치료. 불경과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실습. 심리평가. 유식사상. 화엄사상
● 대학원과정
◇불교학과 : 초기불전강독. 중관학연구. 부파불교연구. 정토사상연구. 초기불교연구. 유식학연구. 대승불전강독, 화엄사상연구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상담면접 및 실습 집단상담실습.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인지치료및 이해. 청소년상담및 실습
● 법사과정
◇불공의식. 장례의식. 사찰습의. 설법연구. 설법이론. 설법실수 사찰경영론. 신도관리론. 종무행정론 외

교수소개
[불교.명상학과 및 법사과정]
◇혜 거 스 님 : 금강선원장
◇정 엄 스 님 : 동경대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송석구 교수 : 전 동국대 총장. 철학박사
◇김충렬 교수 : 고려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원장
◇조성택 교수 : 고려대 철학과교수
◇윤원철 교수 : 서울대 종교학과교수
◇허경구 교수 : 인도바라나시힌두어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김사업 교수 : 일본국립경도대학교 박사과정수료
◇미 산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지 장 스 님 : 대원정사주지. 초의차명상원장
◇김용정 교수 : 동국대명예교수. 철학박사
◇권기종 교수 : 동국대명예교수
◇김항배 교수 : 동국대 철학과교수
◇장휘옥 교수 : 일본동경대학교인도철학과 석.박사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대학원석.박사과정졸업
◇김재성 교수 : 일본동경대학대학원 석사과정졸업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전현수교수 : 전현수신경정신과원장
◇심지은교수 :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김은희교수 :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권경희교수 :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교육 전공. 상담전문가
◇황수경교수 : 미국위스콘신대학원 사회복지학과정수료
◇최진승교수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문명혜교수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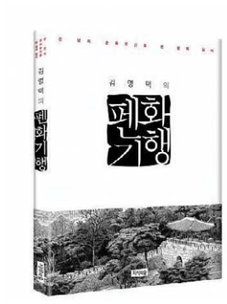
특전
◇법사과정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 합격자에 한하여 법사수료증을 수여
◇불교전문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부여
◇명상전문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문의
◇서 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전화 02)707-1072, 706-1571
◇부 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전화 051)583-7811

Daewon never sleeps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대학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우리 문화유산 60여점 '펜화'로



새벽녘, 종이 스치는 철필소리는 사경 소리 같아

김영택의 펜화기행
김영택 지음
지식의 숲 펴냄|1만5000원

조급증에 길들여진 요즈음, 보름동안 50만 번의 선을 그으며 한 장의 펜화를 완성시키는 이가 있다. 펜화가 김영택 화백이다. 김 화백은 국내 미술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인 펜화를 개척해 지난 15년간 열정을 쏟아 왔다. 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탄생한 펜화는 우리 전통건축물이 가진 그윽한 품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펜화의 소재를 찾아 전국을 돌며 만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글들 또한 그림을 보는 재미를 한결 북돋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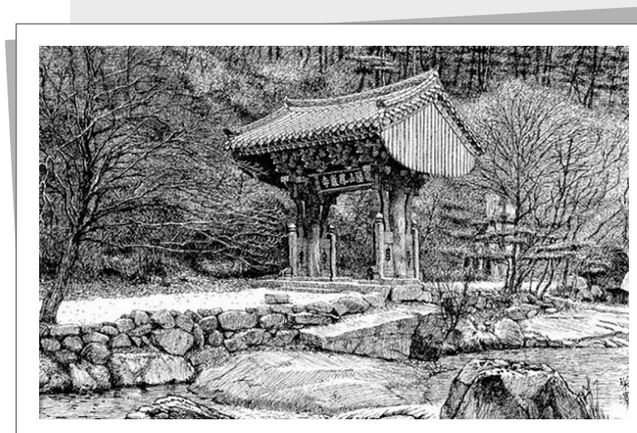
김 화백은 그동안 정성들여 화판에 옮겼던 펜화 60여 점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건물의 기와와 기둥과 석축, 나무줄기와 잎사귀 모양, 그리고 빛의 각도에 따른 명암과 음영까지 섬세하게 잡아낸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작가가 들인 땀방울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선다.

김영택 화백은 "수 만장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스케치해야 할 때면 펜을 들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 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막막함 때문에 때로는 하루 종일 그렸는데도 흰 종이의 십분의 일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다고 작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어 김 화백은 "새벽녘 잡념이 끊긴 무아의 상태에서 종이를 스치며 나는 철필의 소리는 마치 불경을 사경하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린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문화재를 화제(畵題)의 대상으로 이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다함없는 애정을 넘어 다시 문화재를 보는 상당한 안목까지 승화시킨 작가의 집념은 책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복원한 봉화 청암정의 팔작지붕이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김 화백은 마음속으로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김 화백은 최근 일반에 개방된 북악산 숙정문 성벽에 고증과 어긋나는 가로 총안(銃眼)이 들어선 것을 개탄하며 그림에서나마 바로잡겠다는 의욕을 보여줬다. 문화재를 대하는 그의 애정과 안목이 드러난 대목이다.

통도사 대광명전을 가리고 선 목련 두 그루를 그림에서 빼



문경 봉암사 일주문 전경

버리거나 충북 영동 강선대의 일본식 석축과 쇠 난간을 우리식 석축과 목조 난간으로 고쳐 그린 것, 그리고 관람객들의 발길에 닳아서 흐릿해진 경복궁 근정문 계단 답도의 봉황 문양을 선명하게 '복원'한 것 역시 못 말릴 애정의 소산이다. 그림의 주인공 격인 건축문화재는 물론 주변의 풀 한 포기와 돌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살뜰히 챙겨 넣은 그림들은 작가의 문화재 사랑이 이 땅과 자연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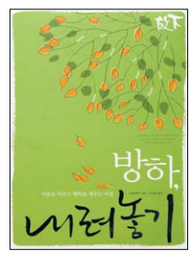
이 책은 담양 소쇄원, 고창 선운사, 영천 만불사 등 우리 땅의 아름다운 유적들을 '산, 물, 흙, 사람, 하늘'이라는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 엮었다. 그림 속 문화유산의 유래와 의미를 감성적인 문체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가히 새로운 형식의 문화유산 답사기라 할 만하다.

'펜화'라는 독특한 장르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 수 있는 지식 기행문의 형식을 갖춰 기존 여행 에세이와는 차별화시켰다. 특히 문화유산의 실제 사진과 정교한 펜화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펜화의 세심함에 작품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정교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문화를 개척한 저자의 삶도 글 곳곳에 묻어나 새록새록 감동을 더해준다.

김주일 기자

'내려놓기' 활용하는 방법 소개

방하, 내려놓기
위동회이 지음|김락준 옮김
베이직북스 펴냄|9,500원



"옛날 중국에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몸에 희한한 물건들을 잔뜩 매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길을 가다 부러진 나뭇가지건 조각난 기왓장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주워서 몸에 매달았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무얼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시나요?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갖다버리구려.' 그는 '뭐가 쓸모 있고, 뭐가 쓸모없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라며 결국 물건들을 내려놓지 않았다."

비록 중국의 옛 이야기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매단다. 새 것을 채우기 위해선 통이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쓸데 없는 물건들을 잔뜩 짊어진 채 바쁘게 살아가며 그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상처받는다.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지도 않는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내려놓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 처럼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내려놓기와 마음 비우기를 실천하는 데 불교의 선(禪)이 유용하다며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 나왔다. 중국의 육조단경(六祖壇經) 연구가 이자 심리상담사인 위동회이(于東輝)의 <방하, 내려놓기>다.

책에는 중국 선의 진수인 육조단경에 근거, 마음을 비우고 행복을 채우는 비결을 '간파(看破)', '방하(放下)', '자재(自在)'의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고대 중국 철학의 진수인 <단경>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는 마음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김주일 기자

왕유가 남긴 시 308편 376수 국내 최초로 망라

왕유 시전집 왕유 지음/박삼수 역주|현암사 펴냄|3만8000원



새벽 독경에 숲속은 아직 밝지도 않고
반중 참선에 산속은 더욱 적막한데
불가의 도심(道心)이 목동에게까지 미치니
세속의 일일랑 나무꾼에게 물어본다.
(朝梵林未曙 夜禪山更寂 道心及牧童 世事問樵客)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불(詩佛)로 일컬어지는 왕유(王維)의 '남전산 석문정사'란 시 중간 대목이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왕유의 시들이 당시(唐詩) 모음집 등에 산발적으로 소개돼 왔다. 울산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박삼수 교수가 역주해 묶은 <왕유 시전집>은 왕유가 남긴 308편 376수를 모두 담았다. 국내 최초의 작업이다. 이미 신라시대부터 당시(唐詩)가 전해져 읽혔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저술이다. 시 전편을 제재와 내용에 따라 자연시 교유시 정치시 이념시 여성시 등으로 분류했고 풍부한 주석과 관련 고사와 논쟁 등을 첨언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박 교수는 20여 년 간 왕유시를 연구해 오면서 세계적인 왕유시연구의 권위자인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천 티에민(陣鐵民) 교수와 깊은 교분을 맺으며 연구에 힘을 받았다. 천 티에민 교수는 <왕유 시전집>의 추천사에서 "왕유의 시에도 누구 못지않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의 명구가 가득한데, 이를 제대로 번역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나는 이 최초의 완역 상주본인 <왕유 시전집>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면서 기꺼이 독자여러분께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연태 기자

역대 선지식인들이 남긴 글 모아

역주 치문경훈 일휴 우천 역주|정우서적 펴냄|3만원



<치문경훈>은 우리나라 전통강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재다. 중국의 역대 선지식들이 남긴 글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고려 말 태고 보우 선사가 들여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수행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경책(警策)에서 면학을 분발시키는 글, 선사들의 편지글, 각종 기록문, 발원문 등 모두 13가지 테마별로 편찬 된 수행의 기본텍스트다.

처음 편집한 영중 스님은 서문에서 "제목은 '치문경훈'이라 하였으니 폭넓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보고 깨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태고 보우 스님은 서문에서 "나라의 사람들이 보고 들어 수승한 인연을 맺어서 필경에는 위없는 정각을 이루게 할 것이니 이것이 '경훈'의 뜻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일휴 스님과 우천 이성운(정우서적 대표)씨는 <치문경훈>의 역주본을 내며 100여권의 참고자료를 망라했다. 오독의 염려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 유통본들의 오역을 바로잡기도 했다. 또 '호법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생애를 추적해 밝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5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10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미쉘 마틴	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거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않고 초극세사 방수원단 콜크中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콘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논슬립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거 해제를 맞아 만행길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벽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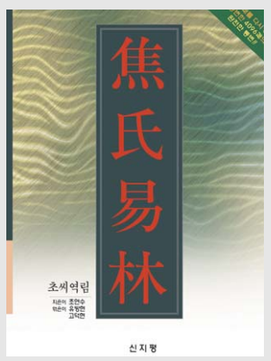
신비의 주역점서 『초씨역림』, 『초씨역림 384』 전2권 완간

매주 월요일 7시
'대동역학교육원'
031-447-3888

'전2권' 구매하신 분은 '대동역학교육원'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25,000원





정가 60,000원

'전2권' 구매하신 분은 '전통과학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전통과학아카데미
02-929-4646

『초씨역림 384』는 원전 『초씨역림』의 괘사 중에서 삼변법으로 점쳤을 때 나오는 64괘 384효를 수록하고 점사를 일일이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초씨역림 384』와 『초씨역림』을 같이 놓고 점쳐 보면 세상만사 길흉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씨역림』은 주역 64괘를 다시 통변 64괘 하여 4,096괘로 완전한 통변을 다한 유일한 비급이다.
『초씨역림』은 괘사 전체를 해독하지 않더라도 끝 구문만을 보면 길흉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도 쉽게 길흉을 점칠 수 있다.
『초씨역림』은 대정작괘법에 의하여 평생 사주를 연년세세로 계산하여 일생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초씨역림』에는 명리학이나 주역, 여타 학문으로는 나오지 않는 길흉이 정확하게 나와 세인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전국 유명 서점 절찬리에 판매중!'
출판사로 주문하시면 '전2권 60,000원'에 '택배비 본사부담' 배송!
◆도서출판 신지평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004-950578 김종현 / 전화 : 02)338-4168 / 팩스 : 02)6442-4168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불광출판사를 찾아서

'불광(佛光)'은 부처님의 대지혜 광명으로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비춰 광명화 하는 운동이다. 인간사회의 성공과 행복·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불광운동의 이상이며 궁극적 목적이다.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 운동〉 중***

'마음 조절' 문제 세련되게 기획해 책 만들것

서울 석촌호수 근처에는 불광사(회주 지홍)가 있다. 불교대학, 봉사활동, 유치원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도심 사찰이다. 하지만 '불광'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훨씬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는 아마도 '불광출판사'가 아닐까. 초대 불광사 주지 광덕 스님의 문서포교 대원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봤다.

불광출판사를 찾은 것은 1월 22일이다. 석촌호수를 지나 맑은 마음으로 불광출판사에 들어가자 10명의 직원들이 '일삼매경'에 빠져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월간 불광〉 400호 마감 때문이다. 1974년 11월 창간했으니 33년 4개월 동안 발간돼 온 것이다. 불광출판사에서 '불서와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이라는 기조 아래 단행출판물을 만들어내면서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만들어낸 〈월간 불광〉의 존재에서 벌써, 불광출판사의 저력이 느껴진다.

불광출판사는 불서출판계의 베테랑이다. 무비 스님의 〈금강경강의〉처럼 불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불서를 많이 보유한 출판사기도 하다(〈금강경강의〉는 22쇄를 찍어냈다).

"우리는 신행·수행 서적을 주로 출판해 왔어요. 즉 공부하는 불자, 책을 보는 불자들이 읽을 만한 출판물을 주로 내왔지요. 그것이 주효해 우리 책들이 불자들 가정에 꾸준히 보급된 것 같아요."

불광출판사 사기순 편집부장의 말이다. 사 부장의 말에서 유추해 보건데, 불광출판사의 힘은 '문서포교'의 기본을 잘 지켜 온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화두 놓고 염불하게〉나 〈위빠싸나〉 등은 각 수행법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읽히는 책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1974년 창간, 현재까지 230여종 책 펴내 일반인들에 읽히는 '말랑한 불서' 기획할 것"

사 부장은 1990년 불광출판사에 입사한, 출판사의 역사와 같은 인물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불교반 활동을 하면서 편집부장을 도맡아온 사 부장은 이제 출판계에서 누구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불서 전문출판인이다.

현재까지 불광출판사는 약 230여종의 책을 펴냈다. 얼핏 보면 그리 많은 종수가 아닌 듯 하지만 기존의 책을 증보판해 새롭게 찍어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수긍이 갈만하다.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불광에서는 2006년에 비해 초판 비중을 40%나 늘렸다. '어렵다, 어렵다'하는 불교출판계에서 신간을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보면 꾸준히 읽히는 책들만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펴냄으로써 불교서적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광출판사는 현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원래 〈월간 불광〉과 도서 편찬 사업을 함께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각각 팀을 만들어 전문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꾸준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독자의 범주를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읽히는 말랑말랑한 불서를 기획하고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작업 중인 〈월호스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참선(가제)〉이나 〈월간 불광〉에 연재됐던 용화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펴내는 책들이다. 불교를 담되 불교가 아닌 것처럼, 육아·교육·가정·직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인간의 '마음 조절' 문제를 세련되게 기획, 편집해서 책을 펴낸다는 것이 불광출판사의 계획이다.

변화의 물꼬는 터놓았지만 문제는 '인력'이다. 불교계의 열악한 출판 인력난 현실에는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불광출판사 역시도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좋은 인력들이 많이 유입돼 불서전문 출판인으로 커 나가야 하는데, 불심 깊고 능력 있는 이가 불교출판사에 몸담았다가도 금세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겠다는 또 다른 의지 표명이다. 불광출판사는 이름처럼 '불광'의 목표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구심점이 있는 출판사인데,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못 헤쳐나갈리 없다.

맑은 호수처럼 잔잔히, 그러나 그 호수 속 물고기들처럼 역동적으로 불교출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불광출판사에서 앞으로 나올 책들은 어떤 형태일까, 기대하며 문을 나섰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광출판사 대표 불서 BEST 20

불서와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봉화상선요어록	통광	1993	11	서장	종고 지음, 지상 역주	1998
2	금강경강의	무비	1994	12	신도포교지침서 상·하	이중표	1996
3	금강경	각묵 역해	2001	13	아함의 중도체계	성일	1991
4	무비스님의 가려 뽑은 명구 100선	무비	2007	1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정원규 옮김	2006
5	반야심경 강의	광덕	1980	15	위빠싸나 1·2	김열권 편저	1993
6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1989	16	육조단경	광덕 옮김	1975
7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1990	17	주역선해	지욱 지음, 박태섭 역주	2007
8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삿띠	김열권·이승훈 옮김	2007	18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서광	2003
9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광덕	1981	19	현대인의 정신건강	이동식	1989
10	생활 수행 이야기	법상	2001	20	화두 놓고 염불하게	김지수	2000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무문관(無門關)

오현 역해, 불교시대사, 2007

장영우(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친절한 설명, 공안 명백히 이해

나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전철로 출퇴근을 한다. 다행히 번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할 수 있는 데다 집이 전철 종점에 가까워 학교까지 편하게 앉아 간다. 전동차 안에서는 시선을 둘 데가 마땅찮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을 보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그러다가 잠깐 풋잠을 자는 것도 전철 출근의 장점이다.

요즘 전동차 안에선 신문이나 잡지, 또는 책을 보는 승객이 늘었다. 젊은이들은 DMB 등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전철 역에 쌓여 있는 무가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새까만 가죽 장정의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아예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는다. 그들이 읽는 책은 다름이 아니라 개신교 성경이다.



'사족'이란 코너 통해 본칙 보충 설명 깊은 의미 쉽게 파악…자주 읽을만 해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개신교의 성경처럼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불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불교에는 십만 팔천의 경전이 있다지만, 일반인이 늘 갖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읽기에는 분량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한글로 번역된 경전이 많이 나오긴 했어도 일반신도에게는 여전히 난해하다. 그러니 불교를 믿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작 불교의 교리나 규율, 생활규칙 같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때 틱낫한 스님의 책이 많이 읽혔다. 그리고 또 현각 스님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들은 자신의 수행에서 얻은 체험을 쉽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저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요컨대, 그들은 독자 대중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무문관(無門關)〉(오현 역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무문관〉은 원래 무문혜계(無門慧開) 화상이 48개의 본칙을 가려 뽑고 평창과 게송을 붙인 책인데, 무산오현 스님이 한글로 번역하고 알기 쉽게 '사족'을 붙여 간행하였다. 오현 스님의 책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사족'에 있다. 이제까지 번역된 〈벽암록〉이나 〈무문관〉과 달리 오현 스님은 본칙공안의 의미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있다. 가령, '동산삼근(洞山三斤)' 공안에서 '마삼근'의 의미를 "삼으로 만든 세 근짜리 가사를 입고 있는 그대야말로 바로 부처일세"라고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 좋은 보기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동산 스님은 "지금 내게 묻고 있는 네 자신에게 답이 있다. 굳이 부처의 본모습을 알고 싶다면 너 자신의 참모습을 보라"고 말한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듣고서야 우리는 이 공안의 뜻을 대략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책은 쉽게 이해되면서도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만약 개신교의 성경이 쉬운 말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현 스님의 〈무문관〉은 가까이 두고 자주 읽을 만한 양서라 생각한다.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 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2장 가욕(訶欲) ②

오욕은 자기 마음의 보배를 겁탈

고통부르는 악업 일으켜, 외부서 찾아온 도적처럼 여겨야

四訶味欲者 所謂若酸甘辛鹹淡等 種種飮食希膳美味 能令凡夫心生染著 起不善業 如一沙彌染著酪味 命終之後 生在酪中 受其蟲身 如是等種種因緣 知味過罪

4. 여기에서는 오욕 가운데 네 번째로 맛에 대한 욕구[味欲]를 꾸짖었다. 수행하는 사람은 색성향미촉인 오욕을 마주하게 되면 외부에서 찾아온 도적처럼 여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보배를 겁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히 멀리하여 탐착하지 않아야만 한다.

맛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즉 쓰고 시고 달고 맵고 짠맛과 그 바탕이 되는 싱거운 맛을 말한다.

음식의 갖가지 좋은 맛은 범부의 마음에 애착을 일으켜 악업을 짓게 한다. 세상사람들 가운데 누군들 음식을 탐애하여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살생을 하지 않겠는가.

가령 바다와 육지와 허공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생하여 자기의 입맛에 따라 먹기도 하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맛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맛에 대한 욕구의 해로움은 이와 같이 크다. 하늘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하늘의 이치를 손상하고, 불법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는데 대자비심을 끊는 길이 살생보다 큰 것은 없다.

옛날에 어떤 사미는 버터의 맛에 집착하더니 죽은 뒤에 버터속의 벌레가 되었다 한다. 수행자는 반드시 그 죄과를 알아서 욕구를 버려야만 한다.

五訶觸欲者 男女身分柔軟細滑 寒時體溫熱時體凉 及諸好觸 愚人無智 爲之沈沒 起障道業 如一角仙因觸欲故 遂失神通 爲淫女騎頸 如是等種種因緣 知觸過罪

5. 다섯 번째는 감촉에 대한 욕구를 꾸짖어야 한다. 다섯 욕구 가운데서 감촉[觸]의 욕구가 가장 사납고 해로워 생사의 근본이 된다.

경전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체중생은 모두가 색으로서 그의 올바른 성명으로 삼는다. [一切衆生 皆以色欲而正其性命]"

앞에서 열거한 색성향미 등 네 가지 욕구는 각각 한계가 있다. 색욕은 안계의 일부분에, 성욕은 이계의 일부분에, 향욕은 비계의 일부분에, 미욕은 설계의 일부분에 소속된다.

이러한 사근이 사진을 마주하면 각자마다 수용하는 한계가 다르다. 그러나 감촉에 대한 욕구만은 우리의 신체에 두루 퍼져있다.

감촉의 욕구는 남녀의 신체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데, 신체는 유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안마를 해주거나 갖가지 다른 오묘한 감촉을 일으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곳에 침몰하여 수행자의 도업을 장애한다.

앞에서 나왔던 일각선인은 감촉의 욕구 때문에 신통을 잃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말라고 악한 발원을 했다. 그 뒤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신통을 잃어버린 후 그 여인은 말처럼 부리면서 선인의 목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감촉에 대한 욕구의 과오와 죄업이 지극히 크고 위태롭다는 점이다. 이를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如上訶欲之法 出摩訶衍論中說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행자는 항상 조용한 물가나 숲속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수행자는 어느 날 밤, 한 마리 검은 거북이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밤은 깊고 인적은 고요해 달빛이 우주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 때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나 거북이의 머리를 씹으려 하자 머리가 바로 수축되었고, 다리를 씹으려 하자 다리를 감추어 버렸다. 여우는 거북이를 잡아먹으려다가 피로만 느꼈고, 거북에게는 털끝만큼도 손상을 주지 못했다. 그러자 여우는 거북이 잡아먹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수행인은 이로부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우는 외부 오진경계에, 거북은 수행인에, 머리와 사지는 우리의 내육근(內六根)에 비유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중생들은 무량겁 이래로 내육근이 항상 외육진을 집착하면서 그 마음을 한 처소로 수습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누생누겁토록 원한의 생사윤회를 만나면서 여우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만일 여우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거북이의 법을 배운다면 생사는 스스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復云 哀哉衆生 常爲五欲所惱 而猶求之不已

슬프다. 일체 육도중생이여, 항상 오진경계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거기에 미혹하여 살펴도 꿰뚫지 못하고 알면서도 타파하지 못한다. 중생들은 비단 오진경계를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싫증내지 않고 끝없이 추구한다.

이상에서는 오욕마군의 힘이 지극히 심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此五欲者 得之轉劇 如火益薪 其焰轉熾 五欲無樂 如狗嚙枯骨 五欲增諍 如鳥競肉 五欲燒人 如逆風執炬 五欲害人 如踐毒蛇 五欲無實 如夢所得 五欲不久 假借須臾 如擊石火 智者思之 亦如怨賊 世人愚惑 貪著五欲 至死不捨 後受無量苦惱

다음으로는 다섯 욕구가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이 오욕경계를 만나면 그 해로움이 더더욱 심해져 이는 마치 타는 불에 섶을 더하면 그 불꽃이 더욱 치성하는 것과 같다.

오욕은 즐거움이라고는 없다. 그것은 마치 개가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은데, 살이 없는 마른 뼈를 씹는 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중생들의 마음은 망상으로 전도되어 이와 같은 오욕의 경계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욕은 마치 새가 고기를 서로 먼저 뜯어먹으려고 경쟁하는 것과 같이 시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오욕이 사람을 뜨겁게 태우는 것은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횃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고, 오욕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독사를 밟는 것과 같고, 오욕이 실재함이 없는 것은 꿈속에서 얻은 경계와 같아서 오욕은 오래가지 못하고 임시로 잠깐 빌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색욕은 보고 지난 뒤엔 바로 소멸하며, 사랑스러운 성욕은 듣고 나면 사라지며, 사랑스러운 촉경은 항상 있지 않고 찰라 간에 없어진다.

오욕은 또 비유하면 전광석화와 같아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소멸한다. 이를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원수와 같이 여기는데, 세상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르고 허망하게 집착심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버리지 못해 한량없는 고뇌를 세세생생에 단절없이 받는다.

마땅이 알아야만 한다. 색욕은 뜨거운 쇳덩어리와 같아서 그것을 잡는 순간 몸이 타고, 소리는 독을 바른 북과 같아서 듣는 순간 반드시 죽게 되며, 냄새는 독룡의 기운과 같아서 맡는 즉시 병이 들며, 맛은 끓는 꿀맛과 같아서 맛보는 순간 살이 문드러지며, 감촉은 누워있는 사자와 같아서 가까이 하는 순간 물린다.

오욕의 해로움이 진실로 이와 같다. 수행자라면 그 오욕의 허물이 과연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라.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 ④

4) 견취견(見取見)

'견취견'은 앞에서 말했던 살가야견 · 변집견 · 사견 등 세 가지 그릇된 견해[惡見]를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모든 유정, 특히 외도들은 그들의 견해만이 그 어떤 종교나 사상적 견해보다 훌륭하다 여기고, 이를 가장 청정한 것이라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집착하는 견해만이 진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고 쓸모없는 견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일으킨 악견에 대해 강한 집착심을 일으키게 되며, 이를 따라 모든 사상적인 논쟁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견해에 굳은 신념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악견에만 집착심을 굳게 일으킨다는 의미로 이를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견취견등 다섯 악견 지적번뇌 속해 바른 정견얻으면 쉽게 끊을수 있어

5) 계금취견(戒禁취見)

계금취견은 잘못된 제도나 계율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집착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모든 유정들 가운데 특히 이단에 속하는 사설(邪說)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외도들은 그들만의 악견을 굳게 확립한 후 자신들의 견해만을 모든 사상의 극치로 여기면서 맹목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상을 실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사상방식에 따른 금지된 규율을 수립하고 이를 법도로 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굳게 얽어매고, 이것을 자신들의 수행방편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이를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악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악견을 오리사(五利使)라고도 부릅니다. 오리사는 주관적 지적번뇌이기 때문에 바른 정견을 얻으면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거한 근본번뇌를 본혹(本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근본번뇌가 모든 지말번뇌, 즉 수번뇌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근본번뇌가 일어나 활동하는 데는 심천(深淺)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대략 구분하면 구생혹(俱生惑)과 분별혹(分別惑)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8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임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화	오후4~7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마일운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재학생
불교의식(연구)	짓소리 전문반	수	오후1~3	김구해	졸업생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재학생

모집학과 및 정원(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범패실습 I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30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수	오후4~7	조인각	30

모집학과 및 정원(편입학)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약간 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 시 자 격

수료과정 : 승려 및 일반인,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과,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 · 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수료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면접 후 입학.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전 형 일 정 2008년 1월 2일 ~ 2008년 2월 15일 까지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 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를 품수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http://www.okchunbud.kr/

오늘의 禪語

④ 화두의 역할

깨달음의 문으로 인도하는 도구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길래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일까?

화두나 공안은 모두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참선수행의 한 과제입니다. 대부분 화두는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참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합리주의시대에 화두의 역할도 모르는 채 막연히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 고전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화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사량 분별심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방편

화두의 역할은 1차적으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사량 분별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도록 화두를 참구해서 모든 번뇌 망념과 분별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보는 지혜와 사리(事理)를 판단하는 지혜,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매우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사물은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존재, 영원하지 못한 존재(無我), 실체가 없는 공(空)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체는 모두 공하고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등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존재의 본질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상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해 하는 일 없이 평온한 마음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와 선에서 말하는 지혜의 효능입니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선승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자신의 저서 <간화결의론>에서 화두는 전제(全提)와 파병(破病)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제는 수시로 화두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나는 누구인가)하게 함으로써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파병은 일체 사량 분별심과 차별심, 환영(幻影) 등 참선 중에 오는 갖가지 선병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짓이나 상식 이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신을 당하고 체통을 잃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지혜보다는 욕심(貪)과 분노(瞋), 무지(痴, 어리석음)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덧없는 일,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감성적으로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지를 배격하고 현실의 사상(事象)을 직시하는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정(正)과 사(邪)를 판단하는 눈(혜안)을 길러 줍니다. 어리석음과 욕망을 버리고 무집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슬기를 줍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밝은 눈(明眼)을 갖게 해 줍니다.

자각종색(慈覺宗賾, 12세기?) 선사는 자신이 지은 글 <좌선의(坐禪儀)>(좌선하는 방법을 쓴 짧은 글)에서 "번뇌나 잡념이 일어나면 그 즉시 '번뇌'라는 사실을 인지(認知), 자각(自覺)하라"고 했습니다. 자각하면 번뇌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각이 잘 되지 않을 때, 끝없이 잡념이 일어날 때는 화두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 '간시궐'을 상기시켜서 번뇌 망상의 늪(苦海)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뇌의 실체는 결국 공망(空妄)한 것이므로 자각만 한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를 통하여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던 대혜 스님(大慧, 1088-1163)도 "무자화두는 모든 번뇌 망상과 삿된 생각을 타파하는 무기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화두만 들고 참구하면 모든 번뇌와 잡념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자화두만이 아니라, '간시궐'이나 '마삼근' '동산수상행' 등 여타 화두도 모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두는 진리가 아닙니다. 화두는 진리의 강으로 건너가는 배입니다.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처럼 여겨야 합니다. 절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생각,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 외엔 모두 다 번뇌로 규정합니다. 번뇌의 우두머리인 욕심(貪), 분노(瞋), 어리석음(痴, 無智)으로부터 근심, 걱정, 슬픔, 불안, 방황, 망설임, 미련 등에 이르기까지 고뇌하게 하는 것은 모두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거의 번뇌 아닌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화두 참구에서는 분별심, 분석적인 사고를 가장 큰 번뇌 망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행게시판

●**염불선 감사 수행=**법왕정사가 제4회 염불선 감사 수행을 진행한다. 부산 금정법당에서 2월 29일~3월 2일 열리는 염불선 감사 수행은 2박3일간 염불삼매 체험 집중 수련으로 이루어진다. 염불선 교육에 이어 행선 좌선 등이 번갈아 이어지며 매일 밤 청견 스님의 강의도 마련된다. 참여대상은 참선 호흡법 10회 이상, 7시간 염불선 감사수행 7회 이상, 3000배 용맹정진 3회 이상 동참한 수행자, 제1·2·3회 염불선 집중 감사수행 동참자이다. 자격조건에 미달한다면 특별사전교육을 받으면 동참이 가능하다. 수련 동참금은 5만원. 동참희망자는 반드시 사전예약해야 한다. 서울 군자법당(02-456-0035), 부산 금정법당(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053-743-0063).

●**제6기 불교상담사 강좌=**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dgucc.dongguk.ac.kr/%7Esoedu/index.html)이 제6기 불교상담사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불교상담사 강좌의 교육기간은 1년이다. 수강료는 학기당 22만원. 접수는 2월 1~29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 강좌를 수강하면 불교상담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02)2260-3728

●**법련사 정초 법회=**서울 법련사가 2월 20일 정초 방생 법회를 예산 수덕사와 천장암에서 개최한다. 선망부모와 조상을 위한 정초 영가 천도기도는 2월 18일 입재해, 24일 회향한다. 9일 입재하는 정초 신중기도는 15일까지 대웅보전에서 이어진다. (02)733-5322

●**법화사 방생법회=**서울 법화사가 2월 17일 오전 7시 정월 방생법회를 떠난다. 새해 첫 방생법회는 공주 영평사와 천안 광덕사, 각원사 일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동참금은 3만원. (02)833-2253

●**삼천사 입춘맞이 3일 기도 불공=**서울 삼천사가 입춘을 맞아 2월 2~4일 입춘맞이 3일 기도 불공을 봉행한다. 2일 오전 10시 입재해 매일 오전 7시 10시, 오후 8시에 세 차례 불공을 올린다. 입춘일인 4일 회향한다. (02)359-7766

●**대성사 입춘 정초법회=**서울 대성사가 1월 31일 오전 10시 입춘 정초기도를 입제한다. 2월 14일 오전 10시 회향 때까지 4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입춘기도를, 8일 오전 10시 정초기도를 봉행한다. (02)583-1475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9년간 염불정진으로 즉신성불

❹ 신라시대 노비 욱면

<삼국유사> 감통편에 일화로 소개
속진에 물든 남성의 불성 일깨워

신라 경덕왕(?~765) 때 강주(康州: 지금의 진주) 지방의 남자 신도 수십 명이 정성껏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고을의 경계에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萬日)을 기약하여 계(契:결사)를 만들었다. 이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욱면(郁面)이라 했다.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선 채 스님들을 따라 염불했다.

주인 귀진은 그녀가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미워해서 매일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룻밤 동안에 다 찧으라 했다. 욱면은 초저녁에 이를 다 찧어 놓고 절에 가서 염불했는데 밤낮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워 두고 손바닥을 뚫어 노끈에 꿴 뒤 말뚝에 메고는 합장하며 좌우로 흔들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 때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절의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 그녀에게 불당에 들어가 정진하도록 했다. 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욱면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 교외(郊外)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해골을 버리고 부처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蓮化臺)에 앉아 큰 광명을 발하면서 서서히 가버렸는데, 음악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삼국유사> '감통편(感通篇)'에 나오는 일화이다. <삼국유사>에는 고귀한 여왕으로부터 비구니, 노비까지 한 사회의 모든 여성 구성원들이 고루 등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깨달은 여성은 물론이요, 관세음보살의 응신(應身)으로서 속진에 물든 남성들의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주인공들로 등장한다. 위에서 욱면 낭자가 사람의 몸 그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한 장면은 가장 드라마틱한 여성 성불의 예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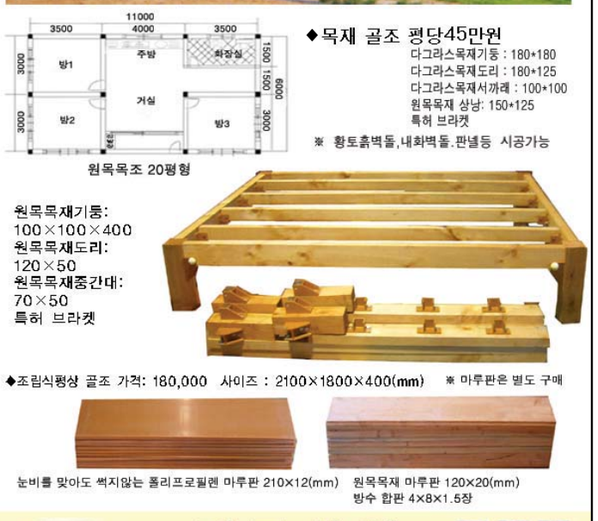
일연 스님은 이 일화를 소개한 뒤 <승전(僧傳)>을 근거로 욱면의 전생담을 소개하고 있다. 즉 관음보살의 현신이었던 팔진(八珍)의 무리 가운데 계(戒)를 얻지 못한 사람이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가, 불경을 지고 간 공덕으로 인해 사람으로 태어나 욱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쉬지 않고 염불을 거듭해서 9년 만에 집의 들보를 뚫고 떠나는 영험을 보였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강원도 건봉사에서 발진화상 등 31명의 스님이 염불정진을 통해서 '육신 그대로 하늘에 오른(肉身騰空)' 예가 있을 정도로 염불은 가장 각광받는 수행이었다. 원효, 의상 대사 등 많은 고승 대덕들이 정토수행의 실천자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일부 수행자 가운데는 염불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불법(佛法)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헛된 분별심이자 부처님의 방편 교설을 비방하는 큰 죄업이 아닐 수 없다.

염불의 역사는 부처님 재세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함경>에는 3념, 5념, 6념, 10념(十念) 등의 염법이 있다. 즉,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승(念僧), 염계, 염시(念施), 염천, 염휴식, 염안반, 염신, 염사(念死) 등의 수행법이다. 이것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며(여래 10호), 나무불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불법과 승단을 생각하는 삼염법 등으로 설해져 있다.

염불은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결합된 수승한 수행법임을 알아야 한다. 철오 선사는 "염불할 때는 다른 생각[別想]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정지[止:停止, 사마타]이다. 염불할 때는 모름지기 또렷또렷 분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조[觀:觀達, 위빠사나]이다"라고 하였다. 염불하는 한 생각[一念] 가운데 지관(止觀)이 함께 갖춰지는 것이지, 따로 지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止)는 선정(定)의 원인이며, 선정(定)은 지(止)의 결과이다. 또한 관(觀)은 지혜(慧)의 원인이며, 지혜(慧)는 관(觀)의 결과이다. 철오 선사는 "한 생각 일지 않으면서 또렷또렷 분명함이 바로 고요하면서 비춤[卽寂而照]이고, 또렷또렷 분명하면서 한 생각도 일지 않음이 바로 비추면서 고요함[卽寂而照]이다"라며, 염불의 수행원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불법 문중에는 한 법도 버릴 게 없음(佛事門中 不捨一法)을 명심하자.

김성우 객원기자

◆목재 골조 평당45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 180*180
다그라스목재도리 : 180*125
다그라스목재서까래 : 100*100
원목목재 상낭: 150*125
특허 브라켓
※ 황토흙벽돌,내회벽돌.판넬등 시공가능
원목목재기둥: 100×100×400
원목목재도리: 120×50
원목목재중간대: 70×50
특허 브라켓
◆조립식평상 골조 가격: 180,000 사이즈 : 2100×1800×400(mm) ※ 마루판은 별도 구매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폴리프로필렌 마루판 210×12(mm)
원목목재 마루판 120×20(mm) 방수 합판 4×8×1.5장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 :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011-743-5167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심명 99절의 한 소절, 한 소절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광명들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법융 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회상에서 가섭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마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선가귀감 2월 법회
일시 : 2월 3일(日) 오전 11시
장소 : 서울 도봉 선원
전화 : 02-3494-0122
GS주유소
도봉산 입구
도봉 선원
도봉산 갈비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한신아파트 단지
www.zenparadise.com

일본 체류 수행자 입방 안내
대상
비구, 비구니, 법사(남·녀), 포교사
조건
1 입방자는 학력, 연령제한없음
2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3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4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일본국 주소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일본 직통 휴대폰 001-81-090-3719-1571
전 화 001-81-0743-93-0843
팩 스 001-81-0743-93-0670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01-81-06-6712-1015, 1016
팩 스 001-81-06-6741-1755



‘자연주의와 소박미’는 친일적 시각
동·서양 해체로 민족문화 재구성해야

강사 : 임지현 교수(한양대 서양사 전공)
주최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단
일시 : 1월 14일
장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대회의실

상상의 지리 - 동양, 서양 그리고 한국

2008베이징올림픽 개막과 폐막공연은 중국 영화계 거장인 장예모(張藝謀)감독이 맡았다. 장 감독은 영화 ‘영웅’(2002)과 ‘황후화’(2006)를 통해 중국을 서방에 알렸다. 비평가들은 장 감독 작품을 서양인의 감각에 맞춰 오리엔탈리즘으로 완벽히 포장해 냈다고 평가한다.

서양인이 원하는 동양의 이미지로 재구성된 동양은 중국뿐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동양화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오늘날 국가이념과 민족성의 동향에 부합되는 사실성의 문제를 함의한다. 이런 점에서 서양 근현대사는 물론 동유럽사와 민족주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한국의 제반 문제를 푸는데 활용한 임지현 교수(한양대)의 강연은 우리에게 다른 역사적 자아 주체라는 해석 관점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든다.

임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동·서양 문화의 해체를 통해 민족문화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민족문화’라는 화두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지 그의 강의를 통해 들어보자.

민족예술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의 흔적의 편린들.
여기저기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민족문화라는 집합으로 묶어
‘민족문화’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문화의 특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거기에 맞지 않은 삶의 문화적 편린은 재구성 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 이야기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문화학과 한국학 또는 동아시아학을 연구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기서 ‘상상의 지리’란 에드워드 싸이드(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이미 말한 ‘동양을 동양화 하는 것의 표상’임을 밝힙니다.

동양(toyo)과 동아(toa)의 차이

독일 역사학자 라인하르트코젤렉(ReinhartKoselleck)은 2004년 독일역사학대회에서 ‘동양과 동아의 사용에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가’를 발표했습니다. 코젤렉은 “동양과 동아시아. 동아시아 공동체. 대동아공영권 등 발화자가 긍정적 뉘앙스의 이미지를 추구할 때는 ‘동아’를 쓰고, ‘동양’이란 말은 부정적 뉘앙스로 의미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리엔트를 처음 동양이라 번역한 곳은 일본입니다. 하지만 영어권과 불어권에서 사용되는 오리엔트 속에는 동아시아를 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내려보는 관점 말입니다. 반면 독일 오스트아지엔(Ostasien)에는 동아시아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본격적인 아시아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은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로 동아시아를 표현했을까요? 일본은 끊임없이 아시아를 벗어나 서양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변국인 조선과 중국을 연구하는 학문을 동양사 범주로 넣었습니다. 국사학 · 동양사 · 사학을 만들 때 일본사인 국사를 동양사에서 뺀 일본은 아시아적 오리엔트가 아닌 서양의 경로를 밟은 문명국가임을 저변에 깔고자 의도했던 것이죠. 여기서 조선과 중국은 서양의 동양이란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반면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 할 때는 동양이라 하지 않고 동아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더 이상 동양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서양과 유럽

우리가 쓰는 동양이나 동아라는 말이 실재적인 개념일까요. 저는 실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유럽’이란 말, ‘서양’이란 말은 항상 ‘동양’이란 말과 함께 짝지어졌을 때 의미가 형성됩니다. 실제 유럽이나 아시아란 말은 ‘에우로파(europe)’ ‘아시(asie)’라는 헤시오드의 <신통기>에 나온 여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기원을 더 깊게 어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 유럽이나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기보다, 역사적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구성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 · 서양의 치환

<동서양의 치환>(Displacing East and West)은 2006년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독 · 폴역사가회에서 발표된 주제입니다. 흥미롭게도 독일의 동양학은 폴란드 연구를 말하고, 폴란드의 서양학은 독일연구를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콘라드 아데나워(Adenauer Konrad)는 프랑스와의 접경지에 살면서 라인강을 건너 프로이센 영토에 올 때마다 “아~ 야만적인 아시아~”를 외쳤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문명적인 영향을 받은 라이난트에 살던 아데나워가 볼 때 라인강 동쪽의 독일 지역은 서양이 아닌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일본역사학

동아시아가 독자적 정신문화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서유럽의 역사문법에 따라 자신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국사책인 <일본사략>이 1878년 파리 국제박람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과 관련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서 본 모범적 모델에 따라 자기 고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최초의 <일본미술사>는 미국인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20년간 살면서 서양미술의 분류체계에 따라 일본 미술을 조각. 회화. 건축. 공예의 장르로 구분했습니다.

#한국역사학

김원룡 선생과 안휘준 선생이 공저한 <한국미술사> 서문을 봅시다. 한국미술의 특징을 ‘자연주의와 소박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미술사가의 평을 인용한 것인데요. 해방이후 일본에서 동양사를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은 일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어만 일본에서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근대 한국 미술사는 동경제국대 공과대학 조교수였던 세키노타다스(關野貞)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는 일본 미술사에 적용된 유럽적 모델에 따라 한국미술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세키노는 의도적으로 통일신라 미술을 고평가했고 조선시대 예술을 국가 · 지방 · 인민이 피폐한 퇴락한 예술시기로 저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신라 이래 쇠퇴한 한국 역사는 당연히 일본의 지배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됐습니다.

한국미술의 본질이라 통칭되는 자연주의를 조선백자의 미술적 가치로서 승화시킨 인물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입니다. 야나기는 “조선의 백자는 외양이 여성적일 뿐 아니라 편안함과 위안을 준다. 정이 넘치고 여성의 따뜻함과 나섬 없는 사려 깊음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백자라는 물질의 여성화를 넘어 조선과 조선인의 여성화로 규정됩니다. 통념적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가 ‘한’이 되어버린 지금. 야나기의 조선 애정이 오늘날 민족주에 끼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짓자면 오리엔탈리즘은 기본적으로 셀프오리엔탈리즘(Self-Orientalism)입니다. 이제는 구성주의적 시선. 탈식민주의적 시선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동아시아 역사가 제고 돼야 합니다.

글 · 사진=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hanmail.net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한달분)
20여종 제품 판매

판매처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대리점 운영하실분
(물품대 백만원으로 생활고 보장)

여름철 풍기 인견옷,
인견이불, 몸배, 난방 판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제품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

제 6회 유심작품상 발표
시-이가림, 시조-유자효, 평론-김종회

제6회 유심작품상 시부문에 이가림 시인의 '귀가, 내 가장 먼 여행 · 2'이 선정됐다. 또한 시조부문에는 유자효 방송기자클럽 회장의 '사랑노래'가, 평론부문에는 김종회 교수(경희대 국문과)의 <문학과 예술혼>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부문 수상자인 이가림 시인은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빙하기'가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4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의 대표적 중진시인 중 한사람이다. 이 시인은 <빙하기>(1973)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1981) <순간의 거울>(1995) <내 마음의 협궤열차>(2000) 등의 시집을 통해 서정성과 지성성, 사상성과 예술성의 균형과 조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가림 시인


유자효 시인


김종회 교수

이가림 서정 · 지성 · 사상 · 예술성의 균형과 조화가 성공적

유자효 우울과 적막, 고독과 허무 맛깔스럽게 형상화한 공로

김종회 통시적 문학사인 얼개 마련 비평문학 발전 디딤돌

심사위원인 최동호 교수(고려대)는 "이가림 시인이 인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각적 표현성으로 이끌어 올리는 솜씨를 통해 아름다운 감동과 여운을 던져줘 선정했다"며 "특히 이번 수상 작품은 매일 되풀이 되는 출퇴근 과정을 가장 먼 여행으로 상징화함으로써 나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과정인가를 날카롭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고 평했다.

시조부문 수상자인 유자효 시인은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입상되고 다시 <시조문학>에 천료돼 등단했다. 특히 유 시인은 첫 시집 <성수요일의 저녁>을 비롯해 <세한도>, 그리고 시조집 <데이트>와 <여행의 끝>을 통해 우울과 적막, 고독과 허무를 맛깔스럽게 형상화함으로써 개성 있는 서정시인의 면모를 보여줬다.

심사위원인 이근배 시인은 "사랑의 본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 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려는 시적 사유와 통찰력의 깊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며 "특히 이번 작품은 3 · 4 · 3 · 4 반복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조의 3장 6구 형식을 6행 2연 반복이라는 자유시적 구별배행 장구법으로 배치하며 많지 않은 시어 구조속에 사랑의 본성과 삶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담아낸 것은 현대 시조의 외연과 내포를 최대한 확장하고 심화한 업적으로 평가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평론부문 수상자인 김종회 교수는 1988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이래 소설비평을 중심으로 시비평과 문학사 연구를 펼쳐온 역량 있는 평론가로 꼽히고 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시대와 문학> <문학과 전환기의 시대정신> <문학의 숲과 나무> 등 비평집을 출간해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등을 수상하며 그 업적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심사위원회는 "김 교수는 최근 펴낸 평론집 <문학과 예술혼>을 통해 현대문학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작가 32명을 집중 조명하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추적해 정신사적 의미를 논리화 · 체계화 하려 노력한 공로가 크다"며 "김 교수의 이런 작업은 개별 작가와 작품론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면서 통시적인 면에서 문학사적인 얼개를 마련해 현대문학비평과 문학사를 풍성하게 하는데 디딤돌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8월 만해축전 기간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㉖생표고버섯 튀김



고대 그리스서 '신의 식품'이라 불려
정신 맑게 하고 구토 · 설사 멎게 해

표고버섯의 효능에 대해서는 달리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神)의 식품'이라 했고 중국에서는 불로장수(不老長壽) 식품이라 했을 만큼 그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마른 것이 생 표고버섯보다 맛과 향기, 영양가에 있어서 더욱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른 표고에 많은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므로 발육기의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더 없이 좋은 영양식품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마른 표고버섯이 모두 이처럼 풍부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고버섯에는 효모와 식물 스테롤인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햇볕의 자외선을 쬐면 모두 비타민 D로 변합니다. 하지만 전기 건조시킨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생 표고버섯을 사다가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입니다. 버섯을 말릴 때는 갓의 안쪽이 태양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표고버섯을 고를 때는 크기가 균일하고 갓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생표고버섯 튀김
재료 : 표고버섯, 소금, 풋고추, 후추, 설탕, 밀가루, 전분가루, 통깨, 튀김기름

만드는 법
① 생 표고버섯은 꼭지를 떼고 젖은 물수건으로 닦아둔다.
② 풋고추는 씨를 빼고 다져둔다
③ 생 표고버섯을 뒤집어놓고 소금, 후추, 소금을 섞어 버섯 위에 뿌려준다.
④ 전분과 밀가루를 4:6의 비율로 섞어 체에 두 세 번 내려준다.
⑤ 다진 풋고추를 넣고 튀김반죽을 한다. 반죽할 때는 차가운 물을 사용해야 튀김이 잘 튀겨진다.
⑥ 버섯에 튀김옷을 입혀 통째로 튀겨서 그릇에 담을 때 먹기 좋게 썰어준다.

전국 산하 산수가 수묵담채로 펼쳐
월정스님 선화전, 2월 1일~20일 서울 경찰청 1층 갤러리서 열려



20여년간 산수화와 달마도에 전념해 온 월정 스님(불광동 월정사 주지)의 전시회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찰청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월정 스님은 산수화를 비롯해 달마도, 관음도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전통 한국화를 고수하며 필력을 쌓아온 월정 스님이 붓을 들기 시작한 것은 출가전인 고교시절이다. 단지 그림이 좋아서 스승 없이 독학으로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수묵담채로 화판에 펼쳐지는 월정 스님의 그림에는 전국 산하의 산수가 많이 등장한다. 심산유곡은 물론, 새 등 동물도 그려진다. 이외에도 시원스럽게 쳐내려간 굵은 선의 달마도 와 정교한 관음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월정 스님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수가 그저 아름답고 좋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화폭에 담아왔다"며 "앞으로는 만행을 통해 접하는 전국의 절집 풍경을 그릴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010)3475-7388

김주일 기자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새단장

국악 가미한 한국적 스타일로 변신

2월 10일까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야단법석'은 음악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좌충우돌 벌여나가는 수행이야기를 신명나는 타악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다.

2007년 공연이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꽤하는 기존의 뮤지컬 스타일을 고수했다면, 2008년 공연은 좀 더 한국적인 스타일로 재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좀 더 깊은 우리 전통 소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큰스님 역에 판소리와 경기 민요 등 우리 소리를 전공한 배우들을 캐스팅되어 기존 뮤지컬배우들이 살릴 수 없었던 우리 가락을 보다 구성지게 풀어낼 것이라 기대된다.

대사 없이 음악과 노래로만 극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에서 음악이 지닌 비중은 높다. 머리를 깎은 배우들이 불교타악기인 운판, 법고, 목어, 범종 등을 두드리며 직접 연주를 하며 극을 이끌어간다.

또한 민족음악관현악단 오느름 김희경 대표가 작곡을 맡아 공연 내내 아름다운 가사와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2월 10일까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전석 3만원. (02)929-2183, www.yadan.co.kr **김주일 기자**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NAVER 다심마루
茶心마루 다심
원목 소나무 쟁반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처럼..


대(大) : 49cm X 27cm 사이즈 모습입니다.
위의 다기는 장식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연 그대로의 무늬결 소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쟁반 -


소나무 쟁반 한 세트 (3종)
* 규격 (Size)
소 : 39*22(cm)
중 : 44*24(cm)
대 : 49*27(cm)

판매가 ~~₩80,000~~ ₩50,000

소나무원목 다기쟁반은 소나무 통판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으로, 소나무의 은은한 무늬결과 소나무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기상이나 찻상으로 사용하시면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기있는 행주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항시 소나무의 무늬결이 살아납니다.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 (예금주:천소현)
▶농 협 177483-51-071977
www.dasimmaru.com
도매가 문의 : 080-999-1080
茶心마루 다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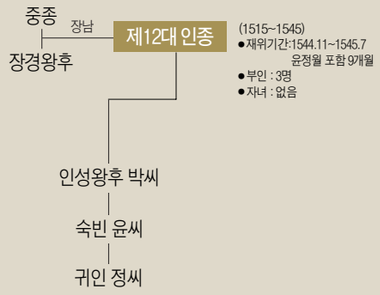
하늘이 내린 효자왕… 8개월의 짧은 治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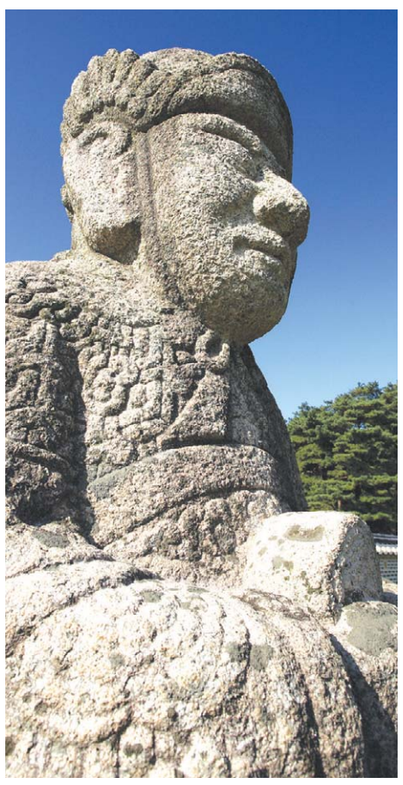


12대 인종과 인성왕후 - 효릉

인종 1515~1545(31세)
재위 1544.11(30세)~1545.7(31세)

제12대 인종 가계도





인종은 조선조 제일의 효자왕이다. 하늘이 낸 대효자라고 칭하고 있다. 정조와는 실체가 다른 극진한 효자다. 근엄한 군왕의 성품도 타고나지 못했다. 핏덩이 시절인 생후 7일만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검소하고 유약한 군주, 서른한 살 한창 나이에 승하한 그에게 인종(仁宗)이란 묘호를 올렸다. 능호를 효릉(孝陵)이라 붙인 것도 지당하다. 왕위에 앉은 것은 고작 8개월 보름이다. 역대 조선왕 중 최단기간 재위했다. 부인을 셋 두었으나 자녀는 한 명도 남기지 못했다. 후사가 없는 왕은 6대 단종, 12대 인종, 20대 경종, 27대 순종 등 4명이다.

그의 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버지 중종이 병 들자 어의가 올린 약을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번거로운 의관을 벗지 않고 손수 병수발을 했다. 병환이 위중해지자 대신들에게 종묘와 산천에 빌도록 명을 내렸다.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고 분향하며 밤부터 새벽까지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다.

중종이 승하하자 엿새 동안 미음조차 들지 않았다. 다섯 달 동안 곡소리를 그치지 않았고 죽만 마시고 소금과 간장을 입에 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늘 빈소를 지켰다. 정사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군국에 관한 업무는 모두 대신들에게 위임했다. 초상 때부터 수척한 것이 극에 이르러 대신들이 고기를 먹으라 권해도 물리쳤다. 문정대비가 권해도 마지못해 드실 듯하다가 들지 않았다. 왕이 병약한 몸으로 친히 혼전에 제사 지내려 해서 문정대비와 대신들이 말렸으나 '죽음의 신이 선왕을 데려가는데 자식된 도리를 못한 것이 매우 아프다' 며 듣지 않았다. 이때부터 병이 더욱 위중하게 되었다.(<인종실록> 권2)

인종은 중종과 장경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여섯 살 때(1520년, 중종15) 왕세자로 책봉되어 25년간 세자로 있었다. 3세 때부터 글을 배워 익히고 8세 때 성균관에 입학해 학문하기를 즐겼다. 지극한 효성과 너그러운 성품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력, 국가 통솔력에 대한 역량은 회의적이다. 금욕적인 면도 두드러진다. 동궁에 머물 당시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는 모두 내쫓았다. 이런저런 연유로 부인을 셋 두었으나 후사가 없음은 금욕생활을 짐작케 한다. 그가 군왕이 아니었다면, 척불을 국가시책으로 삼는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는 출가하여 대덕이 되기에 넉넉한 그릇으로 여겨진다. 30대에 요절하는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를 애석히 여기는 야사가 많다. 그를 기리자면 반동인물이 필요하다. 계모인 문정왕후가 그 역을 맡았다. 문정왕후 윤씨는 여러 차례 인종을 죽이려 했다. 세자로 있을 때, 그와 빈궁이 동궁에서 잠자고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번져 일어나보니 동궁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빈궁을 깨워 먼저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조용히 앉아서 타 죽겠다고 했다. 누가 불을 지른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계모이긴 하지만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하니 자식 된 도리로 죽어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길이라 작정했다.

"내 전날에 죽음을 피한 것은 부모님에게 악한 소문이 돌아갈까 두려워서였는데, 이제 밤중에 깊은 잠을 자다가 불에 타 죽었다면 그런 소문은 퍼지지 않을 것이니 나는 피하지 않겠소. 빈공이나 불길을 피해 나가시오."

빈궁도 혼자서는 불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두 사람 모두 금방 불길에 휩싸여 타죽을 상황이다. 그때 밖에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백돌아! 백돌아! 어서 나오너라." 세자를 애타게 부르는 중종의 목소리였다. 상황이 워낙 급해 중종은 세자의 아명을 부른 것이다. 세자는 그 소리를 듣고, 불타 죽는 것이 문정왕후에겐 효행이 되나 부왕에겐 불효요 불충이라고 여겨 눈물을 흘리며 빈궁을 이끌고 불길을 헤치고 나왔다.

이 불은 누군가가 기름 먹인 솜에 불을 붙여 꼬리에 길게 매단 여러 마리의 쥐를 동궁으로 들여보내 지른 것이다. 중종은 방화가 아니라 한 궁녀의 실화라고 주장했고 세자는 불을 지른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넘어갔다.

즉위 후에도 인종은 문정왕후에 대한 효성이 변함없었다. 계모이긴 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은공을 갚으려 극진히 예우했다. 그러나 문정대비는 인종에 대한 증오를 거두지 않았다. 문안 인사를 오면,

"홀로 된 첩과 약한 아들을 어찌 보전하겠소."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종은 이 말을 듣고 송구함을 이기지 못해 아침부터 따가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대비전 밖 땅바닥에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석고대죄한 셈이다. 또다시 문안을 오면 자신과 아들 경원대군(명종)을 언제쯤 죽일 거냐고 대거리를 했다.

인종이 앓아누워 죽게 된 것도 문정왕후가 내놓은 독이 든 다과가 원인이라고 야사는 전한다. 어느 날 인종이 문안차 대비전에 들렀다. 평소에는 돌 씹은 표정으로 박대하던 대비가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인종을 반겼다. 그리고 다과를 내놓았다. 왕은 난생 처음 자신을 환대하는 계모를 보고 기분이 좋아 아무런 의심 없이 다과를 먹었다.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야사는 독살설로 굳어졌다.

부왕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쇠약해진 인종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약방제조들이 문안하면, "더위 증세가 조금 있을 뿐이니 문안하지 말라." "이제는 기후가 덜하니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몹시 더운데 문안하니 도리어 미안하다"라고 했다. 심한 설사 즉 이질이 죽음의 원인이었다. 독살설은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 내내 찬밥 신세였던 사림파들이 은밀히, 끊임없이 퍼트린 소문이다.



효릉은 조선 12대 인종(1515~1545)과 그의 비 인성왕후(1514~1577) 박씨의 능이다. 인종은 중종의 맏아들로 왕위에 오른 지 9개월 만에 31세로 승하했다. 죽기 전, 이복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과 반드시 부모의 능 곁에 묻어주고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유교를 남겼다. 인종은 유교대로 어머니 장경왕후(희릉) 옆 언덕에 안장되었고, 효성이 지극함을 기려 능호를 효릉이라 했다. 인성왕후도 후일 인종 왼쪽에 비워두었던 왕비릉 자리에 안장되었다. 사적 제202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면적 21만7701㎡(6만5970평).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중종 승하 후 엿새간 곡기 끊는 등 지극한 효성 발휘
서른 한살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이질에 걸려 요절

임종을 앞두고 인종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내 죽거든 반드시 부모 곁에 묻고 장례는 소박하게 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옥좌는 경원대군 이환에게 전위한다. 경들은 더욱 힘쓰고 도와서 내 뜻에 부응하라."

경원대군은 문정왕후의 친아들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처사이다. 문정왕후는 중종~명종 3대에 걸쳐 악역으로 나온다. 그의 행적은 비난 일색이다. 당시나 그 후나 입 가진 자, 붓끝 놀리는 자들에게 비난의 심사가 세습되었다. 당시의 권력 구도, 유림들의 의식구조, 문정왕후의 숭불 노력 등을 살펴보면 감정적 평가는 반성을 필요로 한다. 조금이라도 숭불의 기색이 보이면 조정 대신들과 유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던 시대였다. 사림파의 이념인 성리학이 아니라 불교를 중흥시키려하자 문정왕후는 비난과 음해의 표적이 되었다. 그 표적에 융단 폭격이 퍼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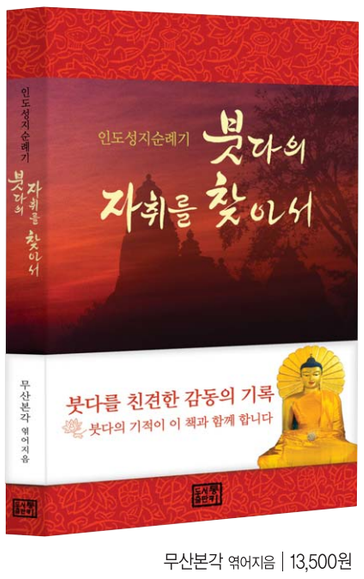
성종, 연산, 중종조를 거치면서 박해와 황폐를 감내해야했던 불교가 문정왕후에 의해 겨우 기력을 회복하여 불력의 기운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그 기운 동토 가운데 지핀 허약한 불꽃이었다. 절반의 성공도 못되는, 차가운 불꽃이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www.musan.co.kr (마음닦기선원 홈페이지)

붓다의 향기를 좇아 미리 가는
인도성지순례

인도성지순례기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산본각 엮어지음 | 13,500원

기원정사! 붓다께서 전 생애에 거쳐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 그리고 수다타 장자의 아름다운 보시로 시작된 곳. 이곳의 기운은 평화롭고 향기로웠으며, 우리 일행은 첫 순례지에 발을 딛자마자 감동에 젖어 모든 여행의 피로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음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땅을 밟았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계획대로 전날 오후에 도착했더라면 이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그곳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 도착한 것입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가는 버스는 마치 차원을 달리하여 달리는 것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뭘 믿고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중에 오후가 되었고 인도국경을 어렵게 넘어 거의 종일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겨 룸비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우수 나무는 티벳 승려들이 매달아 놓은 형형색색의 깃발들의 움직임 사이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래된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인도성지순례기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산본각無山本覺 이용현李容炫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복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 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公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Samatha(止, 定)와 위 빠싸나Vipassana(觀, 慧)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止觀雙運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붓다가 가르침을 편 이래 2,600여 년 만에 비로소 온전하고 참된 붓다의 수행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는 세속 일을 버리고 목포에 있는 무산선림無山禪林 마음닦기선원에서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마음닦기≫ (정신세계사, 1999)와 《붓다의 수행법》 (유토피아, 2007)을 짓고, ≪공짜입니다≫ (바보새, 2004)를 엮어지었으며, ≪오직 모를 뿐≫(물병자리, 2000)과 ≪오직 할 뿐≫ (물병자리, 2001)을 옮겼다.

도서출판 통키 | Tel (02)2263-6961 Fax (02)2263-6962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비염 · 천식
아무리 심한 악성,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도 한약복용만으로 조기에 치료됩니다
※ 전화 상담 환영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유림한의원 051)333-445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105-중-2008호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난)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악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영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도반처럼 함께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행자모집>
남원시 사내면 서도리 519
호성사
063)626-4848
010-8604-8484

전국 어디든 암자, 사찰, 사찰터 무료보시 해주실 큰마음, 큰사랑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스님은 청정비구로서 (세속 50대중반) 도심속에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부처님을 옮겨 모셔야 할 딱한 처지에 있어 스님들과 불자님의 큰사랑과 따뜻한 관심, 인연을 기다립니다.
051)816-3562
누구나 힘든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연락주세요.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비구니스님 되실 분과 남은 여생을 부처님과 함께 지내실 보살님을 기다립니다
▷경남 김해
017-543-7200

동해시에 있는 조용한 암자에서 불교의식 전수 받으면서 기도 정진하실 비구,비구니 및 행자스님 모집합니다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11-9394-0016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남산
054)748-3530

천일기도 하면서 지내실 비구·비구니 스님과 처사, 행자님, 법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기도 요양하실 여자분, 여생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행자(여자)스님 모십니다
051)502-6569

종 무 원 구 함
(경남 창원 길상사)
055)289-728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오래계실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31)585-5108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43)297-8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맑은 사찰
50대 이상 ▷울산
052)254-6144
011-9660-424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50세에서 60세까지
041)836-50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침식제공)
▷부산
011-551-171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경북지역
011-9576-4450

출가에 뜻을 둔 여(女)행자 인연을 찾습니다
(대구 팔공산)
011-825-3181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월·일·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역 학 공 부
●사주초·중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확월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初發心自警文 강좌안내
◇ 개강 : 매주 금요일
◆ 1 - 2시 30분 自警文(야운스님) 4개월
◆ 3 - 4시 30분 誡初心學人文(지눌스님) 2개월
◆ 5 - 6시 30분 發心修行章(원효스님) 2개월

출가수행자는 진리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두눈 똑바로 뜨고 곧장 나아가 어떤 집착도 남기지 않는 열반의 경지를 얻기 위해 출가한다고 했다.
오직 이 경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이는 드물다.

蓮華藏世界 初發心專門講堂
彌 昊 합장

한자 속독 한글
한꺼번에 정확하게 습득되면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는 세계 최초 속독의 원리와 한자의 특수성을 활용한 획기적인 과학적 속독교육
(발명특허출원 56648호)영재교육
010-2831-8426 / 02)723-8426 (조계사부근)

(社)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종 도 모 집 안 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 위주로 풀이하고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잡기가 어려운 四柱를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30여년간 연구와 임상을 총정리한 太極四柱는 운명의 진리를 거울처럼 밝힘으로서 일사천리로 판단하고 감정할 수 있다. 성격과 지능과 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청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유명인사들의 사주를 실제 감정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13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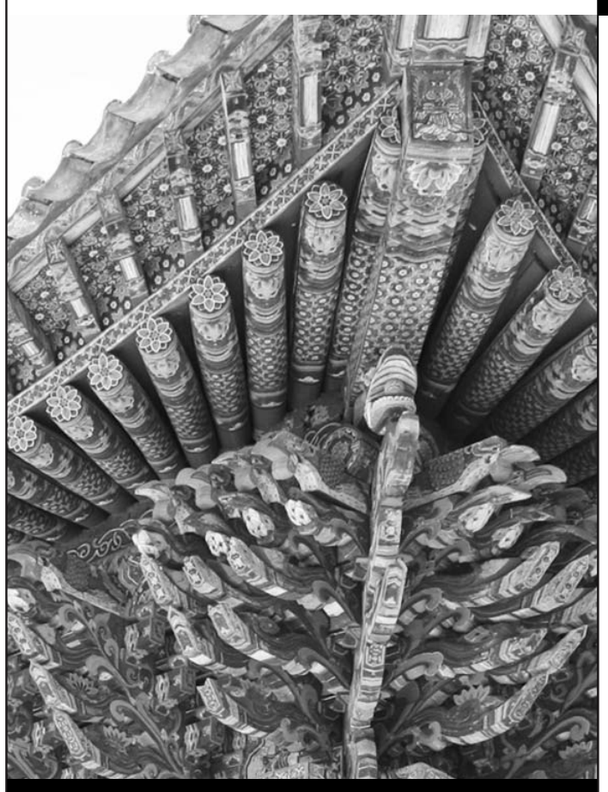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 동해안	●위치 : 경남	●위치 : 부산
●법당 : 27평	●법당 : 25평	●법당 : 50평
●요사 : 25평	●요사 : 40평	●요사 : 100평
●부지 : 357평	●부지 : 350평	●부지 : 135평
●가액 : 3억2천	●가액 : 7억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 안내 (30년생)
- 위치 : 경남 의령읍(10분)
- 총평수 : 3,000평 (밤나무산 포함)
- 법당(조립식)1동
- 요사 : 약 37평(방3칸,주방,욕실,마루)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만 연락요함
- 가액 : 6,000만원

- 위치 : 김해
- 부지 : 1200평
- 법당 : 27평(목조)
- 요사2동, 산신각, 주차장(200평)
- 좌우 청룡백호(뒷산 홍송 수백주)
- 동남향, 탁트인 전망
- 가액 : 7억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포교당 및 문화원 안내

- 위치 : 구로구 구로1동 구일역 10분거리
- 아파트 대단지 약8천세대(연예인아파트 포함)
- 법당 80평, 문화원 80평 ●칠보, 물감, 한지, 공예 등
- 현지 활동중 ●화장실, 샤워장 완벽시설
- 옥상 150평 전체 사용가능. 지하주차장 시설완비
  도심선방 및 각종 문화사업 최적지임
- 가액 : 전세 1억, 월 200만원(관리비포함)
  시설비 1억원(절충가능)

011-9631-0709 / 02-833-0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유원지 內
- 부지 : 약 2,200평
- 건축물 : 대웅전, 지장전, 요사채, 사무실
- 보증금 : 1억원 / 월 200만원

051)782-0033 / 055)337-0111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별채 :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1-9005-2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2층 60평
- 주차완비
- 방2, 주방1, 에어컨 3대
- 삼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 220만원 / 시설비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88-3133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가액 : 총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포교당안내

- 위치 : 김포신도시
- 45평 법당, 사무실,
  스님방, 대중방, 공양실
  주차장있음
- 보증금3천, 시설비절충
  건강상 급양도

011-763-1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지역 등산로길
- 가액 : 7천만원
-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몸만 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통영사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고덕동
  (5호선 전철역 5분거리)
- 위치 좋음, 정남향
- 건평 20평, 주차장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02)3426-1357
010-8726-1357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불사한지 6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100평
- 대웅전 약30평, 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개발사용
  연못조경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저렴한
  적정금액으로 급 안내함
- 가액 : 1억5천만원
  (신협융자 3500만원 있음)

019-245-8929

포교당안내

- 위치 : 안양 평촌 롯데마트 근처
  (아파트단지 인접)
- 8층 건물중 5층 ●60평
- 법당, 공양간, 주지실, 동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등
- 시설한지 2개월
- 유학관계로 급 안내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절충 호조건 양도

010-3130-055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6287-3552

사찰(급)분할 양도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구에서 40분거리 국도변)
- 대지 600평, 별도 국유지
  1200평 사용가
  건평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 주차장 완비
  노인요양원 허가신청 해 놓음
- 계약 후 불사하여 분할 지불도
  가능한 좋은조건
- 돌할배 법사와 함께 사찰에
  계실 비구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인수금 : 2억5천만원
  (융자 9700만원)

053)471-3123
017-501-2315

포교당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체육관 앞
- 포교원 : 45평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500만원(가격절충)
- 시설 A급, 즉시법회가능

011-9762-228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법당 40평(3층 건물중 2층)
- 가액 : 7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 5천만원)
  중간세도 가능함)

053)759-0108
011-506-22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1-875-3513

전원주택 급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읍
- 관리지역(전) 2300평
- 대지전용 300평
  황토전원주택 35평(심야전기)
  스틸창고 38평(천고 6m)
- 가액 : 4억6천만원(전부포함)

017-531-28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여주경계
- 부지 : 임야 관리지역 1690평
- 종교용지 : 362평
- 건축물 : 145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소1, 2층,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기도수행도량
- 가액 : 5억3천만원

017-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3층 약30평
- 법당, 방2, 주방, 거실,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절충
- 철학스님, 무속인 최적지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포시 월곶면
- 대지 246평, 건평 65평
- 임법당, 방7개(요사채 5)
- 법당 20평, 안채 20평
- 가액 : 2억7천만원
  (융자 9500만원 있음)

010-2385-5522

사찰 (임대) 구합니다

- 월세나 선세

010-8828-3002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시내
- 2층 43평
-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8622-1285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총60평(4층 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절충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시설 최상급, 몸만오시면가능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해 급 안내함

011-628-1156
055)338-1328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갓바위 부처고개
- 대지 : 218평
- 법당(1,2층) 70평
  산신각 6평
- 불상, 탱화 집기일체 양도
- 산세수려한 사찰
- 가액 : 3억3천만원
  (1억2천 융자있음)

053)857-3280
010-6577-3280

절터(급)안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보림사가는 길목
- 대지 : 513평
  창고허가 : 25평
- 동불상 일체양도
- 유실수(5년생) 20여종 다량 식수
- 가액 : 3억5천만원

053)983-3889
010-9452-254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깊은 산속 촌집(토굴)
- 대지 60평, 건평 30평
- 가액 : 1천만원
  전세 800만원

054)734-1767
016-823-048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대지:101평 건평:45평
  남향
- 법당1,방4개,화장실2개,주방1
- 가액 8500만원

016-9578-3357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충남
●부지 : 1,000평	●부지 : 1200평
●법당 : 35평	●법당 : 30평
●요사 : 30평	●요사 : 30평
●가액 : 9억	●전세 : 2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어린이집(급)안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379-0591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포교원 임대

최고요지
- 평수 : 40평
- 울주군 온양읍 재래시장 맞은편 2층
- 삼존불, 탱화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교통편 :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010-6665-6990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500m(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기한 5년까지 가능)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정성군
- 평수 3천평, 요사채 50평
- 방7개, 산신각
- 전세 5,000만원(기한 5년까지 가능)

011-9918-525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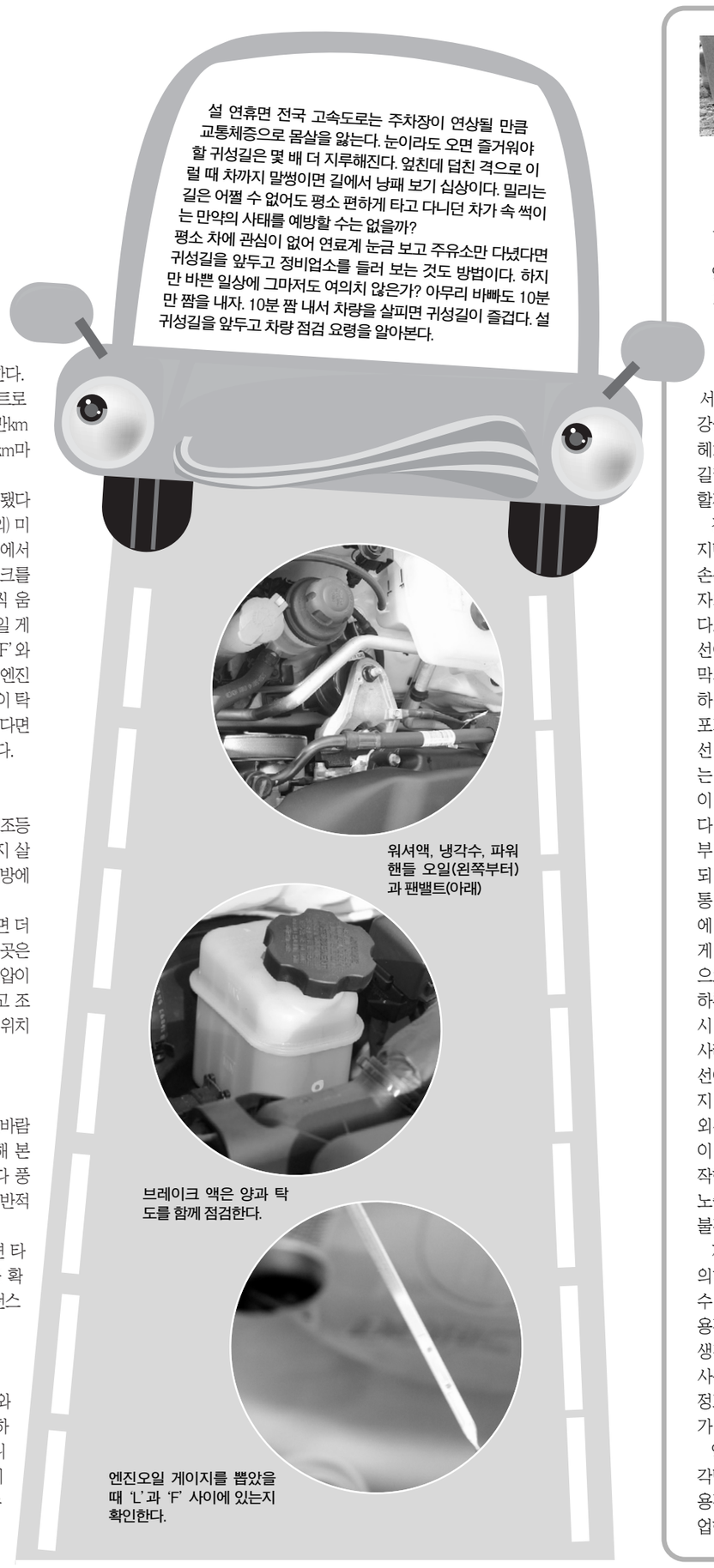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앗 車! 귀성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설 연휴면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연상될 만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다. 눈이라도 오면 즐거워야 할 귀성길은 몇 배 더 지루해진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이럴 때 차까지 말썽이면 길에서 낭패 보기 십상이다. 밀리는 길은 어쩔 수 없어도 평소 편하게 타고 다니던 차가 속 썩이는 만약의 사태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평소 차에 관심이 없어 연료계 눈금 보고 주유소만 다녔다면 귀성길을 앞두고 정비업소를 들러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가?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짬을 내자. 10분 짬 내서 차량을 살피면 귀성길이 즐겁다. 설 귀성길을 앞두고 차량 점검 요령을 알아본다.



워셔액, 냉각수, 파워핸들 오일(왼쪽부터)과 팬밸트(아래)

브레이크 액은 양과 탁도를 함께 점검한다.

엔진오일 게이지를 뽑았을 때 'L'과 'F'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점검은 이렇게

본네트 열고 확인해 보세요

본네트를 열고 각종 오일류를 점검해보자.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오일 게이지가 ''F'' 선에 가 있는지 확인한다. ''E'' 선에 가깝게 있다면 오일을 보충하도록 한다. 엔진오일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 게이지를 뽑아봤을 때 색깔이 검거나, 손끝으로 만져봤을 때 물처럼 점성이 없을 경우 교환한다. 엔진오일 교환시기는 일반적으로 7,000km가 적당하다.

다음은 냉각수를 살핀다. 라디에이터 뚜껑을 열어 냉각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주의할 것은 절대로 엔진이 뜨거울 때 열지 말 것! 냉각수가 부족하면 부동액과 수돗물을 절반씩 섞어 보충해 준다. 부동액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교환한다.

유리 세정액도 충분하지 살펴보자. 설 무렵이면 강설이 잦아 구정물로 앞유리가 더러워지기 쉽다. 워셔액은 동파를 대비해 반드시 사계절용으로 채워준다.

브레이크 오일·배터리 체크 필수

타이어·히터 온도조절기 점검도

벨트도 살피자. 팬벨트가 갈라진 곳이 있나 살펴본다. 만져봤을 때 탄성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느슨할 경우 교환하거나 장력을 조정한다. 벨트 점검은 3~4만km마다 해주고 보통 타이밍벨트 점검 때 함께 교환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어떤가? 겉에서 봤을 때 탁하면 이미 교환시기가 지난 것!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성질이 있다. 수분을 많이 포함하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베이퍼록 현상이 생겨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3만km마다 교환한다. 양이 줄었다면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마모를 의심한다. 이럴 경우 패드나 라이닝을 교체하면 원래 양으로 늘어난다. (수동 차량이라면 클러치액도 점검한다.)

배터리를 살펴보자. 상태를 알려주는 창이 있다면 초록색이라면 정상이다. 그 외 흰색이나 빨간색이라면 교체나 발전기 이상이 의심된다.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 소리를 들어 보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한 번에 시동이 걸린다면 배터리, 발전기, 시동모터 모두 양호한 편이다.

시동 초기 엔진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 엔진 회전수 1천500rpm 정도로 '패스트 아이들링'을 한다. 만일 엔진 회전수가 낮아 심하게 떨린다면 연료공급이나 흡기계통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심하면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점검한다. 휘발유 차량은 일반적으로 2만km마다 트로틀바디를 청소한다. 구형 LPG 차량은 1만km마다 타르를 제거한다. 연료휠터는 4만km마다 점검한다.

엔진 공회전이 800~1000rpm으로 안정됐다면 미션오일을 점검해보자. (수동차량 예외) 미션오일 점검은 반드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한다. 미션오일 게이지를 뽑기 전 브레이크를 밟고 P-R-D-2-L 단수마다 3초 정도씩 움직여 오일이 골고루 순환해 준다. 미션오일 게이지를 뽑고 HOT이라고 적힌 부분에서 'F'와 'L' 사이에 있는지 확인한다. 미션오일도 엔진오일처럼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 특히 색이 탁해 오일에서 탄 냄새가 나거나 점도가 묽다면 교환한다. 일반적으로 4만km마다 점검한다.

차를 둘러 보세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미등, 안개등, 전조등 차례로 켜 어디 전구가 끊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자. 특히 브레이크 등 확인은 사고예방에 중요하다.

타이어도 살펴보자. 공기압을 점검해주면 더 좋다. 타이어 표면을 봐서 혹시 편마모 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편마모 됐다면 혹시 공기압이 원인인지 얼라이먼트가 원인인지 살펴보고 조치한다. 타이어는 1만km마다 앞뒤 타이어 위치를 대각선으로 바꿔주면 오래 쓸 수 있다.

시운전해 볼까요?

운전석에 앉아 히터를 켜본다. 혹시 찬바람이 나온다면 온도조절기의 이상을 의심해 본다. 실내공기필터가 달린 차량이 평소보다 풍량이 적다면 필터를 교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1만5천km마다 교환한다.

차를 달렸을 때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주거나 얼라이먼트를 확인한다. 핸들이 상하로 떨리면 타이어밸런스를 확인한다.

준비물 챙기세요

지금까지 점검한 것이 이상 없다면 나와 가족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받은 셈. 하지만 겨울철은 무엇보다 눈길이 위험하니 철저히 대비한다. 스노우 체인, 장갑, 타이어 탈착 공구, 삽, 손전등은 겨울철 필수품, 그 외 예비용 워셔액과 비상용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조동섭 기자



18. 자외선 각막염증

얼마 전 산악인 엄홍길씨가 세계 최초 16좌 등정인 로체샤르 정상에 오를 때 일이다. 함께 등반한 동료 대원이 설맹에 걸려 앞을 못 보는 상황게 됐다. 그래서 엄씨는 동료를 업은 채 추위와 강풍을 뚫고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헤쳐 나갔다고 한다. 설맹이 무엇이길래 산악인들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까?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손상을 주지만 눈 조직에도 단기적, 장기적인 손상을 가한다. 이중 설맹은 겨울철 자외선에 의한 각막손상을 의미한다. 매우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의 피부에 해당하는 각막상피세포가 파괴돼 자외선 각막병증이라는 각막피부손상이 발생한다. 각막피부가 손상되면 심한 통증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고 눈을 뜰 수 없게 된다. 또한 각막표면의 심한 손상으로 시력도 급격히 떨어진다. 대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각막이 다시 재생돼 시력을 회복하고 통증도 사라진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자외선에 노출된 후 각막이 손상되기까지 잠복기가 있다는 점이다. 대략 자외선 노출 후 8시간 정도 지나면 눈이 아파오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점 때문에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정작 노출 당시에는 별 불편함을 못 느낀다.



스키장에선 자외선 차단용 고글 필수

장시간 노출땐 눈의 손상·노화 유발

자외선 각막병증은 꼭 태양광에 의한 자외선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흔한 경우가 용접작업이다. 용접을 할 때에는 강한 자외선이 발생된다. 이때 보호대나 보호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업 후 반나절 정도 지나면 심한 안통과 시력저하가 생긴다.

일부 숙련된 용접공들은 자외선 각막병증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아 용접 스파크를 피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자외선에 각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다른 경우는 자외선 살균기 또는 실험실에 있는 자외선 후드다. 자외선 살균기의 유리문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이를 열어 논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때문에 종종 실험실 연구원들이 안과를 찾기도 한다.

자외선은 이와 같이 단기적인 눈의 손상도 유발하지만 적은 양의 자외선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안구건강을 해친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듯 눈의 노화에도 깊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백내장은 대부분 노화현상의 일부지만 자외선도 중요 원인이다. 자외선 노출량이 매우 높은 호주에서는 선글라스 착용율이 높은 백인보다 그렇지 않은 원주민이 백내장 유병율이 높다.

자외선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익상편, 검열반과 같은 눈표면 노화의 원인이다. 또한 최근 연령관련 실명의 중요한 원인인 황반변성 또한 자외선이 중요 원인이다.

이와 같이 자외선은 단기적 손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 눈의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겨울철 스키장에서도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글을 선택할 때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한 색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안경 색깔과 자외선 차단 정도는 무관하다. 자외선 차단은 렌즈에 자외선 차단용 필름이 코팅이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히려 너무 진한 색은 시야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동공을 크게 만들어 망막에 들어가는 자외선의 양을 증가 시킬 뿐이다. 스키의 계절 겨울, 고글의 착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지키자. 02) 755-0055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원효종
경북남교구 종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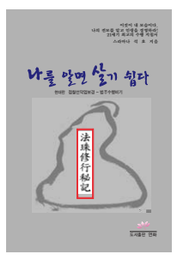
종무원장 복원사 영운

교무국장 대 각 사 대각
포교국장 송 학 사 도완
규정국장 연 화 암 일도
사회국장 토함정사 대호

종 도 일 동

■ 종무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1리 875
원호불학원 어림산 복원사
054)745-3646

수행으로 아는 나의 삼세(三世)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연화 펴냄 |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포함 정가 5만원

팔만 대장경 경집부 점찰산악업보경을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놓은 수행지침서로서 부제는 〈법주수행비기〉, 자신이 지은 업력으로 발동하는 인생의 고락길흉을 〈법주〉라는 수행도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인연의 힘으로 점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수행과 현실적 성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각각 0수로부터 108수에 이르는 숫자의 행로 중에서 자기 인연수가 결정되어지며, 수행의 향상 정도에 따라 인연수가 변화하게 된다.
독자는 이 수행법에 의해 자신의 전생 내지 현재, 미래 모습의 파악은 물론, 매 순간 닥치는 인생진로 및 인간관계의 성패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수행하는 세상, 모두가 부처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수도승인 저자의 서원이 가슴 짠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 불서총판 운주사 -

온라인〈농협〉1343-02-005446 예금주 이성한

구입처 : 도서출판 연화 053) 253-1923 익일택배

대한불교선밀종
임원,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지향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비영리종교단체(칠곡군 : 37451-00292)
비영리종교단체고유번호(513-82-65714)

입종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연 락 처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 188-7번지(관정사)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054)976-0405(원묵)

大韓佛教禪密宗
TEL 054)976-0405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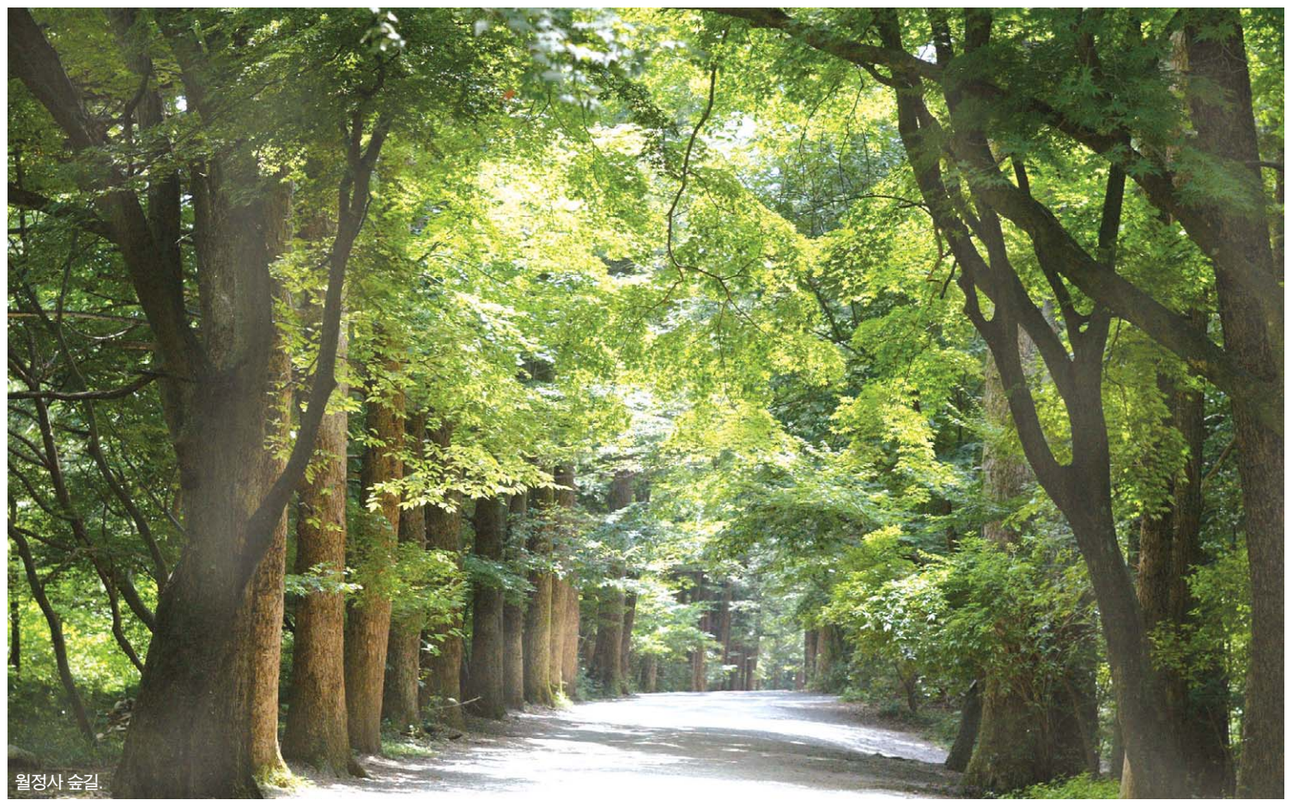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 2008년 3월 6일
(수업-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 053)857-4339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사찰 휴경지를 불교 수목원으로


월정사 숲길.

환경파괴·생태계 훼손으로 고유식물의 심각한 멸종위기
사찰 휴경지·사찰림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

특별기고


김재일
조계종 환경위원·사찰생태연구소 대표
temple-e@hanmail.net

수목원의 개념과목적

근래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주5일제 정착과 함께 국민들의 휴양문화가 정립되면서 크고 작은 식물원 또는 수목원들이 지자체나 개인 원력가에 의해 속속 세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목원(arboretum)은 목본식물(나무)을 주로 하여 전시하거나 양묘하는 곳을 가리킨다. 산림에 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산림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꾸며진 곳이다. 식물원(botanical garden)은 초본(풀)이나 목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공개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고 있다.


여주 신륵사 숲.


해남 두륜산 대흥사 숲.


고란사 숲길.

수목원의 주된 목적은 식물의 채집재배, 분류연구, 전시관람, 휴양 공간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식물종의 경제적 가치와 놀토 정착에 따른 휴양문화 확산에 힘입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목원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특히 관광개발과 산림관리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목장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다목적 수목원의 필요성에 비중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수목원 설립의 뚜렷한 경향 가운데 하나가 주제(theme)에 따라 특성을 갖고 조성된 '테마 수목원'이다. '약용식물원' '허브식물원' '자생식물원' '고산수목원' '난대수목원' '원예수목원' 등이 그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불교수목원도 불교와 사찰을 주제로 한 테마수목원이다.

불교수목원의 필요성

불교는 나무의 종교요, 숲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였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닫고, 숲에서 열반한 숲의 각자였다. 부처님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를 때때로 유시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숲속의 수행자였으며, 숲을 지켜온 수호자였다. 그들의 수행처인 사찰은 역사적으로 숲을 지키는 산막(山幕)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목원이 설립되면 세계 유일의 불교 전문수목원이 될 것이다.

#신앙을 돈독히 해줄 불교수목원=불교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무우수(無憂樹), 성도와 관련된 보리수(菩提樹), 열반과 관계된 사라수(沙羅樹) 등 3종의 성수가 있다. 불상이 생기기 전 불자들은 500년 동안이나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를 부처님 대하듯 경배해왔으며, 그 흔적이 아직도 인도 각처에 남아있다. 방대한 경전 곳곳에는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팔만대장경 등 경판도 나무로 만들어졌다. 경판 나무들을 심고 보전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부처님과 관련됐거나 경전에 언급된 초본·목본을 심어 증식 · 보전 · 전시한다면 사부대중에게 경배심·신앙심을 불러일으켜 불교순례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멸종 위기 불교식물 보존=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에 동식물 130여종이 멸종한다고 한다. 1970~1995년 식물이 무려 380종이나 멸종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거나 경전 속 식물들도 지역개발과 지구온난화 등 멸종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인도를 비롯한 불교국가들은 개발도상에 있어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불교 관련 식물들을 지키고 보전해야할 지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다양성 극빈국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귀화식물의 생태적 횡포와 외래종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우리 고유식물들의 멸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태위기의 시대에 불교가 수목원을 설립하여 한반도 고유식물을 보전하고 위기의 종들을 지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국가 간의 21세기 '생물자원 전쟁'에서 국익에 보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찰 식생조경에 큰 역할 담당=필자는 1988년부터 1000 사찰 순례를 시작하여 현재 800여개 사찰을 순례하고, 2002년부터 108사찰 생태탐방을 시작하여 90여개 사찰생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러는 동안 가슴 아프게 느낀 점 하나는, 우리 전통사찰의 식생조경에 전통성과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점이었다. 삼보사찰이며, 5대 적멸보궁이며, 3대 기도처며, 25개 본사 사찰이며 생각 없이 심은 조경수들이 경내외를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면 식생조경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불교 관련 식물들을 필요한 사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소유 휴경지 효율적 활용=사찰림은 국유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산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찰소유 토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일손 부족으로 사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찰 소유 토지의 휴경율(休耕率)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해 고효율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교 이미지 재고=지리산 댐 · 북한산 · 천성산 · 새만금 문제 등 환경 이슈마다 불교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불교 환경운동이 매우 이기적이고 반성찰적이라고 비판한다. 처음부터 사찰들은 숲을 훼손하고 들어앉았으며, 수행환경 보전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경쟁적인 대형불사로 끊임없이 숲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비판을 성찰적으로 수용하고, 불교가 '숲을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는 종교'라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 불교수목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나무들의 재활터 역할=사찰불사 과정에서 수백년 된 노거수를 함부로 베거나 숲을 몰래 훼손하여 사회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불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베어내게 될 나무들을 옮겨 살릴 수 있다면 불교수목원은 위기의 나무를 방생하는 재활터 역할을 할 것이다.

#휴양과 학습과 수련의 장=수목원의 휴양과 학습 기능은 포교의 좋은 발판이 된다. 일반 공원이 산책과 휴식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라면 수목원은 그것에 다 웰빙과 자연학습이 추가된 다목적의 공간이다. 휴양공간을 갖춘 불교수목원은 국민들에게 삼림욕 등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수목원은 국민이 자연과 식물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의 현장으로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수목원은 참선과 명상 등 정신수련의 장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수목원은 입장료, 묘목 판매, 기술과 연구 용역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초기투자액이 높고, 원금회수 기간이 다소 길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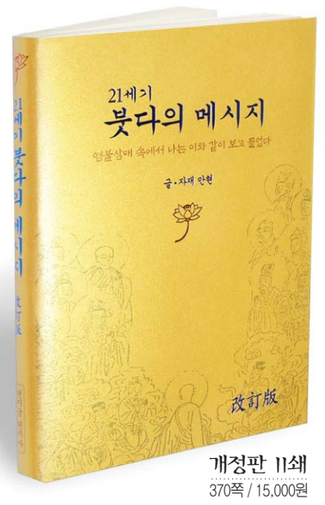
특히 불교수목원은 사찰휴경지나 사찰림을 활용함으로써 초기투자액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식물증식과 조경수 분양, 사찰 조경 사업 및 컨설팅, 수목장 부대사업, 다양한 불교휴양문화 콘텐츠 개발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다른 수목원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불교종단에서 수익문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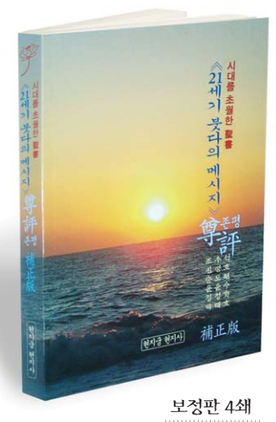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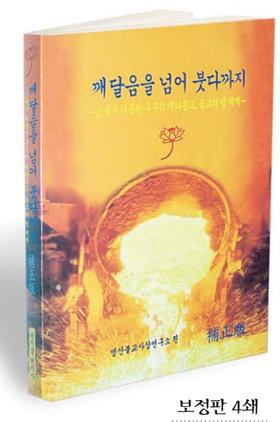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절찬리 판매중
12쇄 발행!! 개정판 11쇄 이어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스님이 가르쳐주신 도리와 스님이 애끓게 가르치신 그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르치신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도리에 접하기 전에 저는, 남들은 겉으로 편안하게 보인다고들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적과 동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려서 상대와 부딪쳤을 때는 물론이고 저 혼자 있을 때도 늘 속으로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현재는 제 마음속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묻어두지 않고 있는 것을 스님께, 이 도리에, 또 저 자신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럽고 깨끗하고 이걸 너무나 또 잘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볼까 하고 곰탕 국물에 바퀴벌레가 녹아 있어도 그것만 건져내고 먹어봤고, 똥파리가 빠져서 뱅뱅 돌아도 그걸 건져내고 먹어봤습니다. 그전에는 밥 위에 파리가 조금만 앉았다 가도 몇 숟가락을 덜어내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등등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 많아서인지 어느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관둬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앞에 스님 법문을 받자옵고 더 질문을 드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편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한편에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주십시오.

스님: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 공(空)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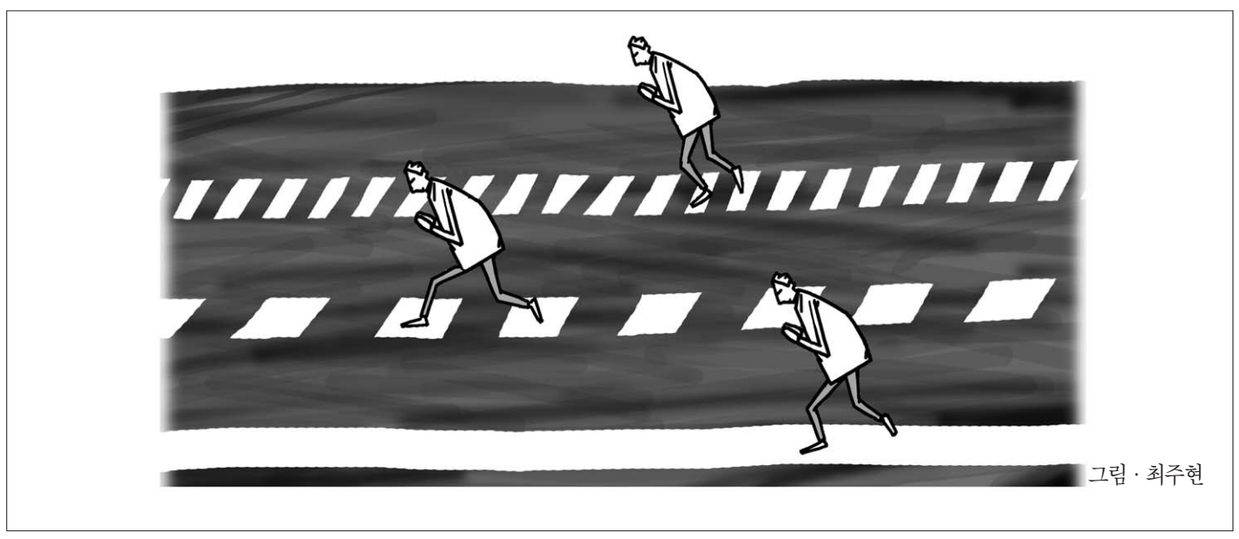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둘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십시오.

스님: 아이, 생각해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냐? 아휴!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놈이 한 거니까 제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놓고 밥을 먹어서 배 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놓고 숟가락으로 떠 먹을 때, 떠 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떠 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낄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전부 요렇게 살게 만들어놓고 또, 네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랍니까? 회답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잘 그렇게 해보신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잘될 겁니다.

질문자2(남): 불법과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반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마음 주인공을 처음 접하는 초발심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상당히 쉬웠고 그 결과 일이 돌아가므로 신바람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발심 때가 지난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의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뭉쳐진 현재 '나' 때문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공부가 잘 안되는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거울 삼아서 습이 나오는 대로 되놓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습은 심야와 같이 깊어 청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얼마만큼까지 가야 되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업이 녹는 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지금 말씀하고 마이크를 놓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그렇게 들었다가 놓고, 제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자2(남): 저입니다.

스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인 거를 번연히 알면서 자기 탓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합니까?

질문자2(남): 모든 가르침을 받자옵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덧 예전부터 쌓아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몰랐던 습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꺼내서 맡기고 되놓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하나하나 습이 없어져 가면서 내가 도반들과 더불어서 청정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면 기쁨도 맛봅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테이프에 입력되어진 모든 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을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냥 생활이 그걸 끊어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또 나쁜 거를 불의에 당했을 때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든 게 행하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

☞26면으로 계속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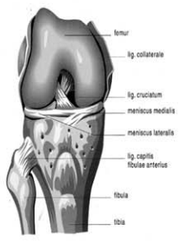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자기가 하고 가니까 자기한테다 놓으세요!

☞25면에서 계속

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가지고는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그거 얘기해드렸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구,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글쎄!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 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질문자2(남): 믿고 맡기고 되놓는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예.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질문자3(남): 스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스님께 질문해야 할 부분들은 이미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인공과 믿음과 놓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히려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기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둑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밤새도록 안달을 하면서 둑을 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경쟁사라든지 경쟁자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사전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둑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요.

>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질문자4(남): 스님의 무량광대하고 대자대비하신 법석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인연과 주인공 자리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빌어 오늘 스님께서 전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마는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조상님과 스님, 주인공 자리 그리고 제가 둘이 아님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촛불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가령 삼형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촛불재를 모실 때 어떤 한 분만이, 예를 들어서 큰형만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촛불재도 백중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를 모시는 등 여러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어떤 형제가 대표로 하는가, 아니면 한 번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법음을 받들고자 합니다.

스님: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요. 대신 가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구가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그 한마음으로서 대신하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거나 부모가 해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둘이나 되나요? 단 하난데, 그냥 공부를 영 안 해서 남을 따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재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자기가 켰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 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들 촛불재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자4(남):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4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실은 한마음 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이 육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삼 개월 전쯤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작은 아버님께서는 성당에 다니십니다마는 저희 도반들이 함께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져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더 덤으로 아주 건강하게, 학교에 계시는데 학교에 있었던 모든 업무를 다 쳐결하시고 한 달 반쯤 계시다가 몸을 벗으시는 그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웃으시면서 이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저희 목포에 있는 청년 법우를 제가 스님을 모시고 병문안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학생법회 선생님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작년에 있었던 광주의 대법회에서도 스님께 질문 시간을 통해 한 몸을 불살라 그야말로 스님과 부처님께 보답코자 하겠다고 말씀드리던 법우입니다. 어제 막상 병원에 가보니 혼수상태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불과 한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이렇게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기력을 되찾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게 전부 스님께 대한 회향이었습니다. 직접 그 아버님을 모셔다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나으면 출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전부 스님께 대한 회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공부를 이 몸이 있을 때, 이 몸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정진해야겠다는 것과 저 자신 또한 이렇게 덤으로 사는 마당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처님 회상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야 전부 다 아시겠지마는 저처럼 이렇게 우둔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감로법을 청합니다.

스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금(金)이라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가고 옴이 없이 천리라도 한 찰나고 요 대문 밖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같이 만약에 내가 심부름꾼이라면 한 찰나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에다 되놔라 하니깐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기 주인공을 업신여기죠. '아이구, 나한테다 내가 놓으래?' 이러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 업신여기는 버릇을 갖지 마세요. 항상, 자기의 자기한테다가 '주인공!' 하면 겸해서 항상 에너지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즉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동참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업신여겨서도 안 되죠. 자기면서도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면서도 전체가 자기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자기 주인공이 일 저지른 걸 자기 주인이 해결해야 된다 하고 거기 믿고 놔라 이거죠. 놓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인연이 된 거죠. 인연이 됐으니까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깐 천리만리라도 얘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가고 옴이 없이 갑니다. 마다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힘이 없든 있든 막론하고 그냥 나투니깐요. 그 믿음, 같이 한마음으로 나투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다 나투는 거죠. 육안으로는 오고 가는 게 보이지 않겠지요. 너무 빛보다 더 빠르니깐요.

질문자4(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 다 끝났는데요.
스님 그럼 끝났으면 끝난 대로 끝난 거지요.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한글 한문 (겸용) 불교 상용 의식집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 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

〈문의〉 전화 031)448-5065 /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실전 사주 명리학
제2기 수강생 모집

① 인원 : OO명
② 교육개강일자 :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
③ 교육기간 : 6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5시
④ 신청방법 :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문과
1기수강생들의 교육후기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본회의 실전 사주명리학 강의는 이제까지 어느 고서, 어느 곳에서도 익힐 수 없었던 실전 지식 체계로서 고급편부터는 철저히 팔자술 실전의 첨단기법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물상의 결합, 나들이, 허귀, 허합자, 공협, 도충, 오운육기, 공망비약 등의 비법과 형충회합 스킬에 대한 고도의 실기묘법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풀지 못한 천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게 되면 누구나 더 이상의 틈이 없이 적중시키는 필살기를 다듬게 되어, 실제상황에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족집게추론을 하게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회장 혜천 법사 합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전화 031)768-8414~6 / 팩스 031)768-8413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짱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 세상보기

최 정 희
현대불교신문 前 편집국장

짧은 덕담 긴 여운

"친구야!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2008년 1월 1일 오전 12시 23분.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묵은해를 흘려보내고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가 TV화면에 가득한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문자메시지 들어왔다고 신호를 보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그 시간에 내 오래된 친구 화숙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덕담을 보냈다. 가슴이 설레고 벅찼다.

환갑이 넘어 문자 보내는 법을 배웠다더니 그는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새해맞이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 이웃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쁨이었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성모마리아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충만감이 내 몸에 감돌았다.

1월 1일 오후 나는 화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해맞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감동했다며, 어떻게 새해가 열리자마자 문자 보낼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정미사에 다녀와서 보냈다는 것이다.

내 예감이 맞았다. 예배를 올리며 발원하고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문자메시지에 담아 내게 보낸 것이다. 어찌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의례적인 새해인사가 아니라 마치 선물을 고르고 포장하듯 정성을 다해 내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준 것이다. 40여년 가꾸어 온 우리의 우정은 그렇게 또 다져졌다.

"새해에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모친께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은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메시지다. 새해 첫날 나의 가슴은 또다시 벅차올랐다.

"선생님, 어떻게 저까지 챙기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뭐 남는 게 시간인데…." 아주 편하게 답하셨다.

여학교 물리선생님으로 시작하셔서 대학의 물리학교수로 정년을 마치신 나의 은사님은 후배교수들을 위해 퇴임 후 강의를 사양하신 그런 분이시다.

지난해 1월, 내가 쓴 책을 보내드렸더니 '생각하며 읽느라 인사가 늦었다'며 전화를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며 짬을 내서 책을 펴내고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나를 대견스럽게 여기셨나보다. 그러기에 올해도 그렇게 활동하길 바라시면서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은사님과 내 친구의 새 아침 덕담을 떠올리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그리고 그 기원 덕분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시고 나도 건강할 것만 같다.

'웃는 새해'. 마치 사자성어 화두처럼 짧은 새해 덕담도 받았다. '웃는 새해'가 되길 축원해주는 이 덕담은 축원에 머물지 않는다. 2008년이 웃는 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이 덕담을 보내신 분은 아마 자기를 비롯하여 이웃이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며 신년 화두로 삼아 여러 친구 또는 후배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분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웃는 해는 그냥 되지 않는다. 웃을 수 있도록 정진하고 여러 방면에서 공덕을 쌓으며 지혜롭게 살아야한다. 한 마디로 잘 살아야만 웃을 수 있다. 잘 살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

나는 수시로 나를 살필 것이다. '웃는 새해'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찡그리거나 화를 낼 일이 생기면 얼른 '웃는 새해'를 떠올리겠다.

비슷한 덕담이 또 하나 있다. '연시호년 일시호일(年是好年 日是好日)' 연하카드에 담아 보낸 이 덕담도 내 마음에 새겨졌다.

새 아침에 받은 짧은 덕담이 이렇게 긴 여운을 준다는 것을 나는 올해 아주 깊이 느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 설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나눌 것이다. 그 덕담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정(眞情)이 담겨야 한다. 진정이 담긴 덕담은 생기(生氣)를 발한다. 생기 머금은 덕담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한 덕담의 메아리가 가시지 않고 울려 퍼지면 우리들 가슴에서 희망의 등불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나에게 문자로, 전화로, 연하카드로, 아니면 얼굴을 보고 덕담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그 덕담의 향기가 공덕으로 피어나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의 인생덕목(人生德目)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㊾ 지혜로운 마음을 입력합시다

한 30대 법우님이 보내주신 글을 함께 나눕니다. 새해를 계획하시며 진실하고 희망찬 마음을 입력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웃음(笑)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童子)로 만든다.

● TV(바보상자)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 된 바보가 된다.

● 성냄(禍)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 기도(祈禱)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 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 이웃(隣)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 봐야 한다.

● 사랑(慈愛)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낮춤이 선행된다.

● 멈춤(止觀)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기나니.

독자여러분, 새해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매사를 내 근본이 이끌어간다고 믿으면 생활이 곧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마음속에 계신 자성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것을 놓고 맡기시어 지혜와 자비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말(言)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세 번 생각하고 열라.

▮책(讀書)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이 헤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노점상
할머니 등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태릉선수촌 법당이 상징하는 것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올 해 한국불교는 올림픽 무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교계가 이러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전법 활동의 성패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스템이 좌우한다. 베이징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전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의지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자체에 대한 범불교적 고민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1월 23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법당 개원법회는 체육인 포교와 체육인을 통한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여서 더욱 그러하다. 따지고 보면 태릉선수촌에 법당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전법 의지와 시스템 부재를 잘 대변해 주는 상징이었다. 법회에서 선수들이 밝힌 소감에 따르면 그간 법당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운영이 되지 않아 침체 일로를 걷다가 인근 사찰에 가서 법회를 보기도 하는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인의 눈길을 받으며 기량을 뽐내는 국가대표들이 법회를 보기 위해 승합차를 타고 선수촌 인근 사찰을 찾아 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조계종 포교원이 체육인불자회를 활성화 시키고 (재)한마음선원이 기탁한 3억 원을 바탕으로 태릉선수촌 법당이 개원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불사다. 이 법당을 중심으로 체육인들이 마음을 닦아 기량을 더 높이고 그들을 보는 세계인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길 바란다.

10·27 법난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10 · 27 법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월 말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이 법을 발의한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조계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1월 23일 마련한 회의에서 두 의원은 2월말 임시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단과 개인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추모사업과 관련 단체 지원 등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조계종도 10 · 27 법난의 범위를 보다 확대 해석하는 안을 내놓는 등 특별법의 성격과 기능 등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과 관련한 현안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제정을 결의 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위원회 차원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청치 쟁점에 밀릴 경우 자동폐기의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간 정부를 상대로 10 · 27 법난의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별법은 정부와 불교계가 해묵은 '유감'을 씻고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당 국회의원들도 임기 막판이라는 인식보다는 보다 철저한 사명감으로 불교계의 '역사적 상처 씻기'에 맑은 물을 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정진 또 정진하여 몽환의 껍질을 벗어나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제방에서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각고(刻苦) 정진하시는 스님들과
고단한 생활의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여러분께
무자년 새해는 무량대복이 깃들어 나날이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삼가 '법공양' 을 올립니다.
소납(小衲)은 무자년 새해를 맞으며 제방 불제자들과 함께
국운의 융창과 만민(萬民)의 평화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고
일생을 길과 숲에 머물며 광대무변의 진리를 설하신 것은
중생이 저마다 불성의 당체(當體)이고
우주만물이 스스로 영험하여 어느 것 하나 불법(佛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경도되어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중생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중생의 미욱함이 본래 극락정토인 이 땅을 예토(穢土)로 만들었고
중생의 삼독심(三毒心)이 본래의 불성에 암운을 드리웠으니
이 세상은 하루도 전쟁과 범죄와 부도덕과 환경파괴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바세계의 검은 구름을 헤치고
청청명명한 자성불의 하늘을 드러낼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부덕한 소납이
지난 30여 년 간 불조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진해 온 방편이 있으니, 이를 통해 만중생의 복전에
원통묘음(圓通妙音)이 울려 퍼지길 발원합니다.
소납은 출가 직후부터 은사 현종(玄宗) 대화상의 권유에 힘입어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에 힘써 왔습니다.
한 곳에서 곡기와 식수를 최대한 절제하며 30만 독(讀)을 하면서
이 주력의 무한한 힘을 체험하기도 했던 바,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묘용(妙用)이 열려 옴을 실감했습니다.
기도 정진의 성취는 방편에 있지 않고 스스로 일심매진하여
우주와 자신을 둘이 아니게 합일하는 경지에 있는 것이지만
소납은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의 공덕이
개인의 갈등과 고통을 풀고 사바의 암운을 걷어내는 수승한 길임을 믿고
여러 불자님들께 이 주력으로 수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갈등과 탐욕과 싸움으로 얼룩진 것은
바로 일심으로 매진하는 기도의 공력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가 관음의 원음으로 장엄되고
천수와 천안의 원력으로 장엄되려면 일체중생이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원력을 품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일념매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수행하는 불자가 됩시다. 자신의 수행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타인이 먹은 밥에 나의 배가 부를 수 없듯이
나의 복전은 내가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기름때가 뒤덮었던 태안반도가 온 국민의
자발적인 봉사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듯
우리의 숙세업장과 현세 무명번뇌도 스스로 닦고 또 닦아 녹이고
몽환(夢幻)의 껍질을 깨어 온 법계의 원혼이 천도되고
사람과 집단과 나라의 갈등이 치유되며
산 자와 죽은 자가 둘이 아니게 함께 복락을 누리는
청정불국토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2008년 새해를 시작하며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지운** 합장

달제 지운 스님은
본래 비었으니 젖을 것 없어라



오도송

광풍우래신의착(狂風雨來身衣浞) 미친 비바람 불어와 몸과 옷 적셔도
심시불본공착무(心是佛本空浞無) 마음과 부처 본래 비었으니 젖을 것 없어라.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달제 지운 스님은 출가 후 오직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경' 주력 기도를 하고 있다. 명산과 수승한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한 시도 주력을 놓지 않는 정진으로 기도의 힘이 대지를 덮고 하늘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회와 주력을 통해 숙세의 업장을 녹이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생활임을 강조한다. 종단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조동선의 근간을 깊이 연구하여 종지를 세우고 수행자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 부처님 이래 한국불교에 면면히 흐르는 법맥을 정리해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 출가한 스님은 제방을 다니며 정진하다가 1994년 양평 금강사를 중창했다. 지금은 토굴에서 주력과 '거울을 닦아 본래를 보는' 정진을 겸하고 있다.